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416-9202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서기 2008년) 1월 1일(음력 11월 23일) 화요일 (주간) 제 660 호

“베풀고 닦고 배우고 이루겠습니다”

2008 선재의 발원

불기 2552년, 단기 4341년 서기 2008년, 무자(戊子)년, 쥐띠의 해. 한 해를 규정하는 이름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디 이름뿐이겠습니까? 사람마다 새해를 맞는 다짐과 감회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중생도 차별하지 않는 부처님의 자비광명은 새해의 첫날에도 우주법계를 두루 비추어 줍니다. 새해 새 아침, 선재는 작은 손으로 또박또박 가슴에 발원의 글귀를 새겨 봅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빠짐없이 세우신 네 가지 큰 서원(四弘誓願)을 선재도 세워 봅니다.



“기쁨 나누는 한 해 되세요” 우주 법계에 맑은 소리를 퍼뜨리며 환희의 춤을 춘다. 부처와 중생, 생과 사 등 모든 경계를 초월하며 한바탕 공양으로 베풀어지는 영산재는 법계의 흥겨운 잔치다. 온 인류가 이 장엄한 잔치의 기쁨을 나누길 기원하는 옥천범음대 학생들은 “새해에는 영산재가 꼭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되길 바란다”며 연습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베풀며 살겠습니다”

선재는 지난 날 이웃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돌이켜 봅니다. 말로는 이웃을 위한 삶, 자연 환경을 위하는 마음가짐을 떠들었지만, 막상 얼마나 실천했는가를 되짚어 보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차 안에서 혹은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과 노숙자를 보면 눈을 돌렸고, 길에 슬며시 휴지를 버리거나 음식물을 지나치게 남기고 오물을 함부로 투기한 일도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선재는 새해 아침에 다짐해 봅니다. 자신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피해 받는 이웃이 없게 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날마다 ‘베푸는 삶’을 다짐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선재의 베푸는 삶이 이어지는 한 일체중생이 다 제도되는 날은 반드시 올 것이란 것을.

“닦으며 살겠습니다”

선재는 또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얼마나 굳은 신념으로 정진 해 왔는가? 들끓는 무명번뇌에 휘둘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수행이 부족한 탓임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번뇌를 끊으려 하기보다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며 지식으로 이해하고 이론으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현실에 안주 해 온 자신의 나약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행의 방법을 몰라서도 아니고 수행의 필요성을 무시해서도 아니지만 늘 마음을 다잡고 정진하기보다는 닥쳐 온 상황을 모면하데 열중했던 지난 날을 깊이 참회 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생활 현장에서 늘 수행의 자세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늘 밝고 곧은 것을 생각하고 한시도 악에 물들지 않고 연꽃처럼 드높은 기상으로 정진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 합니다.

“배우며 살겠습니다”

선재는 향을 사르고 생각해 봅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배웠고 얼마나 알았으며 또 무엇을 더 배워야 할까?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배운 것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은 것도 떠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재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생각해 봅니다. 배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경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어록을 통해 조사들이 말하는 ‘진면목’을 배운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차츰 머리가 맑아져 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살아 있는 매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자신이 먼저 깨어 있어 무엇이든 배우고 그 배움으로 지혜로 승화시켜 자비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이루며 살겠습니다”

선재는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생각에 잠깁니다. 살아오는 동안 내가 원하는 것은 얼마나 이루어 졌는가? 이루어 진 것보다는 이루지 못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부족한 이유도 있고 터무니없이 큰 것을 바랐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재는 스스로 세운 목표를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매진하지 못한 적이 훨씬 많음을 돌이켜 반성합니다. 그리고 이루는 삶을 위해 자신에게 알맞은 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바치는 삶을 다짐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에게 송곳 같이 엄한 삶을 다짐합니다. 선재는 큰 것을 이루기 위해 남을 해치는 것보다는 작은 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던지는 자세를 더 귀하게 여기겠다고 자신과 약속합니다.

새해 새아침 선재는 기쁩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 살피고 살아갈 시간들에 네 가지 큰 발원을 새겨 넣으며 선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충만하게 차오르는 희열을 느낍니다. 네 가지 큰 발원은 자신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중중무진한 인드라망 속 하나의 구슬임을. 그리고 선재는 굳게 믿습니다. 자신이 세운 네 가지 큰 발원이 빛을 발하여 온 세상을 환하게 밝혀 줄 것을.

임연태 기자

● 2008년 신년특집 48면 발행

A 2008 년 새아침 선재의 발원
사홍서원의 삶 ..... 2~5면
연천 원심원사의 새해 첫 새벽예불 7면
각 종단 대표 신년법어 ..... 8~9면
쥐의 해, 쥐와 불교 11면

B 수행으로 잘 살기
내 안에 불심 있다 ..... 1~2면
새아침에 만난 선지식 월운 스님 ..... 8~9면
제12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발표 11면

C 지금 읽는 불서 한 권, 성불의 씨앗
불교전문서점 어디 있나요? ..... 1~3면
좌담, ‘불서읽기 활성화 방안은?’ ..... 4~5면
불서읽기 ‘현장’ 이야기 6면
2008 히트 예감 상품 8면
권기종 교수의 ‘나의 삶 나의 불교’ 11면
새연재 ‘중국불교의 거사들(1)’ 12면

● 새로운 현대불교를 만나세요

중국불교의 거사들
〈660호부터 시작〉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김진무 박사가 쓰는 거사열전.

허허당 스님의 ‘세상만사’
〈661호부터 1면〉 허허당 스님의 그림과 촌철살인의 게송이 깨달음의 비수가 되어 날아갑니다.

우리 학회소식 게재
〈661호부터 12면〉불교관련 학회들의 활동상과 비전 등을 소개합니다.

부산·경남 뉴스 한 면에
〈662호부터 5면〉 부산경남 지역 뉴스를 한 면에 집중 편집해 보다 알차게 보도 합니다.

함께 가요 ‘강의실’로
〈662호부터 23면〉 특강, 명강의 현장을 동국대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가연 숙씨가 생생하게 중계합니다.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가사 · 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선 변호사)

謹賀新年
수행과 전법으로
정진하는 조계종
종정 도림 법전
원로회의의장 종 산 총무원장 지 관
중앙종회의장 자 승 교육원장 청 화
호 계 원 장 법 등 포교원장 혜 총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衆生無邊誓願度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내 이웃의 언 손 따뜻이 잡아 주겠습니다"

이천 승가원자비복지타운을 가다

선재는 어느 날 갑자기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홍서원의 첫 머리는 왜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衆生無邊誓願度)'로 시작되는 걸까요. 일체 중생은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구제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는 것을요. 그들을 다 구제하고 나서야 선재가 영원한 보리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니 조급해집니다. 어리석은 선재는 묻습니다. 중생이 모두 구제될 때까지 '나'라는 존재는 잠시 잊어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선재는 이 답을 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이천 승가원자비복지타운(원장 묘전, 이하 자비복지타운)을 찾았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기 위해 수많은 보살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을 찾으면 선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승가자비복지타운 원장 묘전 스님은 장애인 가족들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자비복지타운 구성원들은 그렇게 가족들과 더불어 갈아감으로써 '베풂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

이 시설에는 현재 장애인 181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 '복지마을'에는 중증장애인 51명, '자비마을'에는 경증 및 정신지체 장애인 130명이 살고 있지요.

선재는 들어서면서부터 놀랍니다. 장애인들의 얼굴이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인 선재가 들어서도 경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접촉을 좋아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감화됐는지 선재도 마주쳐 오는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봅니다. 포근합니다. "우리 가족들 원래 이래요.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얼마나 순수한지…."

멀리 진주에서 올라온 박찬우 복지사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해맑게 웃습니다. 아, 장애인 가족들이 그렇게 얼굴이 밝은 이유를 알고는 무릎을 칩니다. 복지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 돼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경기도 이천에서도 교통이 별로 좋지 않은 곳에 자리 잡은 탓에 자비복지타운 직원들은 2일 근무, 2일 휴무 체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4일 이상은 꼼짝 없이 옴짝달싹 못하는 산골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시설에 온지 이제 7개월 됐다는 신현정 복지사는 쳐 보기에도 앳돼 보입니다. 하지만 신 복지사는 나이가 자신보다 배나 많은 가족들에게까지 '엄마' 역할을 해냅니다. 응석이 심한 가족의 등을 두드릴 줄 알고 침을 흘리는 가족들을 봐도 그저 닦아줄 뿐 개의치 않습니다. 신 복지사는 자비복지타운이 자신에게 더 없이 좋은 곳이라 합니다.

"여기가 극락이라 생각해요. 우리 가족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지니까요."

원장 묘전 스님이 공양을 마치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날 스님은 몸이 좋지 않은 와중에도 가족들을 볼 때마다 손을 잡고 한마디씩 건넵니다. 밥은 먹었느냐, 음식 가리지 마라, 절대 배 곯고 다니지 마라…. 스님의 말은 그대로 가족들의 미소로 돌아옵니다.

자비복지타운은 예전 이름인 '소쩍새마을'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도 치악산 국립공원 내에서 구멍뚫린 무허가 비닐천막으로 집을 삼고 생활했던 장애인들의 사연은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됐지요. 소쩍새마을이 자비복지타운이 되기까지 스님이 고생한 것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부지 확보서부터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며 막아서는 지역주민 설득까지 스님이 도맡았습니다. 그때 스님은 설성면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과 10년 넘게 같이 지냈어요. 만약 이 사람들이 정말로 위험하다면 제가 먼저 도망쳤을 거에요."

겨우 주민들의 마음을 돌려 어렵사리 시작된 공사는 2006년 9월 준공, 소쩍새마을 장애인들이 이사올 수 있게 됐습니다.

자비복지타운 직원들은 그런 스님에 한없는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정 복지사는 "스님께서 모두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다 보니 다른 복지사들도 자연스레 따라하게 된다"고 귀띔해줍니다.

선재는 자리를 옮겨 중증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자비마을로 가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생활하는 영희 할머니(62 · 가명)가 보입니다. 할머니는 신장에 고무관을 꽂아 소변을 해결합니다. 할머니도 답답하겠지만 보는 사람도 안쓰럽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도 할머니는 선재가 다가가자 환한 웃음으로 맞아줍니다. 김미선 대리가 선재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무조건 베풀기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 땐 이렇게 가족들에게서 희망을 얻습니다."

바깥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복지사들에게 일거리를 떠안겨 주는, 와병중인 장애인인지 모르지만 이곳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 복지사들의 마음에 희망을 주는 셈입니다. 복지사들만 이들에게 '베푸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들은 서로에게 마음을 베풀고 있는 모양입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분당 어머니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선재가 만난 분당 어머니회는 매달 1회씩 이곳을 찾아옵니다. 소쩍새마을 시절부터 4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분당 어머니회는 올 때마다 간식과 함께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짜오기 때문에 기다리는 팬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회장 김윤남(47)씨는 자원봉사를 다니다. 현재 사회복지 공부까지 하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아유, 여기 가족들하고 정이 많이 들었어요. 다 우리 이웃인데 구분할게 뭐 있나요. 우리가 배워가는게 또 얼마나 많은데요."

분당 어머니회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문득 한 가지 생각이 강하게 스쳐갑니다. 이들은 모두 스스로를 '가족'이라 부르는데 망설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워 그저 흘려들었지만 정말로 이들은 서로를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김세미 복지사의 말에서 다시 한 번 느껴볼 수 있습니다. 가끔 가족 중 한 명이 없어져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힐 때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상, 궁금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가족을 잃어버린 복지사들은 애가 탑니다.

"가족이 없어지면 찾는게 당연하잖아요. 우리 가족들은 그냥 호기심이 많은 것 뿐인데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요. 어디서 또 맘 상할 이야길 듣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요."

선재는 문득 이렇게 다양한 가족들이 있다는 것에 부러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가족이 서로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겠지요. 가족들끼리 늘 사이좋게 지낼 수도 없지요. 하지만 그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살아가는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 "내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시간을 소중히 하는 것이 곧 중생을 건지는 길"

가족이 많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도 181명 장애인 가족, 50여명의 직원 가족들이 살아가기에 이 세상은 참 빠듯합니다. 요즘은 경제가 어려워선지 후원금도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 기름보일러를 가동하다 보니 한 달 난방비가 1500만원이 넘었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움직임이 거의 없어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맞춰야 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묘전 스님은 요즘 고민입니다. 시설은 번듯해졌는데 이제는 쌀 걱정, 생필품 걱정에, 기름값 걱정까지 잠이 안 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스님은 요즘 체면, 계급장 다 떼어 놓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가족들을 이끌고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리석은 선재는 차마 그들에게 중생을 왜 건지려 하느냐는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중생을 건지려고 함이 아니라 그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마음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위함이 없이 위하라, 다함없이 다하라"고 하셨는데 선재는 그 의미를 이제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아저씨, 칭찬 받으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언니…. 모두 솔직하게 감정 표현을 할 줄 아는, 막힘 없는 우리 이웃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있음으로 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베풂'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를 다시 되뇌어봅니다. 이는 수많은 '나'가 만들어 낸 인연의 끈 속에서 함께 이뤄질 때 의미있다는 것을, 어리석은 선재는 자비복지타운 가족들을 보면서야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선재는 다시 발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내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시간을 소중히 하는 것이야말로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의 시작점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김강진 기자



깨어있는 삶, 나누는 기쁨

"불기 2552년 戊子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奉恩寺
개산 1214주년
선종수사찰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TEL 02)3218-4800
홈페이지 : http://www.bongeunsa.org

“의심의 그물 끊고 신심을 다지겠습니다”

남해 보리암 정진 현장을 가다

12월 21일, 남해 보리암은 짙은 안개와 겨울비로 신비한 자태를 꽁꽁 숨기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새벽부터 피어난 안개는 지리산 품안으로 들어가서 가랑비로 변신하더니, 남해에서는 더욱 굵은 빗줄기로 변했습니다. 오후 4시, 비를 맞으며 금산의 산길을 올라가니 금새 어둠이 깔립니다. 안개와 비 사이로 멀리 산 아래의 등불만 비치는 산길을 오르면서 선재동자의 구도심을 떠올렸습니다. 그 머나먼 험난한 길을 잠시도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한마음으로 53선지식을 찾아 나선 선재동자의 구도심에 비한다면 너무나 나약한 나그네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안개와 비, 어둠에 흔들리는 미약한 구도심으로 보리암의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려는 마음 자체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남해 보리암에서 기도하는 불자들

그러나 가락국 김수로왕의 부인 허황옥 왕후의 오빠인 장유 선사가 일곱 왕자와 함께 수도하고, 원효 스님이 초막을 짓고 수행했다는 보리암을 뒤늦게나마 참배한 것은 그동안의 구도행에 대한 참회와 재발심, 서원을 새롭게 한 계기가 되었음에 분명합니다. 108배와 관음정근으로 보리암 참배를 마치고 금산을 내려가는 동안에도 선재동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화엄경>의 한 구절이 내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신심은 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 모든 선한 법을 길러내며 의심의 그물 끊고 애정 벗어나 열반의 위없는 도(道) 열어보이도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믿음’에 대해 설하실 때 발바닥으로 광명을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수행의 길을 떠날 때 먼저 발바닥이 땅에 닿음을 상징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신심(信心)이 불과(佛果)에 이르는 수행의 바탕임을 보이셨건만, 선재는 작은 신심으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반신반의하며 수행을 게을리하였음을 참회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믿음은 수행의 출발점인 동시에 도달점이라고도 하셨고, 신심이 깊어져서 원만하게 되면 곧 열반을 얻고 부처가 되며, 부처로 나투게 된다(信滿成佛)고 하셨음을 다시 한 번 상기했습니다.

선재동자는 부처님 법을 설하는 문수보살을 믿고 부처님 세계를 믿었기에 문수보살의 가르침대로 당당히 구법의 길을 떠났습니다. 가끔씩 선지식의 방편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계에 부딪혀도 문수보살과 선지식을 굳게 믿었기에 구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생을 바쳐온 기나긴 구도여정의 막바지에서 또 다시 맨 처음 떠나온 자리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져도 낙담하거나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믿음의 뿌리(信根)’가 그만큼 깊어서 한결같았기 때문입니다. 선재동자가 다시 문수보살을 찾았을 때, 문수보살이 선재의 신심을 칭찬하면서 지혜와 신통을 얻게 하고 보현행의 도량에 들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선재동자는 보현보살의 행원을 믿어서 보현보살과 평등하게 되고, 해탈과 자재함이 부처님과도 평등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선재동자처럼 신심을 내는 이들은 누구나 부처님의 공덕을 얻게 되니 의심을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썩지 않는 공덕의 종자이니 보리수를 생장케 하며 수승한 지혜 증장케 하고 온갖 부처 시현하도다”하신 <화엄경>의 가르침을 깊이 믿고 받아지녀 불퇴전(不退轉)의 에너지로 삼겠습니다.

선재는 불 · 법 · 승 삼보(三寶)에 대한 대신심이 수행과 삶의 생명력임을 믿습니다. 이제 선재는 삶의 생명력을 구도의 원력으로 승화시켜 ‘부처님의 열 가지 발원(如來十大發願)’대로 정진하며 살겠습니다.

선재는 지옥, 아귀, 축생의 삼악도를 영원히 떠나서 사람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생각 일으켜 지은 성냄의 지옥도, 한 생각 일으켜 지은 탐욕의 아귀도, 한 생각 일으켜 지은 어리석음의 축생도를 영원히 떠나서 ‘부처 아들(佛子)’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재는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의 삼독을 하루빨리 끊겠습니다. 특히 탐욕 가운데 윤회의 근원이 되는 갈애(渴愛), 그 갈애의 핵심인 음욕을 반드시 극복하겠습니다. 탐 · 진 · 치 삼독이 모두 자성에서 일어난 헛된 망상임을 깨달아 번뇌가 보리와 둘이 아님을 알되, 말 그대로 번뇌 · 망상에 물들지 않고 살겠습니다. “진여자성(眞如自性)은 이 참부처요, 사견삼독(邪見三毒)은 이 마왕이니, 올바른 소견으로 삼독심을 없애면 마왕이 변하여 부처된 것이로다” 하신 육조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선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며 살더라도 항상 부처님과 그 가르침, 불교공동체 등 삼보(三寶)에 대해 듣기를 원합니다. 부처님의 전생과 일대기를 본받아 완전한 인격체가 될 것이며, 부처님의 가르침 배우기를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겠으며, 불교공동체의 불사에 관심을 기울여 포교사업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울러 불 · 법 · 승 자성삼보(自性三寶)에 귀의하겠습니다. “불(佛)이란 깨달음이고, 법(法)이란 마음이 올바름이며, 승(僧)이란 마음이 청정함이다” 하신 육조 스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겠습니다. 마음이 깨달음에 귀의하여 그릇되고 어둡지 않고 욕심을 줄여 만족함으로써 재물과 색(色)을 떠나겠습니다. 마음이 올바름에 귀의하여 그릇된 소견을 내지 않아서 남과 나를 따지는 일도, 탐욕과 애욕에 빠지는 일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정함에 귀의하여 온갖 지저분한 것과 애욕에 물들지 않도록 하여, 스스로의 자성에 귀의하겠습니다.

선재는 항상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을 열심히 닦기를 원합니다. 몸과 말과 생각으로 범하는 나쁜 짓을 방지하고 덕행을 실천하는 계학(戒學), 선정(禪定)을 닦아 마음의 흔들림을 그쳐 고요하고 평안한 경지에 이르는 정학(定學), 번뇌 없이 평정된 마음에서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는 혜학(慧學)을 남김없이 닦겠습니다. 아울러 “마음자리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성계(自性戒)이고, 마음자리에 산란함이 없는 것이 자성정(自性定)이며, 마음자리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혜(自性慧)라” 하신 육조 스님의 가르침대로 늘 회광반조(廻光返照)하며 자성의 삼학을 닦겠습니다.

> “탐욕과 성냄을 끊고 애욕에 물들지 않고 스스로의 자성에 귀의하겠습니다”

선재는 항상 모든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보고 듣고 감각하고 아는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이 부처님임을 알아서 언제 어디서나 열린 마음으로 배우겠습니다. 책에서, TV에서, 길거리에서, 일속에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곳곳에서 만나는 잘 나고 못난 사람 모두를 부처님으로 보고 하나하나 배우겠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당신들은 부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던 상불경보살(常不輕菩薩)님처럼 모든 이를 부처님으로 대하고 존경하겠습니다.

언제든 선재는 보리심(菩提心)에서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리심은 깨달음의 마음이자 깨달음을 향한, 그리고 이미 깨달은 마음”임을 믿습니다. 일체 중생을 위해 성불하기를 열망하는 대승불교도의 초발심(初發心)인 보리심을 발하는 순간, 그리고 보살행을 완성하기 위해 서원을 세우는 순간, 선재는 이미 보살임을 확신합니다. 보리심이 첫 깨달음의 마음을 뜻할 뿐 아니라, 십지(十地)에서의 깨달은 마음을 의미한다고 믿기에, 보리심은 영원히 선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선재는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나 아미타불을 친견하기를 원합니다. 한량없는 무한한 생명인 아미타불을 친견하여 최후의 깨달음을 증득하기 위해 스스로의 본래 자성은 이미 한량없는 무한한 생명임을 믿습니다. “유심불토(唯心佛土)는 마음을 깨달아야 비로소 날 수 있는 곳이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따로 있는 바가 없고 오직 자심(自心)에 의지한다. 이 마음을 알면 바야흐로 유심정토에 나지만, 경계에 집착하면 반연을 따라 경계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고 한 영명연수 선사의 가르침대로 ‘내 성품이 아미타불이요, 내 마음이 정토(自性彌陀 唯心淨土)’임을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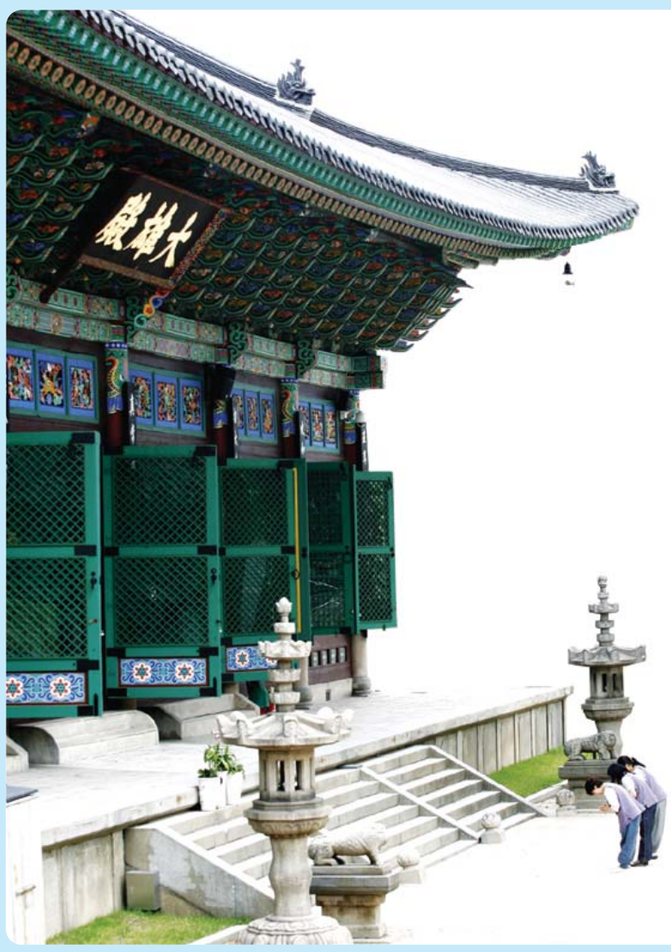
선재가 크게 깨달은 후, 선재의 몸이 먼지처럼 많고 많은 곳에 두루 나투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느 곳이든 고통 받는 중생이 있는 곳이라면 천백억 화신으로 나투어 그들을 구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마침내 선재는 모든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여 모두 함께 성불하기를 원합니다. 부처님의 ‘자각각타 각행원만(自覺覺他 覺行圓滿)’하신 가르침 그대로, 스스로 깨닫고 타인도 깨달음으로 인도하며, 깨달음의 실천을 원만히 성취하도록 전심전력하겠습니다.

삼세의 모든 불 · 보살님과 조사스님, 대덕, 선지식께서 저의 발원이 마침내 이뤄지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석가모니불.

남해 보리암=김성우 객원기자

煩惱無盡誓願斷
“번뇌를 다 끊으리다”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법구경」

365일 24시간 열린 신행공간 조계사

신도님들의 가정에 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무자년 한해도 사부대중과 함께
화합정진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주지 **원 학** 합장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Tel. 02.732.2183~4 Fax. 02.720.1391 http://www.jogyesa.org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서울 | 만남 | 미래

法門無量誓願學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진리의 가르침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백일법문' 대중강좌 현장을 가다

선재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24일 저녁 서울 인사동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에서 열린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 대중강좌에 다녀왔습니다. 2007년 12월 3일부터 2008년 2월 18일까지 열리는 강좌입니다. 불교인재개발원 교육관을 찾아 걸었습니다. 겨울밤 차가운 공기는 선재에게 입김을 호~ 불며 종종 걸음을 걷게 합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날이라 거리에 사람은 사람대로 차는 차대로 빽빽합니다. 한껏 부푼 마음으로 거리를 지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니 선재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 다들 들떠있는 날인데 오늘 강좌가 쉬는 것은 아닐까? 강좌가 있더라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저런 망상에 시간은 흐르고 불교인재개발원 교육관에 도착했습니다.



2007년 12월 24일 불교인재개발원 교육관에서 열린 백일법문 대중강좌.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 열기가 뜨겁다.

도착시간은 오후 6시 30분. "오늘 강좌 열리나요?"라고 묻는 선재에게 황금빛 프로그램 매니저(24세·불교인재개발원)는 밝게 웃으며 "당연하지요"라고 대답합니다. 차가운 밤거리를 걸으며 잠시 꾀가 났던 선재는 살짝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교육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선재는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시작인 강좌인데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와있습니다. 협소한 공간임에도 강좌를 듣는 분들이 모두 40명으로 알고 있는데 얼핏 세어보니 30명은 족히 넘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날, 다른 사람들은 놀기 바쁜데 어떤 분들이기에 이렇게들 열심이실까?" 자리에 앉아계신 한 분 한 분 바라보니 다들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평범한 분들입니다. 선재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물끄러미 교육관 한켠의 성철스님 백일법문 현수막을 쳐다봅니다.

성철 스님은 8년 장좌불와, 10년 묵언으로 납자들의 귀감이 되셨던, 우리 곁에 왔던 부처입니다. '가야산 호랑이'라 불렸던 스님은 공부를 제대로 않는 납자들을 시쳇말로 박살을 내셨다지요.

법전 스님(조계종 종정)이 풋내기 수좌 시절 당신이 깨달은 줄 잘못알고 인가 받으러 성철 스님을 찾아갔답니다. 성철 스님과 몇 마디나 건넸을까? 법전 스님은 마당에 내동댕이쳐졌습니다. 곁에 있던 한 수좌는 양철통으로 물벼락을 맞았고, 그 옆 스님은 사정없이 뺨을 맞았습니다. 또 다른 스님은 머리에 향로를 뒤집어써 재 범벅이 됐습니다. 그러고 성철 스님은 바람처럼 나가버렸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공부를 열심히 안한다는 것이었고요. 하지만 그리 엄하셨던 성철 스님도 오늘 교육관에 모인 분들을 보면 환하게 미소 지으실 것 같습니다.

백일법문(百日法門)은 중도를 핵심으로 근본불교부터 중관 · 유식 등 사상, 그리고 중국·한국 선종사상과 오늘날 선문이 나아갈 길까지 두루 언급돼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 1967년 해인사 방장으로 주석할 때 그 해 여름 안거 동안 하루 2~3시간씩 거의 100일 동안 사부대중을 위해 법문한 내용을 모은 이유로 백일법문이라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윽고 일묵 스님(해인사 백련암)의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목탁소리가 울리고 다들 정중하게 스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강좌는 근본불교에서 연기와 중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중도를 따르는 수행이 팔정도 가운데 정념(正念)이고 이것은 바로 바로챙김(sati)입니다. 무명은 사성제에 대한 무지로 이는 곧 연기에 대한 무지를 뜻합니다. 연기를 정확히 모르면 영원히 무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성제의 내용은 바로 연기를 설명한 것입니다."

강좌를 듣는 분들의 자세가 사뭇 진지합니다. 조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잡담하거나 딴청부리는 사람도 하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강좌 중 늦게 도착한 분들이 한분씩 살며시 들어오더니 이내 빼곡하게 자리가 다 찼습니다. 다들 숨이 가쁘게 들어오는 것을 보면 강좌에 늦을까싶은 안타까운 마음만큼 몸도 바삐 온 듯합니다.

강좌가 끝나자 중간에 들어온 중년의 한 신사분이 "차도 사람도 너무 많아 늦었다"며 강좌의 처음부분을 놓친 것을 아쉬워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선재가 가서 여쭈니 그 분은 구로동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서의석 거사(49세·서울 구로동)였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바쁜데 주말도 아니고 평일 저녁 짬을 내 멀리 찾아와 강좌를 듣는 이유를 묻자,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 번뇌가 사라져 마음이 편하고 행복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분은 어떨까 싶었습니다. 마침 일묵 스님에게 차 공양을 올리려 했는데 아들 차에 두고 내려 안타까웠다는 아주머니가 있어 물었습니다. 박명희 보살(53세, 서울 양재동)은 "행복하고 싶고, 자유롭고 싶어 불교를 배운다"고 명쾌하게 말해줬습니다.

<범망경> 보살계본은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의 종자를 갖추고 있음에 마땅히 그것을 바로 알라며 주신 가르침입니다.

"사람 몸을 한번 잃으면 일만 겁 지나도 다시 받기 어렵다. 젊은 시절이 멈추지 않음은 마치 달리는 말과 같아 금새 사라진다. 사람 목숨이 무상함은 산위에서 내리붓는 폭포수보다 빠르다. 오늘은 살았다하나 내일은 기약할 수 없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고달프게 지내 뒤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대중은 각자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계에 의지해 법답게 수행하고 마땅히 배워야 한다"며 대승보살이 수지해야할 계를 설하셨습니다. 10종과 48종으로 나눠 자기 성품의 본래 자리를 찾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를 설한 그 내용에 바로 '배우는 사람의 자세'가 있습니다.

▲스승과 벗을 항상 공경하라.(보살경계 1) ▲스승을 만나면 정성껏 예를 갖추고, 간절히 가르침을 청하라.(보살경계 6) ▲언제 어디서든 진리의 법을 설하는 곳이 있거든 듣고 배워라.(보살경계 7)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배움을 청하라.(보살경계 22)▲이익을 탐해 배우지 말고 중생을 위해 대승사상을 배워라.(보살경계 24)

선재는 피어나는 환희심에 한없이 기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범망경>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살입니다. 평일 일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먼 길 마다않고 찾아온 분들, 허기를 면하기 위해 준비한 음식을 법우와 나누던 정겨운 모습. 강좌 전 일묵 스님에게 예를 올리던 그 분들의 경건함. 강좌 중 한 글자, 한 마디라도 더 배우려는 열의 가득찬 눈망울. 정성스레 차 공양을 준비했으나 올리지 못한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던 아름다운 마음까지.

> "부단한 배움이 불망념지로 이어져 '무량원겁즉일념' 한 이치를 체득하길"

하지만 이분들과 달리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분 중에는 아무리 법문을 듣고 경전을 보아도 진전이 없음을 한탄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미 늙어 배우기에는 늦었다거나, 업장이 두터워 부처님 법문을 기억 못하는 것이라 원망도 합니다. 하지만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법을 착실히 배워 깨달았다면 깨달은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사실건가요? 밥 먹고 일하고 잠자고,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때문에 잊고 또 잊어도 죽을 때까지 열심히 배우면 됩니다. 어렵게 배운 부처님 법문을 잊어 그 공덕이 없다 생각한다면 두텁다는 업장도 착각으로 본래 없는 것입니다. 공덕이 없는데 하물며 업장인들 있을까요?

과거 선재는 문수보살을 따라 110개의 성을 지나 53선지식을 참례했었습니다. 수백년이 걸렸습니다. 선지식 한 분을 찾아가는데 12년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찾아가서는 불과 몇 시간 법문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미륵보살이 손가락 튕기는 사이 수백년 걸려 여러 선지식으로부터 얻은 가르침을 한순간에 잊어버리기도 했었지요. 다시 문수보살을 찾아가라는 미륵보살의 가르침에 조금의 억울함이나 의심도 없이 문수보살을 찾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운 것은 모두 잊고 오로지 믿음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문수보살이 멀리서 오른손을 펴 선재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가르침을 줬습니다. 결국 오롯한 믿음 하나로 선재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중생이 부처이고 부처가 중생이듯 선재 역시 부처이길 발원합니다. 부단한 배움이 불망념지(不忘念智)로 이어져 '무량원겁즉일념(無量遠劫卽一念)'한 이치를 체득하길 일심으로 합장 발원합니다. 조동섭 기자



佛道無上誓願成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신심 굳게 지키며 묵묵히 실천하겠습니다"

얼마 전 선재는 지난 해 초 캄보디아에서 생을 회향하겠다며 떠났던 김용연 박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용연 박사는 KT&G중앙연구원 생물자원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다가 퇴임 후 부인 송계연씨와 함께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 BWC(Beautiful World of Cambodia) 고아원 및 교육 시설 사업에 헌신하고자 떠났던 분입니다. 그 분은 시설관리를 중심으로 텃밭을 가꾸며 농작물 재배기법을 직원들에게 일부 전수하고 아이들에게 농작물을 돌보게 하며 자연을 가르쳤습니다. 부인 송계연씨는 아이들 식생활 문제를 책임졌습니다. 김용연 박사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가피로 잘 살고 있지만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인의 당뇨가 심해져 잠시 귀국해있지만 건강을 회복해 다시 나갈 것을 발원하는 분들입니다.

그 때에서야 자리이타행을 해내가는 보살님이 바로 저분들이구나 느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너무도 많은 분들이 자신을 내어주며 자신의 원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부처님의 일이요, 수행의 일환입니다. 이 땅에서 한국불교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고 통단하는 이도 많지만, 그런 소소한 시비들은 귓전으로 흘린 채 묵묵히 자신의 원을 실천해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세운 원을 이루고자 일심으로 노력하는 그 분들이 선재에게는 부처님이요, 보살님입니다.

의술로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선재마을의료회 김주현 前 회장은 몸의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해 병의 근원을 없애겠다는 발원을 하는 분입니다. "모든 질병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결국 마음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마음과학원에서 수행을 통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해 마음으로써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김 前 회장의 발원에 그저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 분의 발원이 이루어지는 그 날 바로 부처님께서 열어 보이신 극락정토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까, 지금 이미 한 걸음 다가서 있는 것이 아닐까 선재는 가슴이 뿌듯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 분의 모습은 부처님이 내린 수기와도 같은 비전을 불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노라고. 돈과 불교 사이에서 스스로 해법을 찾기까지 20년이 걸렸다고 고백하는 우승택 삼성증권자산클리닉센터장에 대한 말입니다. 우승택씨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세속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교법과 수행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탱해준 든든한 기둥이었다는 그의 말에서 보다 많은 이들이 자신만의 기둥을 찾기를 바라는 염원이 느껴집니다. "불교가 사회적인 역할을 다하지 않는한 일명 '고수'들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항상 주장하는 우승택씨는 얼마전 유식과 투자를 접목시킨 강의로 불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심상사성(心想事成), 마음먹은 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금강경> 해설서를 펴낼 정도로 속세와 불교교리를 연결시켰던 그 분에게서 불교는 결코 이 세상사와 동떨어진 고귀한 철학이자 진부한 사상이 아님을 새삼 발견합니다. 그저 부처님이 설하신 2600년 전의 상황에 매몰돼 옛날이야기 읽듯 했던 선재가 부끄러워집니다.

지난해는 유난히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어린이청소년불자가 불교의 미래인데 기들을 키워낼 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을 뒤늦게나마 자성했기 때문이겠지요. 불교계 종단에서조차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포교현장에서 20년이 넘도록 한결같은 열정으로 일해 온 분이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포교와 관련된 일을 해 본 분이라면 누구라도 알 그 이름, 바로 최미선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사무국장입니다. 2년 전 갑작스러운 두통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뇌수술을 받았지만 다시 현장에서 어린이청소년포교에 몸을 내던진 분입니다. 어린이 법회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는 선배들이 좋아 무작정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뛰어들었다는 최미선 국장. 그 분을 바라보며 선재는 조용히 참회합니다. 그리고 발원합니다. 한국불교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많은 새싹들을 키워내는가에 있기에 그 중요성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선재가 직접 포교에 나설 수 없다면 후원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최미선 국장이 있다면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강형진 단장과 오시환 후원회장은 불교 클래식 음악을 두 어깨로 짊어지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클래식 음악의 불모지였습니다. 그곳에 불교 오케스트라를 만들겠다고 뛰어든 강형진 단장은 맑은 기운이 넘치는 분입니다. 10년만, 딱 10년만 열심히 하면 기반이 닦일 것이라고 뛰어든 오케스트라 운영은 교계의 외면 속에 혼자만의 발버둥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연주회를 앞두고 만난 오시환 후원회장과의 만남은 불교계 사상 초유의 오케스트라 후원회도 생기게 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면 가슴이 찡합니다. 단지 음악에의 사랑으로 불교계에 클래식 문화 포교를 하겠다는 발원의 열정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정열을 접할 때마다 선재는 고개를 숙입니다. 숙연해지는 기분을 감출 수 없기에 더더욱 고개가 숙여집니다.

우리나라 여성으로서 에베레스트 정상에 선 산악인 송귀화씨는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오르내리는 걸음 자체가 기도이자 정진이라고 합니다. 송귀화씨는 산과 사람도 인연이 맞아야 하기에 정복자로서의 산악인이 아니라 산에 대한 일체감으로 교류하는 산악인이고자 스스로 원력을 세운 분입니다. 그 원력 때문일까요. 59세라는 나이에 우리나라 여성 대원으로는 최고령 에베레스트 등반 기록을 세웠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이 성스럽게 생각하는 설산 행로를 따라 10시간을 정진하듯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올랐다는 그 분의 일심염원이 선재의 신심을 돌아보게 합니다. 무념무상의 경지에서 오직 관세음보살만 부를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서고자 일심으로 발원합니다.

소설가 한승원씨는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마음은 무심"이라고 말합니다. 무심에 주목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 텅 빈 하늘의 마음, 영원의 시간, 우주시원의 마음을 가지고 싶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비어있음을 갈구하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 거듭나고 싶은 마음이라고 부연합니다. 그 덕분에 한승원씨의 글 속에서 종종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85세의 고령에 소승과 대승이라는 개념의 경계를 넘어서야 부처님의 가르침, 그 근원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근본불교와 대승불교>를 펴낸 한갑진 회장(한진영상). 30여 년 전 <알기 쉬운 불교>를 펴낸 이래 10권이 넘는 책을 쓰거나 편찬해서 사찰과 신행단체에 보시하고 있습니다. 그저 불교공부 하는 이들이 불교를 쉽게 이해하고 신심을 깊게 다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말입니다. 불교공부를 하는데 나이도 상관없고, 보시를 하는데 가진 재물의 적고 많음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절절하게 느낍니다.

이런 작가들의 고뇌 속에서 좋은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선재는 팔만사천 부처님말씀을 감히 읽어보겠다는 발원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양질의 불서들을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을 비롯해, 선각자들이 보여주는 깨달음의 조각들을 읽고 선재 역시 깨달음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선재는 이 분들에게서 불교의 미래를, 한국불교의 희망을 발견하고 환희심이 넘칩니다. 주변에 이렇게 많은 보살님이 계심을 모르고 살아온 세월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새해 아침 간절히 발원하옵니다.

부처님 오늘 선재는 삶 자체가 불도를 닦는 길이며, 스스로 세운 원을 실천하며 정진하는 것이 깨달음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작은 알음알이를 잊지 않고 부처님 말씀 따르며 부처님이 보여주신 불도의 길을 치열하게 따르겠습니다. 강지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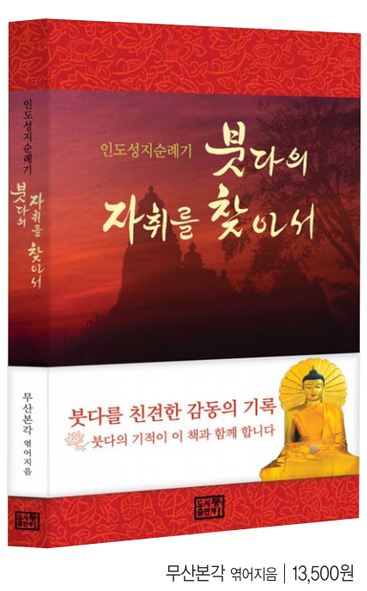


"자신의 원을 이루려 노력하는 그분들이 곧 부처님이요 바로 보살님입니다"

www.musan.co.kr (마음닦기선원 홈페이지)

붓다의 향기를 좇아 미리 가는
인도성지순례

인도성지순례기 붓다의 자취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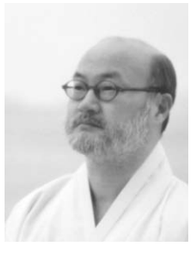


무산본각 엮어지음 | 13,500원

기원정사! 붓다께서 전 생애에 거쳐 가장 오랫동안 머무셨던 곳. 그리고 수다타 장자의 아름다운 보시로 시작된 곳. 이곳의 기운은 평화롭고 향기로웠으며, 우리 일행은 첫 순례지에 발을 딛자마자 감동에 젖어 모든 여행의 피로가 순식간에 달아나 버렸음을 모두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흔적을 남기신 땅을 밟았던 그날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행의 계획대로 전날 오후에 도착했더라면 이 안개 자욱한 기원정사는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가장 그곳을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시간대에 맞추어 도착한 것입니다.

짙은 안개를 뚫고 가는 버스는 마치 차원을 달리하여 달리는 것처럼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운전기사는 몇 미터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을 뭘 믿고 저렇게 달릴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 중에 오후가 되었고 인도국경을 어렵게 넘어 거의 종일 흔들리는 버스에 몸을 맡겨 룸비니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룸비니 동산에 앉아 잠시 좌선하고 눈을 떠보니, 해가 저물어 가고 붓다께서 탄생하신 자리에 있는 무우수 나무는 티벳 승려들이 매달아 놓은 형형색색의 깃발들의 움직임 사이로 거대한 자태를 드러내며 붉은 태양을 배경으로 우리가 오래된 길을 여행하고 있음을 말하는 듯 마치 바위처럼 서 있었습니다.



무산본각 無山本覺 이용현 李容炫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경복중·고등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주)선경 테헤란 지사장과 주駐이란 한국상사협의회장을 역임한 그는 이란-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테헤란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귀국하여 수행자가 되었다. 어느 날 새벽 '야반삼경목계성夜半三更木鷄聲' 이라는 말에 문득 공안公案을 타파하였으나, 곧 참된 경계가 아님을 깨닫고 재발심하여 호흡 공부부터 다시 수행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싸마타Samatha(止, 定)와 위 빠싸나Vipassana(觀, 慧)를 함께 닦는 정통적인 붓다의 지관쌍운止觀雙運 수행법을 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온전하게 복원하고 체계화했다. 이로써 이 시대의 수행자들은 붓다가 가르침을 편 이래 2,600여 년 만에 비로소 온전하고 참된 붓다의 수행법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그는 세속 일을 버리고 목포에 있는 무산선림無山禪林 마음닦기선원에서 인연 있는 이들과 함께 수행하며 붓다의 가르침을 전수하는 삶을 살고 있다. ≪마음닦기≫ (정신세계사, 1999)와 ≪붓다의 수행법≫ (유토피아, 2007)을 짓고, ≪공짜입니다≫ (바보새, 2004)를 엮어지었으며, ≪오직 모를 뿐≫(물병자리, 2000)과 ≪오직 할 뿐≫ (물병자리, 2001)을 옮겼다.

도서출판 통키 | Tel (02)2263-6961 Fax (02)2263-6962

謹賀新年 佛紀 2552年

2008년 戊子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韓國佛教 太古宗

宗 正 崔慧草

◎ 僧正院院長 **柳南坡**
副院長 金慧鏡 副院長 金法藏

◎ 元老會議 議長 **金一宇**
副議長 姜雪峰 副議長 權德化

◎ **總務院長 李雲山**
副院長 金越海 副院長 文普經
副院長 曺幻宇

◎ **中央宗會 議長 朴印空**

◎ **中央司正院長 金月雲**

■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112번지 TEL 02)739-3450 FAX 02)739-3470

대한불교 천태종

종 정 김도용 대종사

총무원 총무원장 주정산

총무부장 김무원 교무부장 김유정 교육부장 김세운
재무부장 김용암 사회부장 김경천
규정부장 김영제 종정사서실장 정장호

원로원
원로원장 윤덕산

종의회
종의회의장 장도정
종의회부의장 용월산
박노승

감사원
감사원장 변춘광
감사위원 이월장

참의원
참의원장 권무원
금강대학교 총장 성낙승

중앙신도회장 권영철
원각불교사상연구원장 권기종

■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번지 총본산 구인사 TEL 043)423-7100~8 FAX 043)420-7399 www.cheontae.org

근하신년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한불교진각문화전승원 건립불사의 원만추진을 서원합니다

總 印 **道 欣**
統理院長 **悔 淨**

대한불교 진각종
136-865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2동 22
전 화 : (02)913-0751~4
팩 스 : (02)913-0755
http://www.jingak.or.kr

희망찬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원력이 충만하시길 서원합니다.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원송** 합장



총지종(總指宗)은 법신대일여래 부처님을
교주로 하고 신구의 유가삼밀 진언수행으로
즉신성불에 이르게 하는 정통밀교종단입니다.
무언설법을 통하여 마음의 비밀을 깨달음으로써
오탁악세를 정화하여 무량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고
진언의 공덕을 생활에 활용하여
'불교의 생활화'를 실천하는 진언수행 종단입니다.

불교총지종
The Buddhism chongjijong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TEL 02)552-1080~3 FAX 02)552-1082 ttp://www.chongji.or.kr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종)

종 정 영산 일공
부종정 **유념 법신 천호 천호** 고 문 **신수**

• 원로원
원로원장 송산 원로위원 선명

• 승정원
승정원장 체운

• 중앙종의회
종의회의장 체의 종의회의원 선덕, 보각, 보운, 체각, 체선, 체명, 송운, 풍원, 세연, 성수, 혜광, 해송

• 중앙임원
총무원장 성관 규정원장 진허 포교원장 해송
교육원장 해안 문화원장 혜광
중앙비구니회 고문 대월 중앙비구니회 회장 선덕 중앙비구니회 부회장 체명
총무부장 진호 규정부장 대천 포교부장 보정

• 종무원장
경기종무원장 진운 부산종무원장 혜민 전라종무원장 각우
충청종무원장 체두 경남종무원장 혜명 경북종무원장 도경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2동 704-39 TEL 02)853-0531~2 / FAX 02)853-0533

무자년!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고, 특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주민들을 마음속 깊이 위로하며 부처님의 원력으로 조속한 복구가 되시길 합장 기원합니다.



대한불교관음종 사부대중 일동

연천 원심원사의 새해 첫 새벽예불







원심원사의 새해 첫 새벽예불, 왼쪽에서 두번째가 주지 세민스님, 가운데 사진은 천막법당 내부이며 오른쪽은 석대암 터 전경.

"지장성지 통일원력으로 새아침 밝았네"

#해탈의 하늘을 열다

새해 첫날의 해는 동해에서만 뜨는 게 아니다. 내륙의 깊은 산골짜기에도 불끈 주먹을 쥐듯 떠올라 어느 한 곳도 차별하지 않고 고르게 따스한 빛을 쪼여준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지옥세계에도 비치어 지장보살님의 결 고운 서원 끝이 없듯이.

새해 첫 새벽, 경기도 연천 보개산 원심원사(元深源寺) 생지장도량의 적멸보궁 위 총총 빛나는 별빛 사이로 목탁 소리가 솟아오른다. 새해의 첫 도량석이다. 잠든 만중생을 깨우는 목탁소리. 무명번뇌의 깊은 잠에서 고통 받는 일체 중생에게 해탈의 아침이 왔음을 알리는 도량석이다.

도량석 목탁은 한 곳에서 치지 않는다. 삼천대천세계를 한 걸음 한 걸음으로 디디듯 경내를 돌아다니며 친다. 극락보전에서 천막법당을 지나 복원을 위한 발굴현장과 임시 종무소를 비롯한 여러 가건물을 돌며 새해의 첫 새벽이 열리고 있음을 알린다. 골짜기의 초목과 땅속에서 겨울잠을 자는 미물들에게까지 그 소식은 전해지고 원심원사 대중들도 잠을 털고 일어나 극락보전으로 모여든다. 새해의 첫 새벽예불은 도량석에 이어 애처로운 듯 장쾌하고 간절한 듯 우렁찬 종송(鐘頌)으로 시작된다.

대중은 많지 않다. 반세기 동안 인적이 끊겼던 옛 절터를 복원하려는 원심원사. 주지 세민 스님과 4명의 대중 스님이 1400년 전 심원사(당시 이름은 興林寺)를 세운 영원(靈源)조사의 공덕을 기리며 2008년 첫 새벽예불을 모시는 극락보전은 엄숙하고 장엄하다. 새롭게 모신 아미타 삼존불과 후불탱, 공덕주를 기다리는 천불과 생지장보살님의 사진이 모셔진 각단의 불보살님은 보전을 장엄했다. 깊고 엄숙한 목소리로 불보살님들을 찬탄하는 스님들은 사뭇 엄숙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고 법계에 가득한 진리를 숭앙하고 문수 보현 관음 지장 등 4대보살을 찬탄하는 동안 촛불은 춤을 추고 영산당시 부처님께 부촉 받은 제자들의 무량한 복덕과 역대조사와 천하종사에서 일체 미진수와 온갖 선지식을 찬탄하는 동안 향은 도솔천으로 피어오른다.

#세 번의 방광과 아름다운 인연

통일 원력을 담은 도량, 원심원사의 복원불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새해 첫 새벽예불. 지난해까지 복원불사의 중요한 매듭을 다 풀었기에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위로 오르는 일만 남았다. 원심원사는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채 반세기를 닫혀 있었다. 그러나 7년 전부터 복원의 움직임이 꿈틀거렸다. 보개산 원심원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찰 토지(약 250만평)를 정부로부터 되찾았고 천불전 터를 발굴조사하며 복원의 근간을 마련했던 것이다. 2005년 7월 세민 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이후 복원 불사의 고삐는 바짝 당겨졌다.

그러나 복원불사의 첫 걸림돌은 군부대 연병장을 통과해야 절에 이를 수 는 진입로.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길 문제'는 세민스님이 사방팔방을 동분서주한 결과 해결점을 찾았다. 엉킨 실타래는 실마리를 찾는 순간부터 술술 풀리는 법. 복원불사가 불보살님의 뜻임을 암시하듯, 기이하고 아름다운 인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원심원사에서는 세 차례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로인해 전국의 불자들이 원심원사 불사의 원력이 범상치 않다고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전하고 있다. 작년 7월과 9월 그리고 10월 지장재일에 원심원사 석대암과 앞산에서 연달아 방광이 있었다. 세 번에 걸친 방광을 목격한 신도들은 1000여명이 넘는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불가사의한 광경에 환희했고 복원불사가 잘되면 통일의 길도 열릴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있다.

원심원사의 복원불사에 반가운 인연은 미얀마에서도 이어졌다. 올해 미얀마의 고승 우냐니 사라 스님으로부터 미얀마 정부가 공인하는 부처님 진신사리 3과를 기증받을 예정이다. 원심원사는 진신사리탑을 조성해 모실 계획이다.

#일체중생의 행복을 긷는 불사

무엇보다 원심원사는 올 봄 1300년 전 생지장보살상이 출현한 석대암에 지장보살상을 봉안할 계획이다. 석대암은 우리나라 지장신앙의 성지다. 현재 철원 심원사에 모셔진 지장보살상이 출현한 곳이고 수많은 지장영험설화의 무대다.

원심원사는 석대암에 높이 5m의 지장보살상을 봉안해 성지로 조성하고 전국의 불자들이 찾아와 지장보살의 가피를 입어 행복을 길어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의 천막법당 자리에 대웅전을 건립하고 종루와 범종불사도 추진한다. 이 같은 불사를 위해 원심원사는 납월 8일부터 1029일 조상천도기도를 입재했다. 매주 금요일 천도기도를 올리고 7주째 되는 날은 고승대덕을 초청해 설법을 듣는 대법회를 연다.

이렇게 21회를 하고 회향하는 것이 1029일 천도기도다. 매주 금요일 직접 기도를 주관하는 주지 세민 스님은 "원심원사의 복원불사는 민족의 통일과 지장성지의 복원이라는 큰 의미를 지닌다"며 "새해에는 조상천도의 귀한 인연과 뜻 깊은 불사에 동참하는 공덕을 함께 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천/글=임연태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별빛 사이로 솟아오른 목탁소리, 잠든 중생들을 깨우는 도량석이다. 삼천대천세계를 한걸음 한걸음 디디듯 경내를 돌아다니며 치는 도량석 목탁은 일체중생을 잠에서 깨워 극락전으로 모여 들게한다.

대원 문재현 선사 / 역저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억겁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禪 법문 !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선가귀감 서울 법회가 2월 3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 광주선원 ☎ 062-944-4088 1월 20일 선문염송
* 부산선원 ☎ 051-545-2460 1월 27일 반야심경

*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반야심경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0권
* 영원한현실
*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 바로보인 법융선사 심명
* 주머니 속의 심경



바로보인 ☎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곳곳에서 원융과 통합의 길 열릴 것"

■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무자년(戊子年) 새해 아침이 밝으니
위광(威光)이 대천세계(大千世界)로 뻗어나고
천지(天地)의 서기(瑞氣)가 집집마다 쌓이니
이르는 곳마다 감로문(甘露門)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진리의 우뢰가 일어나고
시방(十方)에 가득한 장애(障碍)가 사라집니다.
곳곳에서 원융(圓融)과 통합(統合)의 길이 열리고
범성(凡聖)은 차별(差別) 없는 일미(一味)를 이루니

범부(凡夫)는 번뇌(煩惱) 속에서 부처를 빚어내고
빈녀(貧女)는 가난 속에서 안락(安樂)의 대시문(大施門)을 엽니다.
사람마다 이와 같은 현기묘용(玄機妙用)을 갖추니
만나는 사람이 부처요 이르는 곳이 정토(淨土)입니다.

가가년년부(家家年年富)요
풍류일일신(風流日日新)이라
집집마다 보배는 해마다 늘어나고
풍류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싸우지 말고 한 마음으로 염불하라"

■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유시유비즉불가(有是有非則不可)
무시무비우불가(無是無非又不可)
시시비비야불가(是是非非也不可)
비시시비역불가(非是是非亦不可)

옳으니 그르니 싸우지도 말고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다고 피하지 말며
끝까지 옳다거나, 그르다고 고집부리지 말고
옳은 것을 그르다하고 그른 것을 옳다함도 안되나니
그 자리에서 한 마디를 일러 보거라.

한 등불이 능히 천년의 어둠을 지우고
한 지혜가 능히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애누나.
한 마음으로 염불하여 억겁의 업장이 소멸되니
제불보살 찬탄하고 육도중생 춤을 추네.

"일체중생(一切衆生) 위해 더욱 정진합시다"

■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신년사



무자년(戊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구촌 모든 생명들이 더불어 화평하고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평화와 행복은 인류가 추구하는 최고의 덕목(德目)입니다. 나아가 인류는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공동사회양식으로 공화(共和)의 전통을 창출하고 계승하여 왔습니다.
(중략)
욕망(慾望)과 경쟁이 씨줄과 날줄로 교차하는 대중사회(大衆社會)의 폭풍(暴風) 속에서도, 요익중생(饒益衆生)의 본분(本分)을 잃지 않고 수행정진(修行精進)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오래된 공화의 전통을 전승해온 화합승가의 적자답게 일체중생(一切衆生)을 위해 더욱 정진합시다. 국민여러분!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거듭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갖길"

■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신년사



무자년(戊子年) 새해에도 부처님의 가피가 온 누리에 가득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족이 건강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진실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나의 능력을 남을 위하여 베풀고, 말이 앞서기보다는 실천을 통하여 믿음을 주고, 함께 동고동락(同苦同樂)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을 하도록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섭법을 실천하고 생활화함으로써 서로 돕고 살아가는 인정 넘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중략)
우리 모두 새해에는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습관들을 깨끗이 불식하고 더욱 돈독한 신심으로 원력을 새롭게 하여 복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불국정토 건설에 더욱 정진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성불합시다.

"상대의 처지에서 자신을 살펴야"

■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신년사



광명적조변하사(光明寂照遍河沙)
범성함령공아가(凡聖含靈共我家)
일념불생전체현(一念不生全體現)
육근재동피운차(六根纔動被雲遮)

고요한 지혜의 빛이 온 누리를 비추니
범부와 성현의 차별이 사라지누나.
한 생각 분별없으면 나타나는 도리가
번뇌 속에서는 가려진다네.

무자년(戊子年) 새해를 맞아 온 누리에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은덕(恩德)은 돌에 새기고, 원한은 물 위에 쓴 글씨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합시다.
모든 생명을 차별 없이 길러주는 대지와 같은 마음으로 갈등과 불화를 잠재우고, 장엄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새 희망의 서원을 세웁시다.
(하략)

"상대자의 저 허물은 내 허물의 그림자"

■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신년사



풍요와 희망, 기회를 상징하는 무자년(戊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중략)
진언행자 여러분, 그리고 2000만 불자 여러분!
불자들이 새해 새아침을 맞이하는 자세는 '상대자의 저 허물은 내 허물의 그림자'라고 갈파하신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의 가르침을 받들어 자기의 허물을 참회하며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정신이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 새아침에 떠오른 찬란한 법신부처님 대일여래의 광명을 찬탄하며 우리 다함께 밝은 생각, 맑은 마음으로 새로운 내일을 위해 참회하고 정진합시다. 밝음이 어둠을 몰아내듯 시련과 고통 뒤에는 더 좋은 시절인연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진리를 좇아 나와 가족, 이웃, 사회, 나아가 국가와 민족, 인류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다 같이 서원하고 정진합시다.

"사람 중심되는 인간신앙 세상 펼쳐지길"

■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去歲曹溪梅似雪(거세조계매사설)
今年仙巖雪如梅(금년선암설여매)
共知人事何嘗定(공지인사하상정)
送舊迎新豈歡喜(송구영신기환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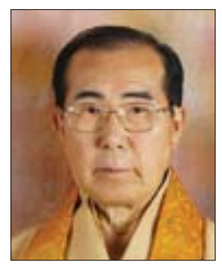
지난해는 조계골의 매화가 눈처럼 희더니
새해에는 선암뜰에 흰눈이 매화처럼 날리네.
세월이 변화하는 이치야 세상 사람들이 모를리 없거늘
묵은해 보내고 새해를 맞는 것이 무엇이 그리 기쁠소냐.

새해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묵은해를 보내면서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인간이 추구하는 화두는 행복이며, 평화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개아(個我)의 성공이라는 욕망의 울타리 안에 자기를 가두고 지나치고 어리석은 투쟁으로 스스로 어둡고 삭막한 지옥의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중략)
새해에는 호양(互讓)과 청락(淸樂)의 선비정신을 발휘하여 스스로 지옥을 허물고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람이 중심되는 조화롭고 향기넘치는 인간신앙의 세상이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야"

■ 도흔 정사

진각종 총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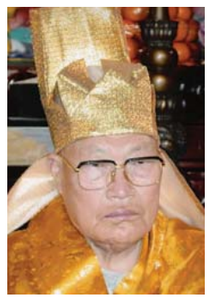


귀명삼보하옵고 본 종의 모든 스승님과 전 진언행자님, 그리고 모든 불교 종단의 고승대덕님과 고위 각계각층 불자 제현님께 삼가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무자년 새해에 각계각층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주지하신 바와 같이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되어야 하며 상호화해와 상호이해 증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현의 말씀 중에는 첫째, 상대를 곧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로 바꾸어서 이해해야 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과 성존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며 실천하여야 할 때입니다. 종교, 정치, 경제, 교육, 산업, 문화 어떠한 분야에서도 성현의 말씀이 필요치 않은 곳이 없습니다. 각계각층이 다같이 나 자신을 용서할 마음을 갖고 남을 용서하며, 남을 꾸짖고저 하는 마음을 갖고 나 자신을 꾸짖어야 한다는 말씀은 성현이 아니면 어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말씀의 본뜻은 곧 삼세제불의 마음이며 동서고금 성현님들의 마음입니다.
(중략)
모든 진언행자님과 각계각층 불자 제현님께서는 하루속히 부처님 마음과 성현(성존)의 마음으로 돌아 오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곧 모든 난제를 해결하고 평화와 복락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처님 인연일세”

■ 대한불교관음종 종정 남천죽산



덕본불고 인호연
(德本不孤 隣互連)
신심도풍 도인천
(信心道風 度人天)
흥종흥국 경심력
(興宗興國 傾心力)
덕혜만행 개불연
(德慧萬行 皆佛緣)

덕은 본래 외롭지 않아
서로 호혜하고,
믿는 마음 도의 바람 사람과 하늘을 넘나드네!
나라와 종단 마음과 힘을 기울이니,
덕과 지혜로운 만가지 행이 모두가 부처님 인연일세!
(중략)
남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알고 스스로 공을 남에게 돌려 주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가 맑고 밝아져서 아름다운 불국정토(佛國淨土)로 변모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교화운동이 절실해…”

■ 원융종 종정 일공



(전략)
오늘의 시대는 바로 오탁악세(五濁惡世)이다. 인류역사상 과학기계 문명이 최대한 발달되었으나 인간은 기계화 야수화 되고 있으니 이것이 이 시대의 혼탁이다. 오늘의 시대는 과학만능이라하여 원만한 철학이나 종교는 다 우습게 알아버린다. 곧 소견과 사상의 혼탁이다.
(중략)
이러한 오탁악세에 불교도의 교화 운동이 얼마나 절실한가. 이 시대의 인류를 어떻게 지도하고 제도할 것인가. 이에 대한 것은 그 교화제도 방법을 낱낱이 제시할 수 없으나 불교의 법사와 교직자, 정치인들은 이것을 길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세상을 바로 보는 지혜있는 사람되자”

■ 대한불교대원종 종정대행 신풍



무자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바보가 되어 성불합시다.
바보란 ‘세상을 잘못 보지 않고 바로 보는 지혜 있는 사람’의 줄인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영원함을 깨달아 무자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바보가 되어 다 같이 성불합시다.

“동체대비심이 필요해…”

■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정관



정해년을 보내고 희망의 무자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가 편견과 아만, 정쟁을 멈추고 새로운 비전으로 국민화합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처님의 동체대비심으로 서로 화합하고 양보해야만 합니다.
모두의 청정불사가 원만하기를 기원합니다.

“佛言으로행복한 삶 되자”

■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정 붕해



개화불면(開花佛眠)
묘지과장(妙智果藏)
약인지식(若人知息)
시명장부(是名丈夫)
꽃이 막 피었을 때가 부처님 얼굴
묘한 지혜가 열매 속에 감추어 있네. 만약 이 소식을 아는 사람 있으면 이 사람을 일컬어 대장부라고 부르리.

“풍요와 진실 넘치는 세상이루자”

■ 대한불교해동종 종정 혜봉



하시신년본분사(何是新年本分事)
목계일성하자홍(木鷄一聲花自紅)
어떠함이 새해에 마땅히 할 일인가.
나무닭 한소리에 꽃이 스스로 붉구나.
아집과 편견으로 얼룩진 지난 한해의 어두움을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 모두 화해와 용서로써 화목하여 풍요와 진실이 넘치는 세상을 이루어 봅시다.

“초발심이면 모든게 평화롭지!”

■ 대한불교무량종 종정대행 혜안



두두물물 처처불상(頭頭物物 處處佛像)이라 했으니.
삼라만상이 부처요 나의 스승이로다.
천지만물은 일심동체. 내가 누구인가를 자문하면서 자신은 어디로 행하여 오늘도 바쁘게 뛰고있는가.
(하략)

“바르게 업닦으면 크게 깨달으리”

■ 대한불교법화종 종정 성파



내가 맑고 티 없이 깨끗하면
중생이 또한 맑고 깨끗할 것이요.
내가 마음이 흐리면 무엇에 홀리게 될 것인 즉 중생도 마음이 흐리면 무엇에 홀리게 될 것이다.
바르게 업을 닦으면 크게 깨달으며 국운이 융창해지고 만백성이 다 같이 즐거움을 누리게 되리라.

“희망 가득한 무자년 되길”

■ 세계불교임제종 종정대행 법광



무자년 새해를 맞아 밝은 눈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중생은 부처가 아니므로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는 법입니다. 이것을 알고 깨달아 고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새겨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정화해서 나아가 인류를 선도하는 참된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곧은 마음을 가져야”

■ 대한불교전통조계종 명예종정 각암



내지심유동(乃至心流動)
시칙위세승(是則爲世僧)
분별불기승(分別不起僧)
시승견자심(是僧見自心)
마음이 흘러 움직이면 그것은 곧 파계승이고 마음에 분별이 일지 않으면 그 사문은 자심을 보아 득도하리다.

“참다운 말로 희망 얻어”

■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지명



승언수회종(承言須會宗)
물자입규구(勿自立規矩)
독목불회도(獨目不會道)
운족언지로(運足焉知路)
요컨대 참다운 말을 통해서만이 희망과 행복을 얻어야지, 말 잘하는 말끝이나 쫓아서는 아니 된다.
(하략)

“무상의 원리 깨친 불자 되길”

■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허공이 산을 품고 산이 허공을 품은 이치를 알면 새해니 헌해니 할 그 무엇도 없음을 알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도리를 알면 오늘의 이웃이 전생의 내 부모요 후일의 이웃이 오늘의 형제임을 알 것입니다. 금년에는 모든 사람이 부처님 가르침을 부지런히 배워 익혀서 무상의 원리를 깨친 눈밝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나를 건질수 있어”

■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종정 수성



이금차처(而今此處)
다제환란(茶諸患亂)
능위구호(能爲救護)
유아일인(唯我一人)
그곳 가운데 또 그곳에 이곳에 이르도록 환란이 많으니 이것을 누가 건져 줄 것인고 오직 나 한사람이 건지오리다

“모두 참회 새해길 열어 불국정토 이루라”

■ 대한불교미타종 총무원장 회암



차말법악시세(嗟末法惡時世)
중생박복난조제(衆生薄福難調制)
말법을 슬퍼하고 시세를 미워하노니
중생의 복 적어 다스리기 어렵도다
정법 삼법 지나 말법시대라 포교하고 수행하기 힘드니 우리 모두 자성 참회 새해길 열어 불국정토 이루라.

“無에서 無로”

■ 해동불교임제종 종정대행 지암



부처님의 바람을 한 번 일으킬 때 불법의 바다가 임제종에 넘쳐흐르고 부처님의 바람을 한 번 고요할 때 불법의 바다가 임제종에 넘쳐흐르고 어느 곳에서 바람이 일어나고 멸망하느냐고 묻지 마라. 단 한 번에 뛰어 곧바로 해동불교임제종에 들어가면 감격의 스님이 되느니라.

“새로운 각오로 맞이하자”

■ 대한불교총화종 종정 동광



정해년은 서서히 저물어 가고,
무자년은 서서히 밝아 오는구나,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고,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참고 하면
일체 모든 것을 새로운 각오로서 대처하고 단결하여 나아가며는 오는 앞날에 발전이 있으리라.

“목숨이 마치도록 범하지 말라”

■ 조계종삼화불교 총무원장 혜인



여러 산에서는 수미산(須彌山)이 으뜸이요 여러 흐름에서는 바다가 으뜸이다. 여러 가지 경전이 백천가지나 계율의 경전이 으뜸이라네 제일(第一)인 것 으뜸가는 성불을 구하려 하면 이 세상과 그리고 뒷세상에서 금하신 계율을 굳게지니되 목숨이 마치도록 범하지 말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 행복”

■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공



한해를 보내고 또 한해를 맞습니다.
나와 남이 서로 분수 밖에 일을 행치 아니하면 남이 나를 밉다 외면하지 아니하니, 곧 성색(聲色)의 티끌이 소멸하고, 내가 남을 밉다 외면치 아니하니, 곧 보고 듣는 것이 해탈입니다.

www.njutcm.edu.cn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조기유학생 모집
초 6 · 중 · 고 1, 2, 3학년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20명 (내신 80점 이상)	· 건강진단서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5명 (평점3.5이상)	
박 사 과 정	3년	2명	

2. 학교 소개
· 세계 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건강진단서)
· 접수마감 : 2008년 1월 29일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86322539
· 팩 스 : 25-8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학림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2006년 본과 합격자 명단

– 본과 합격자 –

▲강민정(경희대학원) ▲이거성(연세대) ▲한효정(단국대)
▲이정화(건국대) ▲서연호(한국항공대) ▲ 박병수(명지대)
▲박영문(명지대) ▲강성우(호남대) ▲이경환(배제대)
▲이종환(우석대) ▲김재문(경남대) ▲최종건(UCLA)
▲황진영(유성여고) ▲이창영(마산고) ▲ 황성환(대건고)
▲정재형(성문고) ▲박상준(구정고) ▲이상훈(성신고)
▲박민수(화수고) ▲이원영(동지고) ▲김인환(인항고)
▲박선규(반포고) ▲송미나(광주여고) ▲김민성(휘문고)
▲김준호(배문고) ▲김정우(현대고) ▲박은수(대덕고)

– 석사과정 합격자 –

▲신병룡(경희대 한의학과) ▲김병호(경희대 한의학과)
▲이종섭(경희대 한의학과) ▲송인종(북경중의대 한의학과)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원 광 대 한의대학
대 전 대 한의대학
삼화불교 대 학 림

한국 총장 손혜인

謹賀新年 佛紀 2552年

2008년 戊子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 정 **현붕해** 총무원장 **엄지공**

재단이사장 **경원**

명예이사장 붕해 장로의장 금봉 **종회의장 화엄** 호계원장 용암 총무부장 유정 서울교구 법운
상임이사 혜광 장로부의장 명종 종회부의장 경원 교육원장 원각 교육부장 법해 부산교구 법상
이사 혜운 장로위원 수암 사무처장 도안 감사원장 법성 교무부장 지언 대전교구 용주
이사 지공 원경 종회의원 덕봉 포교원장 정수 재무부장 일명 인천교구 유정
이사 도기 청송 법재 자명 사회국장 영우 울산교구 도현
이사 화엄 송은 법안 도허 대구교구 석담
이사 일명 원각 지운 혜관 선거관리위원장 해동 강원동북 보해
이사 법광 혜운 선행 삼주 강원서북 동청
이사 담화 무찰 고봉 도정 경기남부 광은
감사 혜천 남혜 덕산 호계초심위원 용주 경기북부 도혜
감사 혜원 고시위원장 청송 경담 운각 도혜 경남교구 보광
혜원 지성 동청 경북교구 해동
무상 영우 전남교구 혜성
전북교구 석성
충남교구 청표
제주교구 경운

■ 총무원 : 서울시 강북구 수유 5동 440-27 / 엄지빌딩 4층 www.llbung.org TEL 02)998-8161,2 FAX 02)998-8384

불기2552(2008)년 새해를 맞이하여
부처님의 가피가 온누리에 가득하시길 발원합니다

大韓佛教 佛入宗

宗 正 **勉哲**
元老院長 **正觀**
總務院長 **鏡岩**

사부대중일동 합장

■ 總本山 : 忠北 堤川市 鳳陽邑 玉田理 二七一의 三 松華寺 TEL 043)653-4800 FAX 043)653-5858

■ 總務院 : 忠北 堤川市 靑田洞 八六의 四 TEL 043)653-4848 FAX 043)642-6660

대한불교 무량종

"무자년 새해에는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여 국가와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은 화합으로 평화로운 나라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원로의장 **양지은** 종회의장 **김보경**

선무도도총사 **김보인**

종정대행 총무원장 **정혜안**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 ■ 총본산 지리산 칠보정사 055)883-7771, 7790, 7714 FAX 883-7796

해동불교 임제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석지암**

사서실장 **혜관**

원로원장 **석지륜** 원로위원 **법성, 법공**
종회의장 **혜륜** 선 원 장 **지언**

총무부장 **무오** 호법부장 **혜인** 사정부장 **지엄**
법사부장 **제오** 사회부장 **혜주** 교무부장 **지웅**
조직부장 **묘화** 포교부장 **공행** 외교부장 **정행**

서울북부종무원장 혜광 충남종무원장 혜용 서울중부종무원장 제현
충북종무원장 지명 경기중부종무원장 보우 경남종무원장 보덕
경기남부종무원장 지우 경북종무원장 법공 경기북부종무원장 지공
전남종무원장 보경 부산중부종무원장 법연 전북종무원장 법성
부산동부종무원장 혜일 대구종무원장 혜인

■ 해동불교 임제종 총무원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33-4 청암사 TEL 061)644-7273 FAX 061)644-7274 H·P 011-807-8428

(사)대승불교 조계종

종정대행 **월봉**

총무원장 **지홍** 교육원장 **한파** 감찰원장 **지운**
부 원 장 **혜암** 종회의장 **종욱**

총무부장 **인각** 종회의원 **지홍 혜암 월봉 한파 고봉 화산 경월 법광**
재무부장 **현불** **선산 현불 정암 법인 선우 지운 무공 인각**
교무부장 **유초** **본지 법공 혜광 연지 정혜 혜원**
감찰부장 **고봉**
규정부장 **법인**
사회부장 **혜원** 감사위원 **법인 본지**
중부종무원장 **정암** 경남종무원장 **선우** 종무국장 **본지** 제주종무원장 **법산**

■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보광정사)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64-20번지 TEL 051)527-5431~2 FAX 051)527-7733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입종안내

◇ **입종 구비서류**
· 본종 입종 신청서 (총무원, 지방종무원 비치) 요청시 우편발송
· 주민등록 등본 1부
· 승적 증빙서류 (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1부
· 여권용 사진 5매 · 사찰전경사진(내,외부)

◇ **문의 및 접수처 :**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
·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 : 총무원 (051)527-5431~2 팩스 (051)527-7733
· 경남종무원 (055)853-0479 휴대폰 011-583-0479
· 중부종무원 (043)648-8942 휴대폰 010-8849-9573
· 제주종무원 (064)724-0318~9 휴대폰 019-522-0318

韓國佛教 圓光宗

종 정 능허 대종사

총무원장 법륜

종의회의장 선진
규정원장 법성 교육원장 법민
문화원장 법원 포교원장 경산

총무부장 진공 기획부장 도현
사회부장 도각 문화부장 도성
포교국장 혜암 문화국장 혜지

종정예경실장 도연

강원도종무원장 진각 경기남부종무원장 혜안
경주종무원장 청암 전남종무원장 경진
충남종무원장 보선

■ 총무원 :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91-3번지 TEL 02)802-1740

잡귀 침범 막는 지혜의 상징

새해가 되면 올해는 무슨 띠의 해이며, 그 해의 띠동물이 지니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궁금해 한다. 또 '쥐띠는 식복이 많다', '잔나비띠는 손재주가 있다', '소띠는 부지런하다', '범띠는 용감하다' 등 그 해에 태어난 아이의 운명과 성격을 띠동물과 묶어 해석하려는 풍속도 있어 왔다. 띠로 사람의 운명까지 판단하려는 것은 '믿거나 말거나' 지만 시끄러운 세상과 불확실한 미래는 많은 사람들을 재미와 희망으로 새해에 의지하게 한다. 2008년 무자년을 맞아 그 의미 등을 살펴본다.



불교경전에 나타난 쥐의 모습

불교경전에도 쥐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한다. <전생경>에는 옷으로 점을 치던 한 바라문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자신의 새 옷을 쥐가 갉아먹은 것을 발견한 바라문은 불길한 징조라 여겨 내다버리려 했다. 그런데 마침 묘지를 지나던 부처님이 그 바라문에게 깨달음의 근기가 무르익어 있음을 알고 그를 제도하고자 그 옷을 받았다.

두려움에 질린 바라문에게 부처님이 "바라문이여! 우리는 출가한 사람이다. 우리에게는 묘지나 거리, 또는 쓰레기장에 버려진 옷들이 알맞다. 그대는 이번 삶뿐 아니라 전생에도 이 같은 그릇된 견해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바라문은 부처님에게 그 전생이야기를 청해 들었다는 내용이다. <불설비유경>에는 부처님이 승광왕을 위해 설법한 내용이 나온다.

과거 무량겁 이전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광야에서 사나운 코끼리를 만나 쫓기다가 웅덩이로 숨었다. 다행히 옆에 있는 나무뿌리를 붙들어 웅덩이에 빠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흰쥐와 검은 쥐 두 마리가 나타나더니 그가 잡고 있는 나무뿌리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또 그 웅덩이 네 귀퉁이에는 독사가 있었고, 바닥에는 독룡이 도사리고 있었다.

더군다나 들판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점차 다가와서 그 나무마저 태우고 있었다. 비유하기를 광야란 무명(無明)의 긴 밤 속에서 사는 것을 뜻하고, 코끼리는 무상(無常)을, 웅덩이는 생사(生死)를, 나무뿌리는 목숨을, 두 마리의 쥐는 낮과 밤을 뜻한다. 또한 두 마리의 쥐가 나무뿌리를 조금씩 갉아먹는 것은 염념멸(念念滅)을 의미하고, 네 마리의 독사는 4대(大), 들판의 불은 곧 늙음과 병을, 독룡은 죽음을 상징한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의 십이지신번(十二支神幡)은 도

인도 지혜의 신은 쥐를 탄 형상 묘사
벽사의 의미로 12방위에 걸어두기도

량장엄(道場裝嚴)의 하나다. 절에서 큰 행사를 할 때 잡귀의 침범을 막는 벽사(闢邪) 의미로 12방위에 걸었다. 그 중 십이지 가운데 쥐를 형상화한 도상이 있어, 사람의 신체에 안면부만 쥐의 형상으로 묘사돼 있다.

한편 코끼리의 머리를 한 인도 지혜의 신 가네샤(Ganesha)의 형상에는 때로 쥐를 타고 있거나 쥐를 거느린 작은 배불뚝이로 표현되기도 한다. 쥐는 삿된 침범을 막는 십이지와 지혜를 상징함을 알 수 있다.

무자년의 천간과 지지가 갖는 의미

무자는 갑, 을, 병, 정 등의 천간과 자, 축, 인, 묘의 지지가 합친 60간지로는 25번째이다.

2008년 무자년은 쥐의 해다. 지난해 정해년이 황금돼지의 해였다고 해서 올해가 황금쥐의 해라고도 하고, '갑자(甲子)=들쥐', '병자(丙子)=비단털쥐', '임자(壬子)=굴뚝쥐', '무자=멧밭쥐'라고 이름 붙이기도 한다.

무자년의 무(戊)와 자(子)는 무엇을 뜻할까? 역림정사 박용성 거사는 "천간 무는 토의 성질을 갖고 있어 무토라 부른다. 태산, 성곽, 산봉우리, 큰 고개길, 큰 바위에 비유된다. 넓은 광야로도 본다"고 말한다.

또 "지지 자는 수의 성질을 갖고 있어 자수라 한다. 양수(陽水)의 성질로 인간생활 필요에 따라 음료수로부터 세수, 목욕수, 상하수도, 농업용수, 강물 등 담수에 비유되고, 신자진, 해자축으로 무리를 이루면 해양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무자년을 이루는 십간십이지에 대해 설명한다. 절기로는 동짓달로 대설부터 동지를 거쳐 소한 전까지를 말한다. 시간으로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를 뜻한다. 또 쥐는 앞발과 뒷발의 발가락 수가 다른 유일한 동물이다. 이것을 4개의 앞발가락은 오늘이고, 5개의 뒷발가락은 내일을 뜻하는 것이라 보기도 한다.

자수의 방향은 정북을 말하고, 장소로는 깜깜한

戊는 흙의 성질로 태산·성곽에 비유
子는 물의 성질로 강물·해양 등 의미

곳을 뜻한다. 수도, 취사장, 해양, 포구, 강, 연못 등 물에 관계된 곳뿐 아니라 지하실, 스케이트장, 산부인과, 소아과, 원자력발전소, 소방서, 주점, 고아원 등을 의미한다. 유아, 임산부, 고아, 어부, 해녀, 의사, 성직자, 작가 등을 뜻하기도 하고, 신체에서는 생식기, 귀, 갑상선, 방광 등을 뜻한다.

왜 쥐가 십이지의 처음일까

십이지의 형성시기는 갑골문에서 찾을 수 있다. 시기상으로는 중국 하왕조다. 그러다 약 2000년전인 기원전 105년 한(漢)나라 때부터 년을 표기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했다.

십이지가 지금의 쥐, 소, 범 등에 배대된 것은 2세기경인 후한(後漢) 왕충의 논형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쥐(子), 소(丑), 범(寅), 토끼(卯), 용(辰), 뱀(巳), 말(午), 양(未), 원숭이(申), 닭(酉), 개(戌), 돼지(亥)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수많은 동물 중 왜 쥐, 소, 호랑이 등의 열 두 동물만이 선택됐을까? 또 그 순서는 어떻게 정해졌을까? 섣달 그믐날 밤 미리 출발한 소의 등에 타고 있던 쥐가 결승점에서 달려 나가 1등을 했다는 이야기 외에 다음의 이야기도 전해진다.

하루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세지보살(아미타불 우측의 지혜를 관장하는 보살)을 불러 천국으로 통하는 12개문의 수문장을 동물들 중에 선정하여 1년씩 돌아가면서 당직을 세우도록 했다. 이에 대세지보살은 열둘의 동물을 선정하고 서열을 정하기 위해 불렀다. 12동물 중 고양이는 동물들의 무술 스승이라 제일 앞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순서대로 소, 범,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를 앉혔다. 대세지보살은 12동물의 서열을 정한 후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설법을 청하러 갔다. 그때 기다리던 고양이가 갑자기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를 비웠다. 공교롭게도 이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착했다. 한 동물이 부족해 물으니 마침 고양이를 따라 구경 온 생쥐가 달려 나와 말하기를 "저는 고양이 친구인데 고양이는 수문장

소의 등 얻어타고 결승점에 1등 도착
천국의 수문장 자리 가로챈 이야기도

의 일이 힘들고 번거로워서 수문장이 싫다며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거짓말을 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쩔 수 없으니 쥐에게 고양이 대신 수문장을 맡으라고 했다.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므로 마침내 쥐를 포함한 12동물이 천국의 수문장이 되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고양이는 간교한 쥐에게 원한을 품고 영원토록 쥐를 잡으러 다니며, 이때부터 고양이와 쥐는 천적사이가 됐다고 한다.

조동섭 기자

무자년의 역사

■**1108년**: 윤관 여진족 정벌△1168년: 고려 이규보 출생. 탐라에서 농민반란 발생△1408년: 조선 태조 붕어△1468년: 조선 세조 붕어△1588년: 영국해군 스페인 무적함대 격파. 후금의 누루하치, 건주를 통일△1648년: 인조 26년, 상평청 개청. 인도의 델리 건설. 델리의 '붉은 성채' 완성△1828년 : 톨스토이, 앙리 뒤낭 출생. 유럽 30년전쟁 종결.

■**1888년**: 프레드릭 더글러스 미국 대통령 후보로 지명. 벨기에 스파에서 세계 최초의 미인대회 열림. 워싱턴 기념탑 공개. 던롭 공기를 넣은 타이어 발명 / 1888년 무자생 쥐띠 유명인 : 효봉 스님, 데일 카네기, T.S. 엘리엇, 윤백남 등 △1948년: 마하트마 간디 사망. 제주 4.3사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 미얀마 독립 / 1948년 무자생 쥐띠 유명인 : 도올 김용옥, 장 르노, 정경화, 엘 고어 등

쥐띠의 특성

쥐를 뜻하는 자(子)는 곡식이 높이 쌓인 모양을 뜻한다. 때문에 쥐띠 사람은 매우 근면하고 절약형인 경우가 많다. 남이 모르는 곳에서 노력하는 타입으로 12지 가운데 가장 인내심이 강하다. 어떤 목적을 향한 집중도도 높다.

쥐는 돌아다니기를 좋아해서 쥐띠들은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낙천적인 성격이어서 인간관계가 넓다고도 한다.

쥐는 야행성 동물이다. 춥고 어두운 때에는 사람이 예민해 지기 쉽다. 그래서 쥐띠는 눈치를 보고 조심성이 많다. 그러나 그 조심성이 지나치면 용기가 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으니 항상 씩씩하고 용기 있게 생활하도록 한다.

謹賀新年 佛紀 2552年

2008년 戊子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삼론종

종 정 **석혜공**
부종정 **석 혜 승**

승정원장 석추봉 승 정 **석혜광**

총무원장 석진봉 부 원 장 **석해불**
총무부장 **석지민** 교무부장 **석지향**
규정부장 **석지법** 사회부장 **석석진**

종회의장 석지경 부 의 장 **석해불**
사정원장 석지운
포교원장 석인봉 부 원 장 **석성덕** 포교부장 **석혜관**
교육원장 석명산 부 원 장 **석명재** 교육부장 **석지화**
수선원장 석지심 부 원 장 **석성심** 수선부장 **석지암**
문화원장 석승봉 부 원 장 **석지학** 문화부장 **석성덕**

■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169-539번지 인광빌딩 5층 TEL 02)937-0343 FAX 02)937-0344

(사)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부종정) 석정관
원로원장 석혜암

호법원장 대원 원 로 벽봉 법령
의전원장 원담 월타 무송
교육원장 구진 도원 혜암
포교원장 보광 일우 지관
연수원장 도명
총무원장 도선

◇**서울 총무원**
총무부장 일두
교육부장 도흥
사회부장 청암
연수부장 성운
기획부장 무초
비구니부장 혜담

◇**각부국장**
문화국장 보성
포교국장 도명
연수국장 지우
사서국장 성덕
포교국장 성우
비구니국장 영암

◇**각시 도 종무원 원장**
경북종무원장 태룡
영덕종무원장 지공
제주종무원장 의공
경남종무원장 청강
충남종무원장 해천
전남종무원장 법정
대구종무원장 성진
대전종무원장 법공
충북영동종무원 선학
포항종무원장 체법
수 행 국 장 보각
수 행 특 보 덕우

■ 총본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번지 대표전화 054)682-5808 팩스 682-9848
■ 총무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279-26 2층 대표전화 02)3217-4611 팩스 391-8583

한국생활불교조계종 법사승단종무원

경남법사승 종무원장 **도혜 대법사**
울산법사승 종무원장 **법광 대법사**
충남법사승 종무원장 **명보 대법사**
포항법사승 종무원장 **명성 대법사**
중앙재무부장 **자운**
중앙포교국장 **보현** 중앙총무국장 **원명**
대구포교국장 **금강** 경산포교국장 **송정**

종무원 국장 **혜명**
종무원 국장 **수혜**

◇**부산지부종무소**
지국장 **혜성**
부산지부 051)865-7975

◇**강원지부종무소**
지국장 **혜심**
강원지부 033)553-1149

◇**경기지부종무소**
지국장 **덕산**
충남지부 031)483-4995

◇**경남창녕지부종무소**
지국장 **법성**
창녕지부 055)532-7070

■ 마산사무실 : 경남 마산시 오동동 55-36(2층) 대표전화 055)224-1769
■ 울산사무실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457-1 대표전화 052)251-7748
■ 충남사무실 : 충남 서산시 팔봉면 금학 2리 1061 대표전화 031)244-3054
■ 포항사무실 : 포항시 북구 용흥동 328 용성동 201호 대표전화 054)246-4452

재단법인 대한불교 미타종

재단이사장, 종정권한대행 **권성우**

총무원장 **정회암**
총무부장 하동산
재무부장 김법제
교무부장 박명인
사회부장 주만석
문화부장 최혜원

중앙종의회
의 장 서법전

감찰원
원 장 임은주
감찰부장 한지관
조사부장 전법하

법인원
총무국장 양재언
사회국장 김보덕
문화국장 이지법
포교국장 노연화
홍보국장 박혜명
비구니부장 이 성문

교육원
원 장 남석진
교육부장 한영각

포교원
원 장 김진표
교육부장 조명각

부산시종무원장 나석진
인천시종무원장 지안덕
대전시종무원장 보광덕
경기남부종무원장 지금월
강원종무원장 허고성
충북종무원장 김유공
전북종무원장 태진산
전남종무원장 권성각
경남서부종무원장 김신진
경남동부종무원장

비구니회
회 장 강지명

벽암문도회
회 장 김대산

자비회
회 장 이혜봉
경기북부지부장 최병익
경북지부장 주한성

연합종교신문사
편집국장 장정태
기자회회장 이상훈

미타종 종도일동

■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 1동 112-39 진영빌딩 4층 TEL 02)2242-1049

사단법인 대한불교 해동종

원로원원장 **석봉대종사(청용사)** 부 원 장 **백담종사(백용사)**
위 원 **법준(월성사) 정화(용광사) 법성(화엄사) 승전(상원사) 원심(통일사)**

종 정 **혜봉 대종사(용정사)**

총무원장 **송산(대원사)** 총무부장 **덕광(봉덕사)** 교무부장 **무연(법령사)**
부 원 장 **도현(관음사)** 재무부장 **도은(연령사)** 사회부장 **수월(대원사)**
중앙종회의장 **보장(장안사)** 부 의 장 **수운(소원사)**
중앙종회의원 **청산(청산선원) 지선(천수정사) 연각(수도암) 벽파(동서양사) 혜정(광음사) 이타(학산사) 수진(지장암) 송연(보원사)**

중앙사정원장 **대원(극락사)** 중앙포교원원장 **정화(용광사)** 중앙교육원원장 **공덕(국제교화원)**
부 원 장 **옥용(벽송사)** 부 원 장 **보담(상주사)** 부 원 장 **현법(청학사)**
부 장 **진아(광명사)** 부 장 **성암(무우정사)**
중앙복지봉사원장 **무량(각원사)** 부산교구종무원장 **삼자(삼자선원)** 경남서교구종무원장 **혜광(승원사)**
부 원 장 **무봉(무법정사)** 대구교구종무원장 **대원(약불사)** 경북교구종무원장 **혜봉(지장선원)**
부 장 **지연(법화사)** 울산교구종무원장 **송암(보현사)** 전남(광주)교구종무원장 **청림(삼각사)**
경기교구종무원장 **벽송(화엄정사)** 충남교구종무원장 **무기(봉선사)**
경남동교구종무원장 **지성(약왕사)**

사단법인해동자비원원장 **덕광(봉덕사)** 국제교화원원장 **공덕** 용인소년의집원장 **무봉(무법정사)**

종 도 일 동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392-5 TEL 031)262-1577 FAX 031)263-1353

大韓佛教 三寶 曹界宗

僧 皇 **석멸공 大宗師** 僧 正 **석태화 大宗師**
宗 正 **석수성 大宗師** 원로원장 **석금산 大禪師**

◇**원로부원장 법천 大禪師** 원로위원 **효성,도문,성훈,법련,정민,흥국,정공,정안,용운**

◇**고 시 원 장 현각**

◇법 조 고 문 **김인수 변호사, 백경석 변호사(전직 판,검사)**
법 조 위 원 **주신식 법무사, 박명준 법무사(전직 법원주사)**

◇**총무원장 법장**
사무총장 **법경** 총무부장 **진묵** 기획실장 **선묵** 사서실장 **성운**
교무부장 **보장** 교육부장 **성법** 포교부장 **지공** 사회부장 **일각**
문화부장 **법고** 건설부장 **보각** 규정부장 **보현** 호계부장 **청파**
복지부장 **무해**

◇**종회의장 청법** 부 의 장 **지우** 사 무 장 **청암** 감 사 **정암**

◇교 육 원 장 **홍인** ◇중 선 원 장 **석장** ◇문 화 원 장 **정수** ◇염 불 원 장 **원명**
◇복 지 원 장 **원각** ◇복지부원장 **경보** ◇감 찰 원 장 **법도** ◇감 찰 위 원 **법담,청암,덕암,**
◇포 교 원 장 **원산** ◇건 설 원 장 **성담** ◇국 제 원 장 **남산** **해월,성안,대경,법해,무진**

◇교 구 현 황
서울교구원장 **석원영** 경기교구원장 **석마조** 광주교구원장 **김관조** 강원교구원장 **석보산**
부산교구원장 **석법호** 대구교구원장 **석각원** 경북교구원장 **석취운** 경남동서교구원장 **서암,지산**
울산교구원장 **권관정** 충남교구원장 **석형주** 충북교구원장 **정지원** 전남교구원장 **석보영** 전북교구원장 **유일도**
대전교구원장 **석태륜** 인천교구원장 **석성안** 중국교구원장 **석정록** 일본교구원장 **권수원**

■ 총무원, 종단총림 : 경남 김해시 삼정동 17-10 불보사 TEL 055)338-0089

中國臨濟宗 七塔法派 韓國佛教 臨濟禪學院

宗 丈 **慧泰 竹山**

宗務總理 **釋摩定** 理 事 長 **釋解愚**
副 總 理 **釋大虛** 副理事長 **釋解釋**

事務總長 **釋 慧 照**

中華民國 臺北 臨濟宗 光德寺 方丈 釋淨心
中國佛教 臨濟宗 本山 七塔寺 方丈 釋可祥

臨濟宗 七塔法派 國際 法子聯誼會 會長 **釋心茂**
臨濟宗 七塔法派 韓國 法子聯誼會 會長 **釋解愚**
臨濟宗 七塔法派 싱가폴 法子聯誼會 會長 **釋慧寂**
臨濟宗 七塔法派 인도네시아 法子聯誼會 會長 **釋慧行**
臨濟宗 七塔法派 홍콩 法子聯誼會 會長 **釋慧因**
臨濟宗 七塔法派 말레이시아 法子聯誼會 會長 **釋慧湧**
臨濟宗 七塔法派 인디아 法子聯誼會 會長 **釋慧生**
臨濟宗 七塔法派 자카르타 法子聯誼會 會長 **釋慧願**

※ 사찰 등록 받습니다.

■ 주소 : 서울시 중랑구 망우3동 120-7 TEL 02)496-3951~3 FAX 496-3950

謹賀新年 佛紀 2552年

2008년 戊子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법화종

종 정 성파 대종사

원 로 원
원 로 의 장 수봉 대종사
원로부의장 오봉 대종사
의 원 금파 운명 원광 은파 지우
정수 종파 보명 양운 법진 백담

중앙종회
중앙종회 의장 도정
중앙종회 부의장 보광 관효
의 원 도광 송현 복규 국봉 법원
선파 백봉 광래

총 무 원
총무원장 효웅 종정예경실장 광덕
총무부장 해암 재무부장 송현
사회부장 일광 감찰부장 효천
의전경보부장 보성 총무국장 지오
교무국장 홍선 재무국장 천호
감찰국장 승헌 의전경호국장 청인

포 교 원
포교원장 만각
포교부장 득인 포교국장 도각
교육국장 현담

각 교구 종무원장
경북교구 혜각 진주교구 원봉 충북교구 도찬 강원교구 암현 마산교구 법산
전라교구 복규 동해교구 국봉 창녕교구 법원 경주교구 서봉 김창교구 근파
충남교구 백봉 제주교구 광수 안정사

■ 총무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1가 11-73번지 TEL 02)762-2678, 764-2678 FAX 02)747-5044

세계불교 임제종

종정대행겸 총무원장 법 광

종 회 의 장 도진 고 시 원 장 호산
사 정 원 장 각명 포 교 원 장 수법
총 무 부 장 혜운 교 무 부 장 지허
재 무 부 장 태정 사 회 부 장 원광

서울교구원장 정 엽 부산교구원장 혜 성
대구교구원장 범 정 경기교구원장 창 담
충남교구원장 도 성 전남교구원장 보 운
전북교구원장 선 월 경북교구원장 도 정
경남동교구원장 법 정 경남서교구원장 지 정

■ 세계불교 임제종 총무원 : 경남 김해시 외동 699-5번지 송원사 TEL 055)338-4008 FAX 055)334-5890 H·P 011-868-2850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정 일송

장 로 원 장 용주 종 회 의 장 현공
장로부원장 지선
장로사서실장 혜명

총무원장 대현 총무부원장 해법 기획실장 양수암 총무부장 양수암
교무부장 수산 재무부장 법신 포교부장 해주 문화부장 일월
의전부장 법광 국제부장 법안 사회부장 수암 사업부장 혜명
총무부장 불현 전산국장 혜진

교육원장 본자 포교원장 청광 문화원장 무공 역경원장 수혜
수선원장 서연 법계원장 법인 의전원장 동선 국제원장 해석
비구니원장 효상 호법원장 원광 호법부장 광월 총본산주지 무일

■ 종무원

서울교구종무원장 서련 대구교구종무원장 법성 경기남교구종무원장 일도
경기북교구종무원장 진법 경남교구종무원장 석일 울산교구종무원장 지운
강원교구종무원장 월주 충남교구종무원장 종도 충북교구종무원장 지호
호남교구종무원장 학용

■ 총무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4-7번지 화남정사 TEL 031)217-2170, 2633 FAX 031)217-2634

대한불교 본원종

종정 강무구 사서실장 심 지 연
부종정 최대종 김동광

원로의장 유 법 용
원로의원 이송파 김용담 박보명
이관곤 이대봉 김대심

총 무 원 장 이대화 사 서 실 장 강정오
종 회 의 장 김대운 종회부의장 방일봉 김대월
감 찰 원 장 김대원 복 지 원 장 박대성
교 육 원 장 김대천 연 수 원 장 박김현담
의 전 원 장 이두산 문 화 원 장 김송담
포 교 원 장 정대련 부산경남종무원장 박지우
염 불 원 장 최대황 경북 종무원장 윤자광

총 무 부 장 김만혁 교 무 부 장 손혜원
교 화 부 장 정대능 포 교 부 장 한법성
규 정 부 장 강만공 재 무 부 장 정법성
사 회 부 장 허지광 전국신도회장 신대광

■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17-3 TEL 02)391-4376 FAX 02)379-2746

非營利宗教法人 대한불교 대원종

종정(총무원장) 정허당 신풍

원로원장 태화 부원장 청량범왕
원로위원 대월 지성 수인
연수원장 지성 부원장 대월
감찰원장 정혜 부원장 성덕
포교원장 혜조 부원장 무각
호법원장 도암 부원장 대광
중앙종회의장 태화 부의장 혜도 청량범왕
불교예술원원장 도연 수석부원장 도영 부원장 도이
비구니회장 대광 비구니부회장 연아 성화
사무처장 현도
대원신풍불교(승가)대학학장 신풍 부학장 정법 대광

총무원장 신풍 총무부장 태화 규정부장 법기
교육부장 정법 포교부장 법교 사회부장 연재
홍보부장 법교 기획실장 대각 재무부장 대광

중앙종회의원 정법 대광 연아 태화 혜정 법기
정보 백주 혜연 법정 혜도 일연
백경 연제 각오 다연 혜인

종정사서실장 법수
종정큰스님시봉 연아

서울교구 종무원장 경북교구 종무원장 혜정
대구교구 종무원장 대각 경남서부교구종무원장 법정
경남동부교구종무원장 태화 경남거제시 종무원장 정혜
부산교구 종무원장 정법 포항교구 종무원장 혜도
울산교구 종무원장 혜성 전남광주교구종무원장 다연
경기교구 종무원장 일연 창 녕 지 회 장 정보
창 원 지 회 장 법기 김해교구 종무원장 대광
통영교구 종무원장 도언 부산경남 법사단장 백경
마산창원 법사단장 법교 부산동래 법사단장 연희
강원교구 종무원장 각오
대원종전국신도회회장 권도양(귀양)법사 부회장 신우연법사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한림면 병동 20 대한불교대원종 총무원 신풍사 / 총본사 :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1037-1 총본사 대원사 055)342-6341
연수원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산주리 466-1 도양사(고시원 연수원 기도원 054)956-9666 / 한국역술철학 협회 회장 시인 철학박사 종정(총무원장) 정허당 신풍
총무원 전화 055)346-2910 무료전화 080-3030-5959 팩스 055)346-2909 / 큰스님 直 055)346-2908 휴대폰 011-869-8608
평생전화 1577-0408 / 한글 홈페이지 대원불교조계종 또는 http://cbc108.tv:9004/ e-mail: asp8990@hanmail.net

세계불교 일붕법왕종

사부대중 일동

의료재단 동자원(요양원) 건립불사 中

■ 총본산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원흥리 494-4 원흥사 TEL 031)585-2090

일 주 문



자비나눔 전달식 개최

합천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12월 29일 해인사가야포교당에서 '2007 자비나눔' 전달식을 열고 지역 저소득층 가구에 쌀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고양사암련 · 천수천안 신임 이사장

고양 흥국사 주지 대오 스님은 12월 27일 고양시사암연합회장 및 사단법인 천수천안불교자원봉사단 신임 이사장에 취임했다.



약사여래탱화 점안법회

태고종 열린선원 선원장 법현 스님은 12월 25일 큰법당에서 '원불(願佛) · 약사여래탱화 점안법회 및 송구영신 법회'를 봉행했다.

충효영어교실 개최

서산 부석사 주지 주경 스님은 1월 6~12일 초등학교 4~6학년생을 위한 '충효영어교실'을 개최한다.(041)662-3824



제4회 어린이 영어캠프

금강대학교 성낙승 총장은 1월 3~12일 초등학교 2~6학년생을 대상으로 제4회 금강대 어린이 영어캠프를 개최한다.(041)731-3042



독거어르신 목욕봉사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고재욱 관장은 12월 28일 '묵은 때 벗고 무자년 새해 맞이하기'를 열고 지역 독거어르신을 위한 목욕봉사를 진행했다.

영천 만불사·동대 불교대 '사학협력'



영천 만불사(주지 학성)는 동국대 불교대학(학장 법산)과 12월 20일 사학협력을 맺었다. 만불사는 매년 1000만원을 동국대 불교대학에 협력기금으로 전달하게 된다. 기금은 전액 장학용도로 사용된다. 만불사는 동국대생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해 신도관리 · 불사기획 · 사찰홍보 등의 실무 교육을 대행해 불교전문 인재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조동섭 기자

"참여하고 공부하는 공불련 만들 터"

공불련 신임회장 하복동 감사위원



"어깨가 무겁습니다. 불자회 조직 활성화 등을 통해 공불련을 공부하는 신행단체로 만들겠습니다."

12월 18일 서울 구룡사 만불보전에서 제5대 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 회장으로 취임한 감사원 감사위원 하복동(52 · 사진) 신임회장은 이와 같은 포부부터 밝혔다.

하 회장의 불교 인연은 어린 시절 할머니와 어머니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 회장은 "어머니와 할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면서 욕심 내지 않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사셨던 그 분들의 인생 철학이 내게도 흡수된 것 같다"고 한다.

하 회장은 앞으로 공불련의 내실화와 교육에 힘쓸 생각이다. 이를 위해 ▲불자회가 조직되지 않은 200여개 단위기관에 불자회 창립 발의 ▲경전공부에 필요한 필수경전 사업 추진 ▲성지순례 등 불교 행사 확대 ▲공부하는 공불련 만들기 위한 사경법회 봉행 등을 과제로 꼽았다. 이중에서도 필수경전 사업은 하 회장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계획 중 하나다. 하 회장은 "공불련 회원들이 각각 다른 법문집을 갖고 있어 법회 때마다 혼란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필수경전'을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느꼈다"며 "이 사업은 임기 동안 초석이라도 닦을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밖에도 하 회장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감사원 불자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법회 횟수를 늘리는 계획도 구상 중이다.

임제 스님의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을 늘 머릿속에서 놓지 않는다는 하 회장은 공불련 회장으로서도 수처작주 하겠다는 결심이다.

"제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대덕 스님들의 지혜와 공불련 회원들의 결집된 힘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불자들이 참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신행문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강진 기자

"군산불교 활성화에 최선 다하겠습니다"

군산불교신도연합회 신임 안근 회장 추대



"불자들의 화합을 다지고 유대를 돈독히 해 군산불교 신도연합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신행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월 23일 군산불교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군산불교신도연합회 제5대 회장에 추대된 안근(사진) 신임회장은 "군산불교신도연합회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아직 불자회가 조직되지 않은 각급 직장, 직능단체와 청소년, 청년회 등의 불자회 창립을 유도해 명실상부한 신도연합회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군산불교회관의 부지 마련을 위한 토대를 닦고, 지역불자들이 군산불교회관을 통해 수행과 신행 활동은 물론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교리강좌와 문화강좌를 개설하는 한편 무료급식, 환경보전활동 등 대사회 참여활동을 강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근 회장은 군산 서해대 외래교수로 재직중이며 군산시 4대의원을 역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최초로 무문관 세워 수행풍토 진작"

대자암 조실 정영 스님 원적



공주 갑사 대자암 조실 영파당 정영 스님(前 조계종 원로의원 · 사진)이 12월 24일 오후 4시 30분경 대자암 염화실에서 입적했다. 세수 85세, 법납 66세. 스님의 다비식은 12월 28일 수덕사에서 봉행됐다.

1923년 경남 창원에서 출생한 정영 스님은 일본에서 수학하다 1940년 해인사로 출가해 상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은사는 만공 스님. 1943년부터 해인사, 칠불암, 대승사, 미래사, 보문사 등 전국의 제방선원에서 수십안거를 성만했다.

스님은 1964년 서울 도봉산 천축사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무문관 선방을 개설, 한국불교의 수행풍토를 일신시켜왔다. 김주일 기자

"불교에 대해 고민하는 대학생 단체로 이끌 터"

대불련 신임 회장 김정현



"대불련 활동을 하면서 불법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이 순수하게 불교에 대해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불련으로 이끌겠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가 12월 23일 한국역사불교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연 정기총회에서 제46차 회장으로 김정현(23 · 법명 지송 · 사진) 신임회장이 선출됐다. 김 회장은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며 지난해에는 연세대 불교학생회 지회장, 올해는 대불련 서울지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요즘 대학생 동아리 활동 목적이 취업이나 학점이 돼 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대학생이라면 할 수 있는 삶의 이야기, 고민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대불련 회장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조직 정비부터 나서겠다는 김 회장은 올 3월 있을 새내기 대학생들의 입학 시즌을 맞아 대학생 포교, 새내기 포교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포교를 적극 활용해보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강진 기자

의성 고운사 '제1회 장학금 전달식'



의성 고운사(주지 호성)는 12월 23일 대웅전에서 '제1회 중고생 고운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각 지역 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의성지역 학생 10명, 안동지역 학생 10명, 영주 지역 학생 10명 등 총 40명에게 1인당 30만원이 지급됐다.

복지 프로그램 '셰어 윌' 발대식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정념)은 12월 26일 재단 사무실에서 청소년과 직업인이 함께 꿈을 나누는 프로그램 '셰어 윌(Share will)'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셰어 월에 참여할 뜻을 밝힌 정념 스님, 명호근 前 쌍용부회장, 동아방송예술대 김상준 교수, 서울대 우희종 교수 등의 운영위원단과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02)723-5101

국제포교사 전문화연수 진행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12월 13~17일 대만에서 국제포교사 전문화연수를 실시했다. 국제포교사회의 조직력 향상과 효율적인 봉사시스템 마련을 위해 개최된 이번 연수에는 20여 명의 국제포교사가 참석했다. 연수는 대만 불광산사 성운 대사 친견, 자제공덕회 탐방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연실회 태안 성금 기탁



자원봉사단체인 연실회(회장 고선심)는 12월 24일 조계종 사회부를 방문해 태안 기름유출 복구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고선심 회장은 "불자들이 기름유출 사고 복구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圓 曹溪宗 元老 靈波堂 瀞暎大宗師 元老會議葬 寂

訃 告

大韓佛教曹溪宗 元老 靈波堂 瀞暎大宗師께서 世緣이 다 하시어 佛紀2551(2007)年 12月 24日(陰 11月 15日) 午後 4時 34分 忠南 公州市 鷄龍山 甲寺 大慈庵에서 法臘 66, 歲壽 85로 圓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門徒代表 楞嚴 合掌

■ 焚 香 所 : 忠南 公州 大慈庵
■ 永 訣 日 時 : 佛紀2551(2007)年 12月 28日(陰 11月 19日) 午前 10時
■ 永 訣 式 場 : 忠南 禮山 修德寺
■ 茶 毘 場 : 忠南 禮山 修德寺 蓮花臺
■ 問議 및 連絡處 : 忠南 公州 大慈庵 ☎ 041)857-5880
忠南 禮山 修德寺 ☎ 041)337-6565

大韓佛教曹溪宗 元老 靈波堂 瀞暎大宗師 元老會議葬 葬儀委員會



불자 세상보기

김 광 하
작은손길 대표

새해엔 '마른 지혜' 벗어나자

지난해 12월 19일 선거 결과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 노무현 정부는 진보를 표방하는 정권이다. 그러나 그동안 한 일을 살펴보면, 자신이 내건 이념과 사뭇 어긋난 일이 적지 않았다.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한 것도 그렇고, 농민들의 성난 반대를 무릅쓰고 에프티에이(FTA)를 강행하는 것을 봐도 그렇다. 물론 국익을 생각하다보니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일이야 보수적인 정권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집권기간 동안 집값은 더 뛰었으며, 비정규직의 문제가 사회전체의 이슈가 되었다. 청년실업이 백만을 넘어섰고, 빈부격차는 더 커졌다. 지난 10년간 진보적인 이념을 내세운 정권이 도리어 신자유주의를 충실히 따랐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당선자는 서울시장으로 일할 때, 청계천을 복원했으며, 버스광역제를 시행했다. 그 결과 청계천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서민들이 큰 돈 들이지 않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되었고, 광역탑승제는 서민들의 교통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주었다. 이명박씨를 옹호하려는 것은 이 글의 뜻이 아니다. 이번 선거결과를 보면서 이념과 실제 결과가 서로 다른 그 동안의 모순을 국민이 심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이론이 아무리 훌륭해도 결과가 달리 나타난다면, 자신을 겸허하게 반성하는 일이 앞서야 할 것이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크릭(Willow Creek) 교회는 2006년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50개 교회 중 1위를 차지한 교회이다. 교회성장을 꿈꾸는 전 세계 개신교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방문하고 있다. 최근 이 교회는 지난 32년 동안 자신들이 행한 목회활동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그 동안의 사목활동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한 것이다. 수많은 영성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교회의 환경을 개선하여 신도들의 수가 획기적으로 늘었지만, 정작 교회 신도들의 의식을 조사해본 결과 진정으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밖에서는 최고의 교회라고 세상이 평가해주었지만, 참다운 신앙과 거리가 먼 신도들의 실상을 발견한 것이다. 나는 이념과 현실의 괴리를 발견하고 그 모순을 스스로 인정할 줄 아는 이 교회의 지성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우리 불자들도 이런 현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절이 크고 신도가 많다고 해서 포교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사실 지와 행이 일치하는 삶은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이 예로부터 한 결 같이 강조해 온 가르침이다. 특히 행이 없는 앎을 마른 지혜라고 경계했다. 법을 전할 때도 바른 안목과 행실을 으뜸으로 여겼다. 사홍서원의 첫 번째는 중생을 끝없이 제도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자신의 욕망과 집착 끊기를 다짐하는 서원이다. 이런 훌륭한 가르침 속에 살면서도 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불자로서 부끄러운 점이 많다. 수행이나 봉사가 자기만족에 그치는 때가 많고, 때로는 인연이 없다는 구실로 좌절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한다. 그 속에는 나와 남을 둘로 보는 어두운 인식이 숨어있다.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 남과 북 어디에도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탈북자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가 하면, 금년에 길에서 얼어죽은 노숙자가 300여명이나 된다. 노인들이나 학생들의 자살이 해마다 늘고 있다. 새해에도 우리 단체가 이들을 위해 마음 나누는 일을 계속할 수 있기 바란다.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작지만,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마음속에 자비와 신뢰의 등불이 이어지길 바란다. 아울러 이를 통해 앎과 삶을 함께 되돌아보는 지성이 우리 수행의 한 축이 되기를 발원한다.

불자의 눈

'행복'을 긷는 '선지식'이 되자

"과거에 대한 겸허한 성찰(省察)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약속이 화해하는 우정의 시간속에 평화는 도래하며, 우리 모두의 성실한 참여와 이해가 교환되는 공간에서만이 우리 사회의 행복은 성취될 수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발표한 신년사의 한 단락이다. 2008년 우리 사회는 새로운 물결을 기대하고 있다. 10년만의 정권교체로 인한 새 물결이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곳곳에 스며들길 기대하는 것이다. 불교계도 마찬가지다.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불교계도 새로운 시각으로 활동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세상의 변화와 불교는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오히려 세상의 변화를 선연(善緣)으로 이끌어 가는 힘을 가질 때 불교는 으뜸 종교로서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란 자칫 뿌리를 잊고 줄기와 가지만 흔드는 바람이기 일쑤다. 시류란 당장의 이해관계와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나치게 시류에 영합된 변화는 기반이 약하고 그로인해 예기(豫期)치 못한 사건사고를 양산하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지난 10년간의 한국사회는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변화에 끌려 온 느낌이 없지 않다.

해가 바뀐다고 천지가 개벽을 하듯 새로운 세상이 열리길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좀 더 깊고 굵은 뿌리를 근거로 하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기대하는 것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다. 이럴 때 불교는 우리 민족의 진정한 뿌리가 무엇인가를 일깨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신의 뿌리도 중요하고 역사인식과 문화 의식, 정치와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진실로 중요한 뿌리가 무엇인가를 일깨우는 목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불교의 시대적 책무가 지관 스님의 신년사에 잘 나타나 있다.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약속의 화해를 통해 평화를 길어 올리고, 참여와 이해를 통해 행복을 성취하자는 간곡한 발원은 종교와 이념을 떠나 국민 모두에게 따뜻한 보시의 언어가 아닐 수 없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겠지만, 새해에도 불교계를 비롯한 온 국민의 궁극적 소망은 바로 '행복'일 것이다.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변화의 궁극적 지향도 결국 행복한 삶일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정치는 사기극일 뿐이다. 종교 역시 만 중생을 행복의 길로 안내하고 행복의 자리에 앉히지 못하는 한 허망한 주장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종교도 정치도 참여와 이해의 큰 마당을 펼칠 때 행복의 길은 열리는 것이다. 새해 우리 사회를 시간적으로 화해시키고 공간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힘, 불교계가 바로 그 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불교는 사회적인 지탄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스스로 불러들인 화였다. 내부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욕망과 갈등의 단면들을 여과 없이 노출시킨 사례가 너무 많다. 물론 아직 그런 갈등 구조가 다 해결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더 이상 교단의 갈등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청정교단 회복을 위한 사부대중 공동의 노력이 더욱 견고해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시간은 언제나 새롭다. 사람이 새로워지지 못할 뿐이다. 2008년 새해, 모든 불자들이 매순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선지식이 되길 기원한다.

"그 때의 종소리 잊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㊺ 목숨을 구한 자비의 종소리

결혼을 꿈꾸며

김씨는 연말만 되면 가슴이 서늘해지곤 한다. 몇 년 전 그날이 떠올라서이다. 김씨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매우 가난하게 지내왔다.

그러다가 서른이 넘어 어느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여성과 마음이 맞게 되었다. 그녀는 자상하게 마음을 써 주어 부모 사랑을 모르던 김씨는 푹 빠져들었다. 그녀는 "돈이 없으면 어때요. 당신만 있으면 되지요"하면서 김씨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였다. 곧 그녀와 결혼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위해주는 여성에게 최소한 전세방에서 신혼살림을 하게 하고 싶은 욕심이 들었다. 이리저리 알아보다 보니 외국에 가서 노동일을 하면 꽤 돈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났다. 고되고 힘든 일이라고 했다. 1년만 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모은 돈에 외국가서 벌게 될 돈을 합치면 대충 전세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도 처음엔 반대하더니 "그래요, 곧 애기도 가져야 할 텐데 우리 애는 전세에서 키워야지요"하며 찬성하였다.

배신의 고통

그렇게 김씨는 외국에 갔다.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죽어라고 일했다. 유일한 낙은 한국의 약혼녀와 편지하는 일이었다. 전화는 비싸서 거의 못 했다. 안 쓰고 안 입고 월급 전부를 꼬박꼬박 그녀에게 보냈다. 그녀와 찍은 사진을 보면서 고된 일과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었다. 마침내 11개월째가 되자 그녀는 전세를 한 칸 마련하게 되었다고 했다. 김씨는 날아갈 듯 기뻤다. 다음 달이면 귀국이다! 연말엔 결혼해야지 하고 생각하니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같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공항에 마중 나온다던 그녀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기다리다 지쳐 휴대전화를 걸자 없는 번호였다. 너무 놀라 편지했던 주소로 찾아갔다. "바로 2주 전에 이사갔어요. 그런데 그 사귀던 남자가 같이 와서 짐 정리해 주던데." 김씨는 귀를 의심했다. "네에? 남자라니요?" "아, 몇 달 전부터 만나던 걸요. 곧 결혼할 사이라던가?" 은행에 가서 자기 계좌를 알아보니 그녀가 자신이 맡겼던 통장과 도장으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찾아간 것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위해 외국에서 노동
배신한 연인에게 복수하려 찾아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수소문해서 한 달 만에 있는 곳을 알아냈다.

약혼녀는 어떤 남자와 도망가 시골에서 전세를 얻어 살기 시작한 것이었다. 김씨가 피땀으로 벌어 보내준 돈으로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린 것이었다. 김씨는 배신감과 분노로 제 정신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속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번 돈인데 전부 가로채서. 너희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죽이려고 칼을 준비했다.

집을 미리 확인해 두고 근처 여관에 가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새벽에 곤하게 잘 때 몰래 들어가려고 결정했다. 뜬눈으로 밤을 새우며 지난 일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온 몸이 떨렸다. 두 사람에게 복수하고 자기도 죽을 생각이었다. 이렇게 외롭고 힘든 세상, 더 살고 싶지가 않았다. "12월엔 결혼하려고 했었는데. 대신 장례를 치르게 되는군"하고 생각하니 너무나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자비의 종소리

드디어 새벽 세시가 되어 길을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몰려오는 거리는 적막에 잠겨 있었다. 그 때였다. "뎅~"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종소리였다. 살기로 가득 찼던 김씨는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뎅~뎅~" 종소리는 계속되었다. 저 멀리 산 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이 새벽에?" 그제야 그 곳이 절이 많은 곳이란 생각이 들었다. 김씨는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종소리는 계속되더니 점점 더 커지는 것이었다. 마침내 김씨는 두 귀에서 터질 듯이 울리는 종소리에 그만 발이 얼어붙고 말았다.

자기도 모르게 방향을 바꿨다. 종소리를 좇아 절을 향해 가고 있었다. 종소리가 나는 법당에 가서 문을 열었다. 새벽 예불하시는 스님을 보자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 날로 부처님께 귀의했어요. 용서요? 모든 게 인과응보란 걸 알게 됐지요. 그런데 그날 밤, 정말 뭐에 홀렸던 건지 어떻게 절로 가게 되느냐 말입니다. 그 때의 종소리가 아니었으면 지금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 종소리는 김씨를 살리려고 그의 마음에 나투신 관세음보살의 간절한 부르심이 아닐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비의 소리에 응했던 것이다. 내 한마음 그대로 관세음이시니 내 한마음에 귀의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이것이 바로 "우주적 신불교의 진면목"

영산불교 현지궁에서 펴낸 위 불서 3권은 팔만대장경의 진수와 동서고금의 종교철학사상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의 확실한 생사관과 절대계의 붓다님들의 소식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보서(寶書)이다.
이 책은 모든 호법선신이 옹호할 것이며, 성중과 나한이 삼재팔난을 제거할 것이다. - 불세존 말씀 -

위대한 이 시대의 고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자의 생사관에 대한, 네 영체에 관한, 그리고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의 큰 스님 법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교의 설명으로는 , ○불교의 교의로는 도대체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그저 살았다고 해야할까...., 나는 이제 현지사 큰스님을 만나 인생의 의미를 뚜렷이 알게 되어 매일 매일 보람을 창조하며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되는지 현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나 이 세 권의 미증유한 성서를 꼭 필독해보기시 바란다.
- 지방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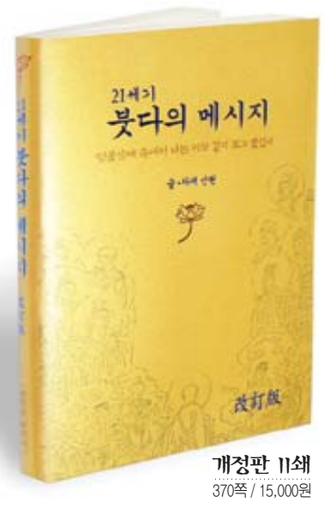
거룩하고 희유한 미증유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위대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세계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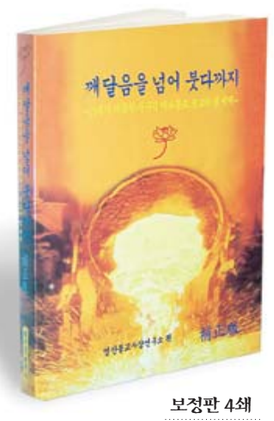
존평의 신기원을 연 마스터피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尊評"

절찬리 판매중

개정판이 나와 발행 2년만에 11쇄 !!



개정판 11쇄
370쪽 / 15,000원



보정판 4쇄
509쪽 / 15,000원



보정판 4쇄
489쪽 / 15,000원

http://www.hyunjisa.or.kr 판매처 영산불교 현지궁 춘천 본사 Tel 033)243-1787,1795 / 영산불교 현지궁 부산 분원 Tel 051)554-5150

謹賀新年 佛紀 2552年

2008년 戊子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新興寺



회 주 설악 무산
운영위원장 도 후
부 주 지 우 송

총무 동선 기획 홍구 교무 현담
재무 일음 포교 지상 사회 일도 호법 일해

- 신흥사 향성선원
- 신흥사 신도회
- 신흥사 불교대학
- 재단법인 만해사상 실천 선양회
- 재단법인 신흥사 성준장학 재단

◇사회복지법인 신흥사 복지법인
· 반야노인요양원
· 반야어린이집
· 룸비니어린이집
· 춘천실비노인요양원(연화마을)
· 속초종합사회복지관
· 속초노인종합복지관
· 금강장애인주간보호소

www.sinhungsa.or.kr

신흥사 대중일동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TEL 033)636-7044,7393 FAX 033)636-7556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산 동 화 사



통일대불

조실 진제 법원
주지 남명 허운

총무 홍관 노전 기함 교무 각만 재무 법진 포교 승석 호법 도견 도감 중현 원주 선일

금당선원 선원장 지환
강 원 강 주 지운

신 도 회 회 장 김석순

사부대중일동

http://www.donghwasa.net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TEL 053)982-0101~2 FAX 053)985-4405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주 지 성 타

관 장 종상
학 장 덕민
선 원 장 종우
부 주 지 장주
총 무 종천
기 획 정문
교 무 정수
재 무 종천
사 회 각천
포 교 성요
호 법 종민
신도회장 변영우



부설기관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유치원
·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 불국사 문화회관
· 성림 어린이집
· 불국 성림원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 TEL 054)746-9912~4 FAX 054)746-1476

대한불교 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총림 해인사

조계종 종정 해인총림 방장 도림 법전
주 지 연암 현응

총림대중 일동

www.haeinsa.or.kr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TEL 055)934-3000 FAX 055)934-3010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 운 사

조실 현봉 근일
회주 송암 혜승
주지 남전 호성

총무 노현 기획 지현 교무 성공 재무 도륜
사회 등운 호법 정우 포교 용담

고운사 고운노인요양원 원장 성민
영주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도륜
의성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탄하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116번지 TEL 054)833-2324 FAX 054)834-6935 홈페이지 www.gounsa.net

뿌리 깊은 종단 보람 여는 교구

住 持 仁默 인묵
副住持 海松 해송
總務局長 普仁 보인
企劃局長 長山 장산
敎務局長 知幻 지환
財務局長 普觀 보관
社會局長 法圓 법원
布敎局長 智見 지견
護法局長 桓寂 환적
宗策室長 惠林 혜림
文化院長 王山 왕산
事務室長 李熙濬 이희준
會計課長 任藝卿 임예경

大韓佛敎曹溪宗 第25敎區 本寺 奉先寺

■ 京畿道 南陽州市 榛接邑 富坪里 二五五番地 전화 031)527-1951 / 팩스 031)527-8568

현대불교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2008년 1월 1일 화요일 제 660 호 B1

바쁜 일상 속 수행할 시간이 부족하다?

‘생활습관’부터 바꾸세요

내 안에 불심 있다
❶ 가정에서 짬짬이 하는 수행법

“불교 공부나 수행을 하고 싶다”는 불자 대부분이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댄다. 하지만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쓰면서도 자신의 신행생활을 열심히 꾸려 나가는 불자들은 나름의 ‘시(時)테크’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출근 전 20분, 점심시간 30분, 낮잠을 줄인 40분이 깨달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 여실히 보여준다. 가정과 직장에서 적은 시간이지만 짬짬이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거기다 남편 출근에 아이 등교 뒷바라지까지 하다 보면 잠시 앉아 있을 틈도 없어요.”

끝도 없이 이어지는 가사활동은 주부들을 지치게 만든다. 그렇지만 하루 단 10분만이라도 자신의 수행을 위해 시간 낼 수는 없을까? 해인사 율주 종진 스님은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라며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자신의 믿음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부처님에게는 ‘수행하는 시간’이 따로 있지 않았다. 사람들을 만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물론 걷고 말하고 먹는 행동 모두가 부처님에게는 수행이었다는 것이다. 종진 스님은 주부들에게 먼저 “올곧은 신행생활을 하겠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조언한다. 믿음이 굳어지면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저절로 수행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가정에서 신행활동을 이어가는 주부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주부불자들은 한결같이 “일정한 시간을 정해 지속적으로 정진하라”고 조언한다.

주부 정금옥(60)씨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108배를 한다. 잠을 줄여 수행할 수 있는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낸 것이다. 정씨는 “108배를 하는 순간만큼은 잡념이 거의 들지 않고 절하는 그 자체에 몰입할 수 있다”고 말한다. “108배를 마친 후 10분 정도 독경하고 나면 하루를 살아갈 든든한 힘을 얻습니다. 낮 시간을 내기 어려운 주부들이라면 새벽잠을 30분만 줄여보세요.”

주부 하경옥(58)씨는 불교공부를 하리라 마음먹고 난 후 틈나는 대로 경전을 손에 쥐었다. 처음엔 술술 넘어가던 책장이 어느새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곤 마음을 바꾸었다. 오전 11시와 오후 3시가 되면 무조건 하던 일을 멈추고 책상 앞에 앉아 경전을 읽자고 마음먹었다. 이렇게 2주 정도 습관을 들이니 청소하다가도 자연스레 “경전 읽을 시간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고, 집안일 하는 시간도 자신의 ‘경전 읽는 시간’에 맞춰 분배할 수 있는 요령이 생겼다고 한다. 하씨는 “평소 읽고 싶었던 불서나 마음에 새기고 싶은 자신만의 ‘소의경전’을 정해 일정시간만큼 매일 읽으라”고 조언한다.

주부들에게는 사경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이다. 주부 박민자(37)씨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30분 전부터 사경을 한다. “사경하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내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에서 자녀를 맞으면 아이들이 꼭 부처님처럼 보여요. 아이들에게 괜히 신경질 내던 버릇도 없어졌답니다.”

처음 불교를 접했거나 혼자 신행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든 불자라면 경전공부모임이나 신행모임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신행모임 여여회 회원 이옥자(70)씨는 평소 집에서 법문을 자주 들으려고 노력한다. “법문을 자주 읽고 듣다보면 저절로 그 가르침이 훈습(薰習)된다”는 이씨는 경전테이프를 종일 틀어놓고 듣는다. 하지만 혼자 공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 한 달에 한 번 여여회 모임에 참석해 도반들과 함께 공부한다. 큰스님 가르침을 듣다보면 평소 가지고 있던 궁금증도 풀 수 있고, 법회 3~4일 후까지 법문 내용을 되새겨보려 노력하게 된다.

20년 가까이 가정법회 겸 신행모임인 여여회를 이끌고 있는 이란 회장은 주부들에게 ‘가정에서 성불(成佛)하라’고 말한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부인이자 부모로서 제자리를 지키는 가정에서부터 자신의 수행을 시작하라는 것이 이 회장의 지론이다. 이 회장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주부들일수록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시간에 끌려 사는 경우가 많다”며 “젊을 때부터 몸에 수행하고 공부하는 습관이 배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이 회장은 여여회 회원들에게 “공부의 시작은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습관들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공손히 합장 인사하고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는 것부터 시작하면 몸가짐이 저절로 다듬어지고 이것이 공부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지요.”

경전을 읽지 못했거나 사경을 하루 걸렀다고 “수행을 못했다”며 자책할 필요는 없다. 이 회장은 “집안을 쓸고 닦는 모든 것이

하루 중 경전읽는 시간 정해 일 분배
차 마실땐 좁·질감 음미하며 명상을

수행”이라고 말한다. 어떤 마음으로 집안일을 하느냐에 따라 수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초의차명상연구원장 지장 스님은 “음식을 만들고 먹고, 차를 마시고, 청소를 하는 모든 일이 다 수행이다”고 말한다. “수행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부들이라면 가사 후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

그 중에서도 주부들이 하루 두세 잔은 마시게 되는 차나 음료를 이용하면 쉽게 수행을 시작할 수 있다. 차명상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료 한 잔이면 충분하다. 우선 주위를 정돈하고 앉아 음료가 든 잔의 질감과 온도, 향을 천천히 음미한다. 처음에는 차나 찻잔 등 외부의 감각을 느끼다가 천천히 그것을 느끼는 자신을 살핀다.

지장 스님은 “차명상을 통해 자신을 통찰할 수 있으면 밥 먹고 청소하고 운동하는 등의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자신을 통찰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수행은 일상생활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그 순간이 수행의 시작이며, 삶 자체가 수행이 되는 것이라고 수행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여수령 기자



수행과 공부에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12월 26일, 퇴근 후 서울 조계사 불교대학 강의에 참석한 불자들에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짬짬이 시간을 내 수행을 이어가는 ‘시테크’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맞춤형 수행법'으로 직장 스트레스 훌훌

내 안에 불심 있다
❷ 직장에서 짬짬이 하는 수행법

사람은 다 제각각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 직업도 천차만별, 생활방식도 천태만상이다. 부처님은 대기설법을 하셨다.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불자되는 법을 알린 것이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스스로에 꼭 맞는 수행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직장인에게 수행이 필요한 이유는 각자 다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스트레스' 때문일 것. 타인과 어울려 헤쳐나가야 하는 직장생활이다 보니 일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는 배가 되기 마련이다. 수행을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라고 항변하고 싶다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침이나 저녁, 또는 주말을 이용해 수행하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자. 시간을 '보석처럼' 여기며 온종일 수행하는 것 못지 않게 자신의 길에서 정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

아침시간에 수행할 수 있다면 사경

직장인에게 아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1~2분에 근태가 결정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쁠 때 마음의 여유를 찾는 사람만이 진짜 승부를 낼 수 있다.

박영미(30)씨는 방문학습지 교사로 일한다. 평소 별로 화내는 법이 없는 박씨는 그 이유를 매일하고 있는 '사경(寫經)'에서 찾는다.

"일하다보면 학부모님이나 학생들과 뜻이 맞지 않아 서로 감정을 상하는 경우가 있죠. 아침에 내 마음부터 다스리고 시작하면 아무래도 문제생길 일이 별로 없어요."

박씨가 사경을 처음 접한 것은 1년 전, 한자 공부 겸해서 짧은 게송들을 베껴 쓰면서부터였다. 요즘은 아침에 출근 하기 전, 일찍 일어나 사경부터 한다는 박씨. 스스로 생각해도 생활태도가 달라져 놀랍다고 한다.

한국사경연구회 김경호 회장은 "아침 사경은 차분히 자기 마음을 다듬고 새롭게 돋우므로 좋은 출발의 계기가 된다"며 박씨의 사경법을 칭찬했다. 덧붙여, 시작할 때 <법구경> 한 구절, 게송 하나라도 차분히 정서(政書)하면서 사경 자체보다는 쓰고 있는 구절 자체를 음미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진짜 사경의 의미라고 김희장은 설명했다.

짤막한 게송의 경우 5언게송 4구면 20자 내외라 얼마 되지 않지만 이를 충분히 생각하기 위해서는 1주일 또는 한 달 단위로 목표를 잡고 꾸준히 써내려 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김 회장은 "사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는 자기 마음에 드는 게송을 하나 정해 1주일간 그 게송만 따라 쓰면 된다"고 말한다.

저녁시간이 여유있다면 불경강좌

공무원 등 퇴근 시간이 다른 직업 종사자들에 비해 비교적 규칙적인 이들이라면 도심 사찰 등에서 마련해 놓은 각 불교대학의 '경전강좌'를 추천한다.

직장이 서울 봉은사 근처기에 항상 봉은사에서 경전공부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 이창영(46)씨는 지난해 봉은사 수요법회에서 월암 스님의 강의를 듣고 발심, 올해 포교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요즘은 수요법회를 통해 평소 궁금했던 간화선에 대해 접하면서 혼자 가지고 있던 의문도 많이 풀렸다고 한다.

"아, 간화선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어요. <벽암록> 같은 경전 강의를 들으면 특히 가슴이 답답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참 좋더라고요."

조계사 교무국 심재선 주임은 "불자들 중 배움의 욕구가 큰 분들이 있다"면서 "경전 공부는 평소 한문공부를 원하거나 체계적인 공부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잘 맞다"고 조언했다. 경전강좌 또는 불교교리 강의를 듣고 싶은데 가까운 사찰에 불교대학이 개설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자.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신도교육신행'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말에 시간이 난다면 철야정진

서울 삼선중학교 교사 윤영단(53)씨에게 주말은 소중한 수행시간이다. 주말에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에 걸쳐 진행되는 '3000배 철야정진'을 통해 마음 속에 남아있던 '삿된 생각'을 씻을 수 있어 더욱 그렇다. 평소에도 절 수행은 하고 있지만 주말 철야정진은 윤씨에게 더 특별하다.

"겨울이라도 3000배 철야정진을 하면 땀이 그렇게 흘러요. 육체적 고통도 물론 있습니다. 그 때마다 호흡을 조절해요. 흘린 땀 속에 후회, 망상이 씻겨 개운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을 업으로 삼은 직업. 자신도 모르게 무심코 아이들 위에 서려 하지는 않았을까. 윤씨는 늘 자신의 그런 마음자리를 살펴본다. 그런 의미에서 '절'은 몸을 숙이고 나를 낮춤으로써 마음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행법이다. 윤씨의 철야정진을 돕고 있는 법왕정사 청견 스님은 절은 수행이지만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철야정진을 해 보면 직장인들이 흔히 겪는 어깨 통증 같은 것이 좋아질 것입니다. 물론 절은 수행이기에 바른 자세로 내 마음을 정갈히 하는 것이 선행돼야지요. 직장인들은 술 때문에 절 수행을 포기하기도 하는데 술을 마실수록 더 절 수행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3000배 철야 정진은 너무 힘들 것 같다면? 청견 스님은 "점심시간에 간단히 점심을 먹고 108배부터 시작해보라"고 권한다. 점심시간 후 힘이 생긴 자신을 발견하고 3000배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길 것이다.

비교적 시간이 자유롭다면 붓다클럽

자영업이라 하면 남들은 "와, 사장이니 마음대로 하고, 좋겠다"고 속편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속모를 소리다. 최종결정은 누구도 아닌 오직 혼자만의 힘으로 해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고민과 괴로움이 넘나든다. 오죽하면 <직원들이 모르는 사장님의 고민>이란 책까지 등장했겠는가.

중고 가구마트를 운영하는 차은산(53)씨도 그렇다. 차씨는 일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끈을 놓아버리려고까지 했다고 고백한다. 그러다 2005년 동산반야회에서 운영하는 '붓다클럽(총재 이상우)'에 가입하면서부터 생각으로부터 풀려났다.

차씨는 붓다클럽에서 정한 '5대 실천덕목'을 꼭꼭 지키려 애쓴다. 이 중 108배, 경전 읽기, 염송은 매일 해야 한다. 여기에 매월 1회 이상 봉사, 매월 1만원 이상 정기 보시가 더해져 5가지다.

"'5대 실천덕목'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생활화 하다 보면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육바라밀 정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산불교대학 김재일 이사장은 "'5대 실천덕목'은 매일 빼먹지 않고 초발심으로 강하게 이끌어야한다"면서 "이런 덕목들을 지켜가면서 꿋꿋하게 내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강진 기자


경전을 읽고 있는 차은산씨. 그는 사업체를 꾸려가는 바쁜 일상 중에도 108배·경전 읽기·염송 등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tip! tip! tip!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 보세요

수행 전문가들이 한결 같이 권고하는 방법이 있다. 출퇴근 길을 활용하는 것.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경전 암송이 효과적일 것이다. 가장 간단한 <반야심경>부터 시작해도 좋다. 아니면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정근을 하는 것도 좋다. 직장인의 경우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이 1시간 가량이다보니 피로에 절어 번잡한 마음에 사로잡히기 쉬운데 암송이나 염불이 그런 것을 막아준다. 이직 경전을 외지 못했다면 경전테이프나 파일 등을 들고 다니며 들어도 좋다.



(재)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종정대행 운산 거정 대선사 부종정 자운 청봉 대종사

원로의장 월우
총무원장 능인

원로의원 청산 혜일 혜산 여산 범아 해월 무량

중앙종회의장 운암
종립불교대학장 지오
문화원장 혜운

교육원장 해천
중앙연수원장 법전
기초선원장 명등

포교원장 지도
무술연수원장 용산
행자교육원장 정타

호계원장 보각
비구니원장 아산

서울종무원장 법륜
강원종무원장 진광

부산종무원장 혜오
충북종무원장 법전

대구종무원장 정호
전북종무원장 장원

광주종무원장 혜성
경북종무원장 혜봉

울산종무원장 혜조
경남종무원장 일오

경기종무원장 해천

총무부장 보명
문화부장 혜명

재무부장 법련
감찰부장 월암

교육부장 성암
규정부장 덕산

포교부장 운산
호법부장 혜송

사회부장 동법
기획부장 도안

홍보부장 혜일

총무국장 도경
감찰국장 혜오

재무국장 정기
규정국장 호산

포교국장 정광
호법국장 용담

사회국장 혜득
기획국장 도성

홍보국장 길상
예경실장 자은

문화국장 홍신

법사위원장 인황

법사위원 청명, 진여

"전국 사찰등록을 환영합니다"

■ 총무원 : 경북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318번지 고원사 TEL 054)382-3363, 3397 FAX 054)383-5005
■ 총본사 : 경남 양산시 웅상읍 주진리 656번지 불광사 TEL 055)364-4747 홈페이지 : www.gowonsa.com

조계종 직할교구 사무처 설치

교구 종무행정·포교사업 등 지원…업무효율 향상 기대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직할교구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사무처를 마련한다.

조계종 직할교구상임위원회는 12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장에서 회의를 열고 직할교구 종무행정을 지원할 사무처를 설치하기로 결의했다. 직할교구상임위 의장 지관 스님은 "종단의 제1교구본사인 조계사에 등록한 말사수가 너무 많아 운영이 힘든 형편이다"며 "직할교구와의 민활한 연락과 정보교환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무처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부의장 원학 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은 "직할교구 사무처는 교구를 활성화 하고 교구 소속 스님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교구출범 당시 제도 미비로 시행하지 못했던 것이며, 각 직할교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단합하고 포교 · 사회 · 장학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175회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원학 스님은 "총무원과 직할교구의 업무를 연결해주는 부서가 필요하다"며 "교구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구 사찰 스님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주지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조계종 총무부가 마련한 '직할교구 사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사무처는 직할교구의 효율적 운영을 돕고, 포교 및 문화사회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사무처는 직할교구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사업시행 등의 업무를 맡으며 매월 직할운영활동 상황을 총무원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사무처장은 조계종 총무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총무원은 현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 위치한 민원실의 업무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이곳에 직할교구 사무처를 둔다는 방침이다. 직할교구상임위는 1월 중 직할교구회의를 개최하고 결의된 안건을 보고할 예정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 위치한 종합민원실을 대폭 축소하고, 이 자리에 직할교구 사무처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참석한 스님들은 "현재 제1교구본사인 조계사에 470여 개에 달하는 사찰이 소속되어 있다"며 "앞으로는 제1교구를 독립하고, 각 지역 사찰들이 지역 교구본사에 등록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여수령 기자

마곡사·갑사 前 주지스님 심리 보류

마곡사 前 주지 진각 스님과 갑사 前 주지 장곡 스님에 대해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법등)이 심리를 보류했다.

재심호계원은 12월 21일 제41차 심판부를 열고 "진각 스님은 현재 구속된 상태이므로 서면답변으로 출석을 대신하고, 장곡 스님에 대한 호법부의 증거불충분으로 심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심호계원은 마곡사 사태 관련 스님 5명에 대해 주산 · 중연 스님은 공권정지 5년, 대진 스님은 공권정지 3년, 성윤 스님은 공권정지 1년, 정덕 스님은 심리연기를 최종 선고했다. 초심에 비해 다소 경감된 판결이다.

제42차 재심호계원은 1월 2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울산지사 : (052)272-09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지사 : (062)268-150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東大 교육·의료·징계 분과위 구성

제235회 이사회 개최…본교 운동·수영장 매입 결의도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영배)는 12월 21일 대학 본관 5층 교무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제235회 이사회를 열고 자산 매각 · 매입, 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결의했다.

이사회는 현재 국유지로 등록돼 있는 동국대 본교 운동장과 수영장을 매입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산19번지 34필지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는 ▲교육위원회 ▲의료위원회 ▲징계위원회(교원 · 직원 · 일반직원재심위원회) 등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배정 · 위촉했다.

교육위원회는 영담 · 정념 · 수인 스님, 유광진 · 이재창 이사, 성월 스님, 이홍섭 감사 등 7명, 의료위원회는 성관 · 정련 · 성타 · 혜림 · 정호 스님, 전순표 이사, 상운 스님, 이홍섭 감사 등 8명으로 구성됐다.

교원징계위원회에는 영담 · 성관 스님과 이재창 이사, 한희원 법대 교수, 이명천 서울학사지원본부장, 이시영 경주학사지원본부장, 고유환 입학처장 등 7명이 임명됐다. 김주일 기자

포교사고시 2월 17일 실시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제13회 일반포교사 자격고시를 2008년 2월 17일 실시한다.

포교사고시는 불교적 소양과 전문적인 포교역량을 갖춘 인력을 선발, 양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국내는 17일 오전 9시부터 각 지역 고사장에서, 미국 LA는 16일 오후 4시(현지시각)부터 LA 관음사에서 치러진다.

원서접수는 2008년 1월 21~24일까지 진행되며,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조계종 포교원이나 불교대학 홈페이지에 다운 받을 수 있다.

응시료는 1인 5만원. 최종합격자 발표 및 품수식은 8월 중순 경 실시된다.(02)2011-1894 여수령 기자

"신정아 학위인정 팩스 진본"

美 예일대서 발급 사실 확인

신정아씨 교수 임용 당시 동국대학교(총장 오영교)가 미국 예일대로부터 받은 신씨의 학력확인 팩스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예일대는 지난 7월, 동국대로부터 신씨의 학력증명을 요청한 팩스를 받지 않았고, 학력증명을 해준 적도 없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예일대는 11월 29일, 부총장 겸 법무실장 수잔 카니 명의의 문서에서 2005년 9월 22일에 동국대에서 보낸 팩스가 대학원 부학장 파멜라 셔마이스터가 서명해 보낸 진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려왔다.

그간 동국대는 예일대의 잘못된 발표로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정아씨 비호세력'이라는 도덕적 비난을 받음과 동시에 교원 채용 시 학력검증 과정을 허술하게 운영해 왔다는 의심받는 등 공신력이 크게 훼손됐었다.

동국대가 12월 27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한진수 경영부총장은 "예일대의 학력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신정아의 채용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예일대의 잘못으로 실추된 동국대의 명예회복을 위해 법적조치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예일대 대학원 부학장이 왜 허위학력자인 신씨의 박사학위를 인정하는 공문을 동국대에 보낸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예일대는 이번 착오가 '바빠서 생긴 일(in the rush of business)'이라고 변명했다.

한편, 조의연 경영관리실장은 "신정아씨 학력증명사실을 확인했던 파멜라 셔마이스터씨에게 지난 7월 이메일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회신이 없다"며 "이번 해프닝이 예일대의 단순한 행정착오는 아닐 것"이라는 말로 묘한 여운을 남겼다. 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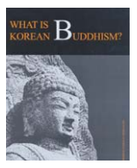


대한불교 선종 '제3대 종정 효담 스님 추대 대법회'

대한불교 선종은 12월 25일 경북 포항시 청솔밭 웨딩홀에서 '제3대 종정 효담 큰스님 추대 및 종단 사단법인 인가 축하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종정 효담 스님은 "법인을 정부에서 허가한 이유는 불교중흥과 불교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많은 중생들을 돌보라는 의미와 중생제도를 잘 하라는 뜻"이라며 "이런 좋은 마음과 의미가 바로 우리 종단의 설립 정신"이라고 법문했다. 김주일 기자



한국불교 소개 영문 책자 진흥원, 미주지역에 지원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이 12월 한달동안 한국불교를 해외에 알리기 위한 국제 포교사업 시행의 일환으로 국내서 발간된 영문 한국불교 소개 책자를 미주지역에 지원했다.

책 이름은 '한국불교란 무엇인가'란 내용을 담은 <WHAT IS KOREAN BUDDHISM?>(조계종출판사 刊)이다. 진흥원은 이 책 600부를 미국 뉴욕사원연합회와 남가주불교사원연합회를 통해 회원 사찰 40여 곳에 전달했다. 김주일 기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정확히" 태고종 부당공제 근절 동참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12월 26일 소득세 연말정산과 관련, 각 사찰에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관계에 근거해 정확히 발급할 것을 당부했다. 태고종은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을 통한 부당공제 근절을 위한 정부 방침에 부응해 이같이 결정했다.

태고종은 기부액을 높여 기재하는 허위 영수증 작성, 백지 영수증 교부 등을 자제할 것과 아울러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을 반드시 작성해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세무관청의 요청 시 대장을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태고종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실제 기부액과 일치하는 영수증 발급 ▲발급 대장 작성 및 이를 사찰에 비치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 사본 보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각 종무원에 시달했다. 김주일 기자

전등사 지역민에 관람료 면제

강화 전등사(주지 혜경)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신분증을 소지한 강화군민에 대해서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전등사는 12월 24일 "2008년 1월 1일부터 신분증을 소지한 강화군민에 대해서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혜경 스님은 "지역 사찰로서 역할을 다하고 지역민과 호흡을 함께 하기 위하여 강화군민에 대한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연태 기자





서부전선 군포교 '이상 무!'

28사단 81연대 이웃종교 시설로 법당 확장 '눈길'

군포교는 국군 장병의 사기진작과 차세대 불자 양성 차원에서 중요성을 다들 공감한다. 하지만 인적 · 물적 자원이 따르지 못해 일선 각 부대 군법사나 포교사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날로 줄어드는 불자 수에 '군포교는 물론 교계 포교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지 않냐'는 발언까지 나오는 가운데, 서부전선 최전방 부대 한 곳에서 이웃종교 시설로 쓰이던 공간을 법당으로 확장 · 이전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28사단 81연대 2대대는 12월 23일 영내 불교 종교시설인 일심정사의 이전 개원법회 및 관음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포교국장을 역임한 용하 스님(포천 중화사 주지)이 개안법사로 참석했다. 매주 부대의 법회를 이끌던 이명락 포교사, 최영식 포교사 등 조계종 포교사단 군9팀과 부대장병 100여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일심정사가 이전한 자리는 과거 가톨릭 공소(公所)가 위치했던 곳. 천유강 병장은 "가톨릭 행사 참여자가 적어 빈 공간이 된 곳을 고태남 중령과 선홍래 주임원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전하게 됐다"며 "용하 스님과 이명락 포교사 등의 지속적인 부대 방문으로 영내 불교행사 참석자수가 늘어난 결과"라고 귀띔했다.


12월 23일 한마음으로 일심정사 개원법회를 봉행하는 용하 스님과 장병들.

점안을 마친 용하 스님은 "예전 법당은 부대 불자 전우들이 한자리에 함께 하기 어려울 정도로 협소했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법당을 이전할 수 있게 됐다"며 "부처님 말씀 열심히 듣고 실천해 사회에 나가서도 좋은 일꾼이 돼 달라"고 장병들에게 당부했다.

6년째 이 부대에서 법회를 이끌고 있는 이명락 포교사는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일요일이면 한번이라도 더 장병들과 얼굴을 맞대고 부처님 말씀을 나누고자 최선을 다해왔다. 빗물 새는 예전 법당에서 원력을 세워 오늘 불사를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일심정사 이전은 용하 스님과 이명락 포교사 뿐 아니라 부대지휘관, 장병 등이 한마음으로 정진한 결과다. 특히 천유강 병장, 양일환 병장, 최목현 상병, 김승경 일병 등 4명의 군종병들이 장병과 법사간 조율 역할을 잘했던 것도 한 이유다. 예전에 사용했던 법당 공간은 장병들을 위한 노래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서부전선 최전방에서 들려온 뿌듯한 소식은 무자년 새해 한국 불교의 힘찬 전진을 예견하는 듯하다.

연천=조동섭 기자

미륵사지 금동향로 특별展

내년 9월까지 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서 개최


익산 미륵사지출토 금동향로.

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관장 유기상)은 개관 10주년 기념으로 2000년 10월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동물 얼굴 형태의 다리 4개가 달린 보물급 '미륵사지출토 금동향로' 특별전 개막식을 12월 26일 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특별전시되는 금동향로는 높이 30.0㎝, 지름 29.7㎝, 무게 7.15㎏의 비교적 큰 크기로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원형으로 높게 솟은 뚜껑(蓋部)과 운두가 낮은 납작한 대야형의 몸체(身部), 그리고 4개의 다리로 구성된 대부(臺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뚜껑에는 연화문, 하트(心葉形), 구름(雲) 모양의 장식이 있으며, 몸체에는 사자얼굴 다리와 동물얼굴모양 장식이 부착되어 있다. 금동향로는 구리 87.5%, 주석 8.3%의 비율로 주조되었다.

향로 연판에 보이는 고식의 연판문 구조와 8세기 안압지 토기에 사용된 운당초문과 유사한 연기구멍의 문양, 균형 잡히고 세련된 기형과 중후한 다리 장식 등으로 보아 8~9세기경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발굴 유물로 전해오는 향로 가운데 이처럼 완전한 형태와 양호한 상태를 가지고 발견된 사례는 국보 제287호 백제금동대향로가 유일하다. 금동향로의 뚜껑 상단에 새겨진 8엽 연화문이 우리나라 와당(瓦當)에서 볼 수 있는 부드럽고 세련된 연화문을 그대로 살려낸 듯하며,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독창적인 금속공예의 특징을 볼 수 있어 미술사적 가치가 매우 큰 보물로 평가되고 있다.

미륵사지출토 금동향로는 2000년 1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존처리했고, 2007년 7월 30일 국가귀속과 함께 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 관리위임되었다. 특별전과 동시에 금동향로에 대한 보존처리 내용, 미술사적 연구 논문, 향로 사진 등을 담은 도록도 함께 발간했다.

특별전은 9월 30일까지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희망찬 새해 발원합니다"

부산·경남지역 사찰 신년맞이 행사 다채

2007년을 참회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행사들이 각 사찰에서 열렸다.

선찰 대본산 범어사(주지 대성)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맞이를 위한 발원 타종식을 봉행했다.

12월 31일 범어사 설법전 및 종각 등 경내에서 송년법회를 봉행하고 새해맞이 발원 타종식을 거행했다.

주지 대성 스님은 "송년법회와 제야의 종 타종식을 봉행하는 의미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며 원력을 다지기 위함이다"며 "부산의 대표적인 명승지 범어사에서 부산 시민들과 함께 새해맞이를 함으로 지역주민과의 유대감 강화 및 불교 문화를 알리는 기회"라고 밝혔다.

행사는 범어사 가족 영화제 연화관람, 송년법회, 탑돌이, 제등행렬, 타종식 순으로 진행됐다.

용두산 미타선원(주지 하림)은 2007년을 돌아보는 참회기도와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타종식을 열어 희망찬 새해를 발원했다.

또 신도들이 함께 하는 윷놀이를 통해 화합을 다지며 1월 1일 새벽 6시 부산 대청공원에서 해맞이 행사를 거행했다. 동명불원(주지 정산)과 해인정사(주지 수진)도 송년 법회를 열고 타종식을 봉행했다.

하성미 기자

'조직기증 희망릴레이' 성료

108호점 불암사서 현판식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올 한 해동안 행정자치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개한 '2007 뇌사 조직기증 희망릴레이 1000' 사업을 12월 22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마무리했다.

불암사는 이사장 일면 스님이 주석하는 사찰이어서 '생명나눔 함께하는 불암사' 108호점 현판식을 진행하며 사업의 끝을 장식하게 됐다. 조직기증 희망릴레이는 장기기증 활성화와 원활한 헌혈증 · 치료비 나눔 사업 홍보를 위해 적합한 장소 108곳을 선정, 현판식과 모금함을 비치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1호점 조계사를 시작으로 삼천사 · 법련사 등의 사찰은 물론 광동고등학교, 농협중앙회 등의 학교와 기업도 참여를 해왔다.

이사장 일면스님은 "적합한 조직을 찾지 못하거나 치료비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많다"며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강진 기자

불국사 불국성림원 '문 활짝'

물리치료·간호사실 등 다양한 복지 지원 설비 구비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주지 성타)가 1월 1일 실비노인요양시설 불국성림원 운영을 시작했다.

불국성림원은 경주 산내면에 위치, 총 24억원이 투입돼 연건평 410평 지상2층 건물로 완공됐다. 1층에는 식당 · 목욕실 · 자원봉사자실 · 의무실 · 프로그램실 등을, 2층에는 노인들이 거주하게 될 요양실과 물리치료실 · 오락실 · 간호사실 · 생활지도원실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설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입소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도록 개별상담, 촉탁의사 진료, 물리치료 등의 건강관리 시스템과 텃밭 가꾸기, 노래 및 미술교실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입소대상자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으로 1인당 월 평균 소득액이 101만3천원 이하인 가구의 노인이다. 정원은 50명이며 현재 입소자 접수를 받고 있다. (054)746-9900

김강진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 김도형씨 출소

병역법위반혐의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이던 김도형(28 · 법명 덕봉)씨가 12월 24일 가석방대상자로 선정돼 출소했다.

김씨는 불교계에서 오태양씨에 이어 두 번째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현재 김씨는 전남 장흥 고향집에서 머물며 향후 진로를 모색 중이다. 그는 우선 1월 2~5일 있을 생명평화결사에 참여한 후 강원도 양구의 대안학교 '산촌유학'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김강진 기자

"국적 달라도 佛心으로 통해요"

봉은사서 '한일 청소년 교류 템플스테이' 개최

"한국 친구들, 반가워요!"

일본 청소년 20여명이 12월 22~26일 한국을 찾았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와 아시아불교도연맹(이사장 우시오 닛슈)가 함께 여는 '한일청소년 교류 템플스테이'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12월 22일 한국에 도착, 서울 봉은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후 한국 학생 20여명과 만났다. 이후 한국 학생들과 일대일로 짝을 이뤄 홈스테이를 진행하며 한국 가정 문화를 몸으로 익혔다. 또 이들은 탁본 · 연꽃 및 염주만들기 등의 사찰 체험은 물론 고궁 견학, 코엑스 관람 등을 즐기며 한국의 전반적인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힘썼다. 여기에는 한국 학생들의 도움이 컸다.

서로 언어가 달라 초반에는 어색했지만 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니시무라 미키(16) 양은 "한국 친구들과 우리는 외모 만큼이나 취향 등이 비슷해 잘 어울릴 수 있었다"면서 "다음에는 일본에 꼭 방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재)대한불교조계종
안 국 선 원
"좋은 인연입니다"
불기 2552(2008)년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두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35-14번지(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TEL 051)583-0993 · 0994 / FAX 051)583-0999
■ 서울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0-3(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TEL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www.ahnkookzen.org

대한불교천태종
부산 삼 광 사
새 희망의 2008년에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 지 김영제
총 무 엄행주 교 무 김도진 재 무 김효성 노 전 윤덕준
신도회장 김석조 신도부회장 홍경표, 조임순
교무위원 정재위 재무위원 이종희, 부학자, 김영숙 사업위원 김석홍
기획위원 송세현 조직위원 김광호 홍보위원 우신길 섭외위원 이봉영
부녀위원 정옥순 사부대중일동 합장
■ 정기법회 : 매월(양력)1, 2일 오전 10시 ■ 가족법회 : 매월 3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금강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 2008년 2월 15일까지 접수(051-808-0713, 073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 131번지
TEL(051)808-7111~5 FAX(051)803-1332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amkwangsa.or.kr

謹賀新年 佛紀 2552年

2008년 戊子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원 각 사
주지 석대혜
간병봉사회, 교정법회 후원회, 원림회, 유적답사반,다래봉사회
신도일동
(양력 초하루 법회)
■ 경북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159
TEL 054)481-2363

대한불교조계종
관 운 사
주지 지 산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526
TEL 054)931-7777,933-0808

대한불교조계종
석 가 사
주지 경 암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97-3
TEL 053)791-8137
FAX 053)792-0784

대한불교조계종
대 승 사
주지 석 지형
신도일동
■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458-1
TEL 052)298-5865 · 6623

대한불교조계종
수 안 사
회주 세 민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38-12
TEL 02)587-4677 / FAX 02)522-5666
홈페이지 suan.honpy.com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남지장사**
주지 성 공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륵2리 865
TEL 053)768-9920

대한불교조계종
장 암 사
주지 도 명
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산 83
TEL 053)762-3800

대한불교조계종
원 만 사
원만사 부설 유치원
주지 법 홍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708
TEL 053)257-1914

대한불교조계종
대당산 **보 림 사**
주지 선 주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 山67
TEL 053)614-4526,7169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 직할 포교당
보 현 사
주지 지 열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932-35
TEL 053)431-5400

대한불교조계종
천 수 암
주지 금 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양리 177-1
TEL 053)614-9555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광덕사**
주지 운 성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90-2
TEL 053)763-0068

대한불교조계종
망 월 사
주지 동 진
사부대중일동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달서1동 421
TEL 054)972-2700

대한불교조계종
매봉산 **고 성 사**
주지 고 성
■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755
TEL 02)353-5016

대한불교조계종
화악산 적 천 사
주 지 덕 현
신도회장 변숙현
반야회장 정광심
구도회장 황중주
신도일동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리 981
TEL 054)373-0307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산 **통 천 사**
주지 선 지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3-1(아양교옆)
TEL 053)941-3503, 053)953-4481

대한불교조계종
청 수 사
주지 종 열
[부설] 청수어린이집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4동 117-36
TEL 053)741-2562
(청수어린이집) 053)753-2561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봉 경 사**
주지 아 산
대중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산 183
TEL 053)857-5686

대한불교조계종
대가야의 유일한 고찰
가야산 **반룡사 반룡선원**
주지 법 륜
신도일동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용리 187
TEL 054)954-1498

대한불교조계종
대구경북 포교사단
(전)단 장 최문성
단원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1가 113-4(3층)
TEL 053)745-4108 / FAX 053)745-4109

대한불교조계종
월 인 사
주지 포전 혜 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옥분리 605
TEL 053)767-3971

한국불교조계종
도 원 정 사
주지 혜 명
■ 대구광역시 동구 진인2동 825
TEL 053)983-3889

(사)한국미륵불교
천 용 사
주지 덕 련
■ 경북 구미시 원평 2동 176-42
TEL 054)451-7769

대한불교 범음 · 범패 교육도량
대한불교구화종 총본산
구 화 사
회주 석구화
총무 석지묵
■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응추리 산92
TEL 054)977-6454 / H·P 010-9421-9364

구미 선산 비봉산
서 황 사
대중일동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 479-2
TEL 054)481-2736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 인 중 학 교
이 사 장 장 윤
교 장 김용태
교 감 이종서
교 법 사 일 릉
법인사무국장 김영현
행정실장 이은진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800
TEL 053)764-0802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 인 고 등 학 교
이 사 장 장 윤
교 장 김태욱
교 감 양근식
교 법 사 이아용
법인사무국장 김영현
행 정 실 장 김홍석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800
TEL 053)764-0805

(주)화 동 섬 유
대표 김 태 오(利憶)
발명특허 (제0306046호 획득)제품
LIHIS 건강지압 양말,등산,스포츠
손목보호대, 일반양말, 선물용 양말
'이제 발냄새 고민끝!! 쾌적한 웰빙생활시작'
■ 대구시 남구 대명3동 2293-1
TEL 053)657-1244, 627-1244
www.lihis.co.kr / www.hwadong.co.kr

최고 연 7%의
불자님을 위한 고소득 상품…

예치기간	월지급 이율	만기지급 이율
12개월	6.40%	6.57%
24개월	6.45%	6.78%
36개월	6.50%	7.00%

불자님을 위한 불교은행
보현사 신용협동조합
■ TEL 053) 428-1133, 426-1037

(株)玖峰 · 鍍金 · 精工
ISO 9000:2000인증업체 / QS 2000-1998인증업체
代表理事 金明錫
구봉정공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 3가 620-1
TEL : 053) 351-0009, 4856 /FAX : 053) 352-1717
(주)구 봉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905-9
TEL : 053) 582-0156 / FAX : 053) 582-0157
구봉도금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100-65
TEL : 053) 581-0009, 8907 / FAX : 053) 582-4173
Hompage : www.goobong.com
E-mail : gnbong@kornet.net

謹賀新年 佛紀 2552年

2008년 戊子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태고종
불 종 사
주 지 현 진
신도회장 강순여
부 회 장 김정자
총 무 이명옥
■ 경북 경산시 신천동 355
TEL 053)802-4043

한국불교 태고종
청 룡 사
대중일동
◇ 복지불사안내
· 매월 독거노인 지원 · 어르신 무료관광
· 매주 노숙자 무료급식 · 경로위안 문화예술제 봉행
· 독거노인, 장애인 목욕봉사 · 영안실 염불기도 봉사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5동 141-16
TEL 053)656-5266

(재)선학원
용 산 사
(사회복지법인 기림원 연꽃어린이집)
주지 도명
■ 경북 청도군 청도읍 매전면 내동 822
TEL 054)372-7739

재단법인 선학원
기 원 정 사
주지 우 록
■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152-5
TEL 053)982-9329 / FAX 053)983-1698

대한불교천태종
황 해 사
주 지 용 암
신도회장 최병렬
신도대중일동
■ 경북 포항시 북구 학잠동 산 20
TEL 054)277-3611 / FAX 054)277-3644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대구도광사
주지 법성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1708-6
TEL 053)653-8583
FAX 053)656-1843
휴대폰 010-2015-7223

대한불교일붕선교종
팔공산선원사
주지 성봉
■ 경북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 185-5
TEL 054)975-6976

대한불교원효종
약 천 사
주지 덕운(운혜)
■ 울산시 북구 어물동 1236-3
TEL 052)287-6952

대한불교천부종
금 주 사
주지 화광
신도일동
■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산3리 1442
TEL 054)976-3799 (옷밭마을)

대한불교천부종
김천종무원
회주 일월
■ 경북 김천시 농소면 연명리 229-4
TEL 054)431-9641

高靈기와
(주) 高靈청기와
(고령기와는 명품기와만을 만듭니다)
KS 表示許可
중소기업우수제품 인증工場
代表理事 金段東
■ 공장 : 경북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350
TEL 054)954-8000(代)
FAX 054)954-5335
www.rooftile.co.kr
e-mail:gr@rooftile.co.kr

대승불교관음종
석 송 사
주지 법장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월호3리 838
TEL 054)636-2201

대한불교선각종
영천보현산 등명사
조 실 석정암
주 지 석혜명
신도일동
■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오동리 603-2
TEL 054)337-4572(등명사)
054)281-7712,7719(포항자명선원)

팔공산 갓바위 앞산
용 주 암
주 지 韓成鶴
사부대중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 44

대한불교 부처님세계
수 참 사
주지 영암
관음회 · 신도회 회원일동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 6동 640-5
TEL 053)561-3129

정 토 사
주지 수성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394-2
TEL 053)761-8676 / FAX 053)761-8682

금 화 사
주지 진성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919
TEL 053)616-9396

염 불 선 원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 1동 578
TEL 053)782-0120

강화선원사
주 지 성원
■ 인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692-5
TEL 032)933-8234
연요리 전문점
■ TEL 032)934-1944
한 증 막
■ TEL 933-8985
※연냉면, 연 김 외 제품 20여가지 판매

대한불교조계종 직영사찰
선 본 사 (갓바위)
무자(戊子)년 새해를 맞이하여
갓바위 성지를 찾아주시는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행복이 충만하고 아울러,

종단에서 추진하는 목적불사가 원만히 회향되고
모든 국민의 염원인 국가경제가 빠른 시일에 부흥하기를
선본사 사부대중은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사부대중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587 www.seonbonsa.org TEL 053)851-1868(선본사) / 053)851-1869(갓바위)

킴스치과병원
원 장
의학박사 김석순(담연)
대한불교조계종 제9구교 본사 동화사
신도회장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934번지 (황금사거리 옆) TEL 053)753-2875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눈길 끄는 행사

"소중한 전통문화 지키기 우리 손으로"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내 고장 문화재 지킴이' 행사

"앞으로도 불교 문화재를 많이 보고 선조들의 생활을 느끼고 싶다."(가야고1 장용운) "부산에 우리가 모르던 문화재가 숨겨져 있었다니 놀라웠다."(가야고1 이기훈) "우리 고장 문화재를 알아보는 시간이어서 뜻 깊었다."(해동중3 김소혜)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백명숙)가 주최한 내 고장 문화재 지킴이에 참석한 학생들의 소감이다. 가야고, 금정중, 해동중 등 파라미타 소속 10개교 학생들은 내 고장 문화재 지킴이 '문화돌이' '문화순이'로 내 고장 문화재 탐방에 나섰다.

'문화돌이, 문화순이'는 파라미타가 주최한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년도 가을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공모 선정사업이다.

만덕사지 당간지주, 구포왜성, 범어사, 충렬사, 동삼동 패총 등에서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한 학생들은 그동안 문화재청 카페에 참여, 정보를 공유하고 활동 보고서를 작성 ·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학생들이 슬라이드까지 만들어 작성한 보고서는 활동사진과 모니터링, 문화재 설명, 조치사항까지 알차게 구성됐다.

12월 22일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부산불교신도회 5층 법계정사에서 그동안의 활동 보고를 받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상은 동삼동 패총을 조사한 해동중학교가 수상했다.

해동중학교는 그동안 문화재청 카페의 참여도가 높고, 보고서의 자료 내용이 알차며, 문화재 지킴이 활동 횟수, 그리고 발표 태도 및 내용 구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총재 대성 스님은 "문화재 지킴이 프로그램은 한민족 정신이 깃들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우리는 종교를 떠나 민족 문화유산을 보존관리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법계정사에서 12월 22일 열린 문화재 지킴이 활동보고회 모습.

"숨겨둔 끼 마음껏 발산해요"

광주파라미타청소년협회 음악놀이 경연대회

방학을 앞둔 광주청소년들이 한바탕 축제에 빠져들었다. 12월 22일 (사)광주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주최한 '제5회 파라미타 광주청소년 음악놀이 경연대회'가 종립학교인 광주 정광고 룸비니관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오후 1시부터 예선을 통해 선발된 12개 본선팀이 2시간 남짓 뜨거운 열기 속에 실력을 겨뤘다.

대상(국가청소년위원장상), 금상(광주광역시장상), 은상(광주광역시교육감상) 등 총 6개 부문에 걸쳐 상장과 장학금이 주어졌다.

이날 경연대회의 대상은 광주지역 고등학교 연합밴드 러시(RUSH)가 차지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경연대회는 그동안 광주지역에서 가장 큰 청소년 음악놀이 경연대회로, 예선전에만 40~50개 팀이 참가할 정도로 매년 참가열풍이 대단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열린 기념식에서 행사추진위원장인 도제 스님(원각사 주지)은 인사말을 통해 "무한대로 솟아나는 청소년들의 현란한 춤사위, 아름다운 가창력, 연주 등 열린 공간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기를 바란다"며 "청소년 음악놀이 경연대회를 통해 공부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아름다운 문화의 장을 활짝 여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파라미타 광주전남지부 이동배(정광고 교법사) 사무국장은 "불교계에서 광주지역 청소년축제 중 가장 권위 있는 큰 행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광주사암연합회 및 조계종 스님들의 모임인 승보회를 비롯한 불교계가 적극적인 후원에 동참해 앞으로 청소년 포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행성 광주전남지사장



제5회 파라미타 광주청소년 음악놀이 경연대회의 열기가 뜨겁다.

음악선율에 실은 따뜻한 이웃사랑

원각사, 독거노인 후원 음악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여서인지 광주 중심가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며, 많은 연인들이 시내를 찾았다.

시내가 온통 흥겨운 잔치 분위기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행사를 하는 곳이 한 군데 있었다. 바로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다.

시내 한가운데 위치한 원각사는 다양한 포교관련행사를 펼쳐왔다. 이날 원각사가 마련한 행사는 음악회와 1일 식당. 독거노인 도시락 반찬 후원을 위한 음악회에는 원각사 무등어린이중창단과 신도회 합창단, 퓨전대금 오목대, 통기타 가수 이용호, 해유리 등이 참여했다. 지나가던 길에 들린 많은 사람들이 흥겨운 음악을 듣고 즐겼다.

도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물질이 발전하였다고 하나 전 세계적으로 기아와 질병, 자연재해 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전쟁을 통해 서로 반목하는 지금 이 시대는 성인들의 큰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며, "너와 나, 서로가 상생하는 종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원각사는 지난해 11월에 발족한 원각사 자원봉사자 모임인 원각보현봉사단(회장 묘련화)을 통해 이날 마련된 후원금으로 인근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공양할 계획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 장병에 '온정의 손길'

옥천사암련, 상근예비역 위로방문



옥천불교사암련 스님과 37사단 111연대 간부들이 상근예비역 병사의 집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37사단 111연대(연대장 최경식 대령)와 옥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철)가 상근예비역 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군 생활에 제한이 따르는 병사의 가정을 방문해 쌀, 라면, 음료, 과일, 책 등을 선물하고 즐거운 성탄이 되도록 위문했다.

혜철 스님은 "주위의 도움으로 장병들이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도록 도움의 손길을 기다린다"고 부탁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혜오대체의학자원봉사聯 감사장 받아

혜오대체의학자원봉사연합회(회장 혜오)가 12월 23일 옥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철, 대성사 주지)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혜오대체의학자원봉사연합회는 매월 2, 4주 일요일 청산면과 옥천 대성사에서 이비인후과, 법률상담, 혜오일침구, 내과, 수족일침, 치과, 운동회복등 봉사를 해오고 있다.

혜철 충청지사장

社告

원순 스님 '열강' 동영상으로

원각경 특강 CD 제작 100부 한정 보급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3주년을 맞아 불자 여러분의 공부를 돕고자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CD'를 제작 100부 한정 보급합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 문하로 출가해 세방 선원에서 수선(修禪)하고 제경전(諸經典)을 연찬한 원순 스님이 조계종 동화사 기본 선원에서 10일간 강의 한 내용을 생생한 동영상 CD에 담았습니다. 문수 보현 보안 미륵 보살 등 12보살이 열어 주는 진리의 세계, 그 환한 세상으로 가는 길, 동영상 CD로 만나는 원순 스님의 '열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분량: 총 10강 동영상 CD 20매
◆강의: 2007년 9월 16~27일(10일)
◆장소: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
◆제작: 현대불교영상사업단
◆가격: 19만원(교재 포함)
◆교재: 함허득통 주해 원순 스님 풀이 〈한글원각경〉(법공양 刊, 2만5000원)
◆구입문의: 02-2004-8200, 2004-8279.
◆입금계좌: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에이치비엠씨)

팥죽 한그릇에 담은 따뜻한 情

동지날 팥죽나누기 행사

12월 22일 동지(冬至)를 맞아 전국의 사찰과 단체들이 팥죽나누기 행사를 펼쳤다. 해마다 팥죽나누기 행사를 펼치고 있는 서울 조계사(주지 원학)는 올해 5000인분에 가까운 팥죽을 쒔다.

조계사 신도와 자원봉사자들은 오전 11시부터 지하철 종각역과 인사동 등에서 시민들에게 팥죽과 달력을 나눠줬다.

주말을 맞아 인사동을 찾은 가족들과 외국인관광객 등은 봉사자들이 나누어주는 따뜻한 팥죽을 먹으며 몸을 녹였다.

같은 시각 조계종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동지문화체험 시민한마당'을 개최하고 동지행사와 팥죽나누기를 펼쳤다. 시민들은 줄타기 공연 등의 문화마당을 관람하며 달콤한 팥죽을 즐겼다.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도 3000인분의 팥죽을 준비해 주민과 지역 복지관, 경찰서 등에 나눠줬다. 봉은사는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회향 한마당'의 일환으로 팥죽나누기 행사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서울 화계사(주지 수경)는 4000인분의 팥죽을 수유역과 인근 군법당 등에, 대구 동화사(주지 허운)는 팔공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에게, 부천 천화사(주지 월산)는 지역 관공서와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부산 삼광사는 시민들에게 팥죽을 나누며 동지의 의미를 되새겼다.

여수령 기자

법주사, 군부대에 체육품 전달

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속리산 법주사(주지 도공)는 12월 22일 육군37사단 111연대 연대장(대령 최경식)을 찾아 장병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비품구입을 하도록 200만원을 전달하고 위문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책주문은 '여시아문'

온라인 불서전문점 온라인 여시아문(www.yosiamun.com) 과 전화 주문(02-737-0695) 관리가 전문화 되었습니다. 책방 온라인 여시아문은 국내최대 불서 전문 총판 운주사와 협약을 맺어 주문과 배송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원순 스님 '열강' 동영상으로

원각경 특강 CD 제작 100부 한정 보급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3주년을 맞아 불자 여러분의 공부를 돕고자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CD'를 제작 100부 한정 보급합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 문하로 출가해 세방 선원에서 수선(修禪)하고 제경전(諸經典)을 연찬한 원순 스님이 조계종 동화사 기본 선원에서 10일간 강의 한 내용을 생생한 동영상 CD에 담았습니다. 문수 보현 보안 미륵 보살 등 12보살이 열어 주는 진리의 세계, 그 환한 세상으로 가는 길, 동영상 CD로 만나는 원순 스님의 '열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분량: 총 10강 동영상 CD 20매
◆강의: 2007년 9월 16~27일(10일)
◆장소: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
◆제작: 현대불교영상사업단
◆가격: 19만원(교재 포함)
◆교재: 함허득통 주해 원순 스님 풀이 〈한글원각경〉(법공양 刊, 2만5000원)
◆구입문의: 02-2004-8200, 2004-8279.
◆입금계좌: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에이치비엠씨)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 장 의 식 상 량 식 불 장 사 소 용 영 가 천 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소 병 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메훔족자
60 × 20cm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3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봉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벳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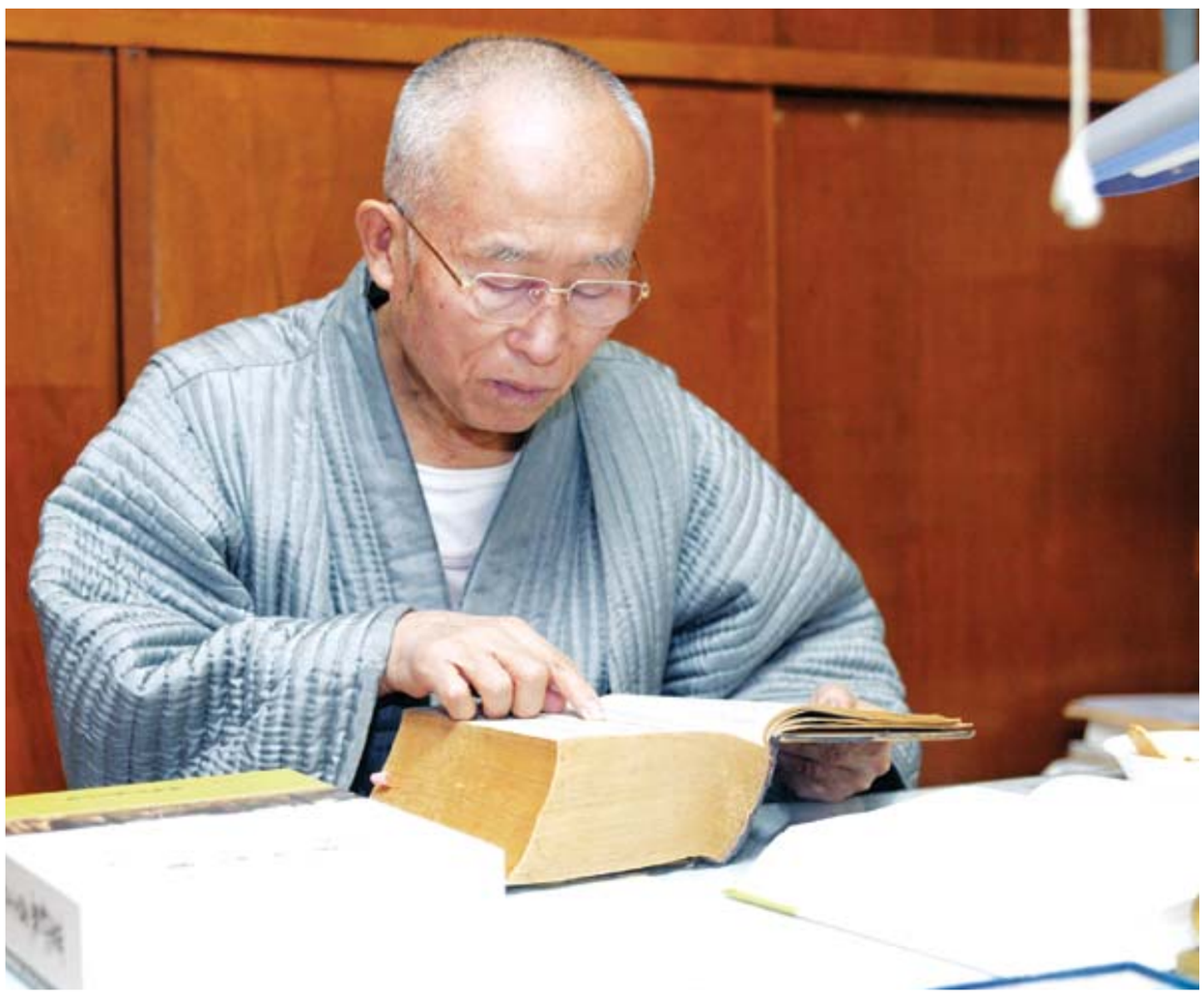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벳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은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02)2004~8212



시비를 만나면 시비를 헤치고

월운 스님 (봉선사 조실)

"새로 시작 하자."

선지식(善知識)은 '새로 시작하는 것'이 사람 사는 지혜라고 했다. 새해 새 아침에 만난 선지식, 월운(月雲) 봉선사 조실은 "날마다 새로운 자세로 새롭게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교종본찰(敎宗本刹) 봉선사 조실당에는 두 개의 현판이 걸려 있다. 원래부터 있던 현판은 다경실(茶經室)이다. '다로경권(茶爐經卷)'에서 유래한 이 말은 차를 마시며 경을 읽는다는 뜻이니 대강백(大講白)의 처소임을 알게 한다.

이 자리에는 원래 애월재(愛月齋)란 건물이 있었으나 1978년 운허 스님의 퇴로지처(退老之處)로 지은 것이다. 또 하나 근래에 걸린 현판은 '능엄대도량(能嚴大道場)'이다. 봉선사 능엄학림에서 손수 후학을 지도하는 선지식의 거처에 아주 합당한 이름이다. 조실당에 걸린 두 개의 현판은 한국불교의 역경 사업을 주도해 온 스승(운허 스님)과 제자(월운 스님)의 원력이 고스란히 배어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스스로 새로워지려는 노력 절실

"새로 시작 하자."

선지식은 다시 말했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라. 이대로 가서 무슨 발전이 있겠는가? 발전이라 말한다고 다 발전은 아니다. 모두가 뒤섞이고 왜곡되고 어지럽다. 무엇보다 지금 승(僧)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한다. 근거도 없이 그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 별별 것에 다 구색을 맞추고 산다. 실천할 수 있는 것, 실천해야 할 것만으로도 승의 살림살이가 벅찬데 너무 범위가 넓다. 근거도 없이..."

현대사회, 도심으로 내려 온 불교는 아직 그 중심을 잡지 못했다. 인터넷 시대, 휴대폰 시대 신세대들의 톡톡 튀는 감각을 따라잡기에 역부족이고 노력부족이다. 그런 가운데 불교는 사회적으로 존경의 대상으로 자리 잡기는 커녕 온갖 의혹과 질타의 눈초리를 받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선지식은 그 원인을 "스스로 새로워지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절망적이야. 이제 내일모레면 팔순의 나이를 맞을 나 같은 노인네야 절망으로 살 수밖에..." 선지식은 절망을 말하면서도 눈이 빛났다. 절망 속에서 제대로 된 희망이 피어나기 때문이다. 우리시대 최고의 강백이 절망을 말하는 것은 절망하고자 함이 아니라 희망을 길어 올리고자 함이다. 새해 아침에 희망을 말하는 선지식의 어법(語法)이 절망일 뿐. 희망도 절망도 다 잊어버린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오늘날 불교계가 바라보아야 할 양지(陽地)가 어디인가를 깨우쳐 주려는 간절함일 뿐.

역경불사 부처님 가르침 전하는 근간

"다시 시작해야 해."

선지식은 또 되풀이 했다. '홍법강원(弘法講院)'을 다시 일으키려는 봉선사의 원력은 월초 스님과 운허 스님이 교종본찰로 다져두신 면모를 계승하고자 함이다. "내세에도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고, 한국에 태어나고 싶다"고 했던 운허스님. 그 까닭은 "역경불사를 계속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한 스승의 큰 원력을 이은 선지식은 사실 강원 보다 '더 큰 것'을 원하고 있다. 2007년 10월 22일 저녁, 제주도 약천사 회주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수덕사 수좌 설정, 前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 약천사 회주 혜인, 백양사 유나 지선, 해동선원장 태응 스님 등이 둘러앉은 자리였다. 거기서 선지식은 이렇게 말했다.

"나 말이지요, 낼 모레면 팔순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좌중은 숙연했다) 그런데 이런 늙은이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것도 세 가지나 되거든요. 들어 보실래요?(좌중은 더욱 수그러들었다) 첫째는, 부처님 신장님들이 신통을 좀 부려서 말이지요. 우리나라 저 잘 나가는 재벌들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수입의 10%를 동국역경원 역경불사에 시주하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좌중은 웃었지만 이내 숙연해졌다) 두 번째는 뭔고 하니, 염라대왕이 말이지요. 그 명부에서 죽은 사람들이 오면 하나하나 면접을 해가지고, 동국역경원 역경불사 후원금 낸 영수증을 보여주는 사람은 무조건 극락으로 보내는 겁니다.(다시 좌중은 웃었지만 금방 숙연해졌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진짜배기입니다. 역경에 원력을 일으킨 사람을 한 20명 쯤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켜서 역경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공부를 했는데 적어도 내가 공부한 것이나 전해주고, 공부하는 방법이나 제대로 전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한 5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몰라요....."

자못 숙연한 공기를 깨고 설정스님이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10년 20년은 더 사셔야지요." 지선스님이 이었다. "노장님의 원력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선지식의 원력은 개인의 것도 한 종단의 것도 아니다. 국가적인 것이다. 고려대장경이 외세의 침입을 극복하려는 국가적 발원에서 조판 되었다면, 오늘날의 역경불사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전법(傳法)의 범위는 한 종교로서의 불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지혜와 우리 역사의 방향성을 아우르고 있다.

집중적인 경전 공부 시스템 필요

"지금처럼 공부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공부시켜서도 안 돼."

선지식은 이제 역경불사의 기본적인 것은 마무리 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산화 작업이 남아 있고 보다 깊은 연구를 통한 심화 과정이 남았다고 했다. 문제는 지금 조계종의 학제로는 공부를 제대로 한 승을 길러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교육체계가 한문교육을 소홀히 하는 분위기에서 사회교육을 마친 사람이 승이 되고, 그런 사람이 짧은 행자 교육을 마치고 예비승이 되어 강원(승가대)의 이력을 마치는 구조로는 깊이 있는 공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집중적인 공부가 필요하고 그를 위해 종단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중앙승가대에서 공부하는 것이 낫지. 거기는 현대사회의 흐름에 맞춰진 커리큘럼이 있으

> "
> 탐욕과 집착에 물들면
> 스스로 훌훌 털어 버리고
> 순수로 귀의하고
> 순수로 살피며 살아가야
> "



혜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출시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혜공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였기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 아 래 ◁

1	대령/관욕	17	지장불공	33	아침저녁종성
2	상주권공 지장불교의식	18	삼대화상중명불공	34	향수해례예불
3	상용영반	19	종사관욕	35	혼자서 하는 민관욕(간단한 관욕)
4	회심곡(화청)1	20	종사영반	36	생일불공
5	회심곡(화청)2	21	가사불사의식	37	상주권공48제의식 1
6	구병시식	22	신중작법39위	38	상주권공48제의식 2
7	관음시식	23	간단한 신중작업	39	상주권공48제의식 3
8	점안의식	24	전통조석예불	40	상주권공48제의식 4
9	방생의식	25	천수경/장엄염불	41	제사불공
10	사물 다루는 법	26	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42	삼신이운
11	안택	27	사시상단불공	43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 1
12	시다림	28	작법무(복청게천수)	44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 2
13	산신불공	29	작법무(시방찬소리도량게)	45	화엄시식
14	미타불공	30	작법무(욕건만다라선송다게작법)	46	약사여래불공
15	신중불공	31	작법무(향수나열사다라니)	47	교재2권 100,000원
16	관음불공	32	삼보통청		

제10기 의식대학 교육생을 모집하며, 범패 동계특별교육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간 실시합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 비디오 각 25,000원 / DVD 각 30,000원 ◆ 계좌 : 농협 641010-56-000296 (노연숙) ◆ **제품 구입처 : 종무소 ☎ 062)362-8604 / 혜공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학장 혜공 스님**

진정한 은사님처럼 기소와 범패신동의식 교육을 잘 섞어 주는 교육 장소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2008년 제 10기 신입생 및 통신생 모집

◆지원자격 : 스님, 포교사 ,교임법사, 각 종단을 초월하여 절을 이어갈 후계자 (유발자도 가능)
◆과 목 : 범패 상주권공의식, 각배의식, 교양과목
- 안채비 : 각종불공의식, 49재의식, 천도재, 신중작법의식,각종소, 낭독하는법
- 겉채비 : 바라춤,도량게작법, 다게작법(나비춤), 사물다루는법, 화청(회심곡)

◆과 정 : 2년(4학기)
◆입 학 식 : 2008년 3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통신생 출석교육 :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3시부터 ~ 다음 일요일 12시까지
◆상좌 각배교육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1학년
매주 월요일 오후3시 ~ 5시30분까지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2동 759-1 4(우 502-242)
◆학 장 : 혜공스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계좌번호 : 농 협 641010-56-000296 (예금주:노연숙)

한국불교의식대학 범패교육기간

[2008년 1월 9일 ~ 1월 12일 3박 4일]

• 교육시간 : **오전 9시부터 ~ 오후 6시까지(오전시간 : 강의, 오후시간 : 실기교육위주)**
- 1월 9일 오후 2시 : 입회식 후 시련절차 실기, 대령관욕 보소청진언, 화청(회심곡), 원아계교육
저녁시간 : 사물 다루는 법 - 북, 태령, 목탁, 요령
- 1월 10일 8시 30분 : 점안의식, 가사이운식(짓소리녹음), 화청(회심곡), 낙성식하는 법, 법종불사 의식하는 법
- 1월 11일 8시 30분 : 상주권공, 지장불공, 관음시식, 상용영반, 상축하는법, 창흥의식하는 법, 부도 제막식하는 법, 삼재기도하는 법
- 1월 12일 8시 30분 : 용왕불공 및 방생의식법, 소창불, 39위 신중작법, 종사영반 종사관욕, 큰불사시 관음에 법하는법

• 준 비 물 : **가사장삼, 필기도구 일반불자 - 평상시 복장, 필기도구, 소형녹음기**

호랑이를 만나면 때려 눕혀라

니까. 그런 체제에서 공부하는 사람과 집중적으로 깊이 공부하는 사람이 구분되어야 해. 인력을 기르는 시스템은 아주 분명해야 해." 선지식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으로 태어나 승이 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승이 된 사람이 다시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라 했다.

승이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 사람들이 다니기 어려운 길목에 초막을 짓고 수행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주고 재워 주는 공덕을 베푸는 것이 승의 살림살이라는 것이다. 공부의 과정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은 명리를 구하는 공부를 하지만 승은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 역경불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익숙한 언어와 문자로 진리의 원음을 전하는 일이다. 선지식은 그 일에 매진했던 스승의 뜻을 이어 한 평생을 역경불사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주변 사람부터 편하게하라

"싹 망하고, 새로 시작돼야 해."

선지식은 또 다시 말했다. 권력을 노리고 별별 짓을 다하는 사람, 자신의 본분사를 잊고 날뛰는 사람들이 싹 망하고 정말로 순수한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세상이 와야 한다는 것이다. 선지식은 "그런 세상은 자기를 살피는 일에서 비롯된다"고 강조 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신을 가다듬고 '관세음보살' 하고 점심 밥 먹기 전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관세음보살', 저녁에 잠들기 전에 '관세음보살'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루 세 번씩만 지극한 마음으로 불보살에게 귀의하며 자신을 다잡으면 스스로 '나는 제대로 된 불자인가?' '나는 부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하며 자신을 살피게 된다는 게 선지식의 가르침이다. 바르게 귀의하는 사람은 가르침을 바르게 받들고 살 수 있다. 스스로 탐욕과 집착에 물들면 그 자리에서 탐착으로 망해버리고(탐착을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 순수해 지라는 것이다. 순수로 귀의하고 순수로 살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선지식은 "부처님과 나 자신을 묶어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님은 정각을 얻은 후 "일체 중생이 다 부처건만 망상 집착 때문에 부처인줄 모르고 있어 딱하도다. 내 방편으로 스스로 건져 내어 스스로 부처임을 알게 하리라"고 했다. 중생에서 부처로 가는 길, 거기에는 스스로 부처임을 아는 것과 부처가 되려고 애쓰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 이를 두고 선지식은 "내 문제는 내가 해결 한다는 의지가 필요하고 주변 사람을 편하게 해 주는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야구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가서 주루(走壘)를 요령껏 해야 하듯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슬기롭게 알아서 행동하라는 비유도 덧붙였다.

맑은 물 더럽히는 물고기는 누구냐?

"신훈본분(新薰本分)을 잘 쓰는 지혜가 필요해."

선지식은 교리(敎理)와 선리(禪理)를 아우르는 지혜를 기르라고 말했다. 예로부터 선은 부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의 말씀이라 했다. 2006년 가을, 교종 본찰 봉선사는 '10대 강백 초청 경전대법회'를 10주간 봉행했었다. 그 회상에서 10명의 강백들은 교를 떠난 불교가 있을 수 없고 교에 의지하여 얼마든지 깨우침을 얻을 수 있음을 설파했다.

선지식은 '신훈본분'이란 용어(用語)의 뜻을 몰라 쩔쩔매는 기자에게 "신훈본분은 본래 가진 밑천을 새로 손질해 만드는 것"이라 풀어주었다. 흙탕물이 있다고 하자. 흙탕물은 본래 맑은 물과 흙 알갱이가 섞여 혼탁해진 상태다. 본래 맑은 물은 우리의 자성이니 본분이다. 현재 흐린 물은 변화에 의한 뒤섞임이니 번뇌 망상이다. 이를 가라앉히는 노력이 참선이고 간경이다. 본분만 믿고 방치하면 무책임해 질수 있고 신훈에 끌리면 속임수에 얽혀 든다. 이게 중생의 삶이다.

선지식은 본래 맑은 물을 더럽히는 물고기를 한 마리씩(혹은 수 십 마리씩) 기르는 중생들을 위해 "중생이 본래 부처인데 왜 중생이 되었는가를 살피라. 살피고 또 살피면 벗어나는 길이 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매사에 적극 대처하는 용맹심 길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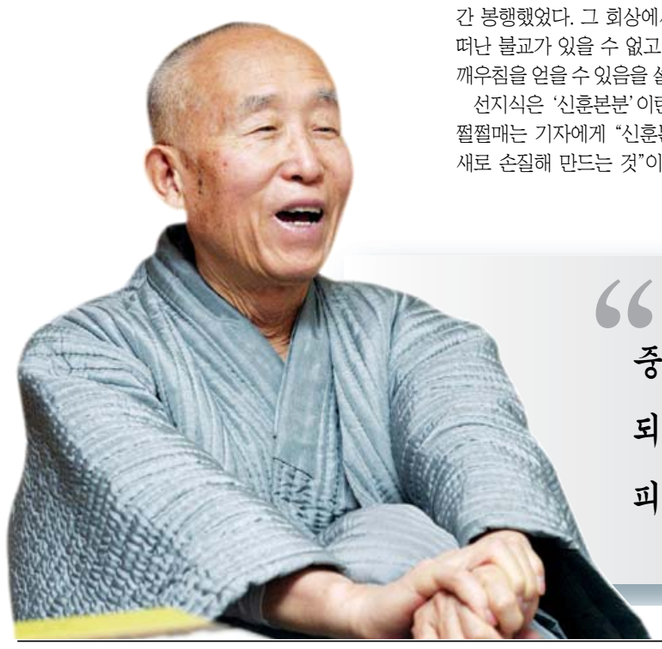
시비해리(是非海裏) 횡신입(橫身入)
표호휘중(豹虎彙中) 자재행(自在行)

선지식의 방에 걸린 액자에 스승 운허 스님이 써 주신 글이 담겨 있다. '시비의 바다에 몸을 던지고 들어가서 포범과 호랑이가 득실거리는 가운데서 걸림 없이 행동하라'는 뜻이다. "스승께서 내 기질을 잘 보셨던가 봐. 내가 좀 싸움꾼 기질이 있거든. 이 봉선사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랬고. 시비는 피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범이 있다고 몸을 숨겨도 그 공포가 사라지지 않는다. 시비에 닥치면 시비를 헤치고 살고, 범을 만나면 범을 때려눕히고 살아야 해. 미혹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매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용맹심이 없으면 안돼." 스승의 유지를 풀이해 준 선지식은 호탕하게 웃어 보였다.

이 세상은 참으로 시비의 바다이고 표범과 호랑이가 득실대는 곳이다. 여기서 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사람,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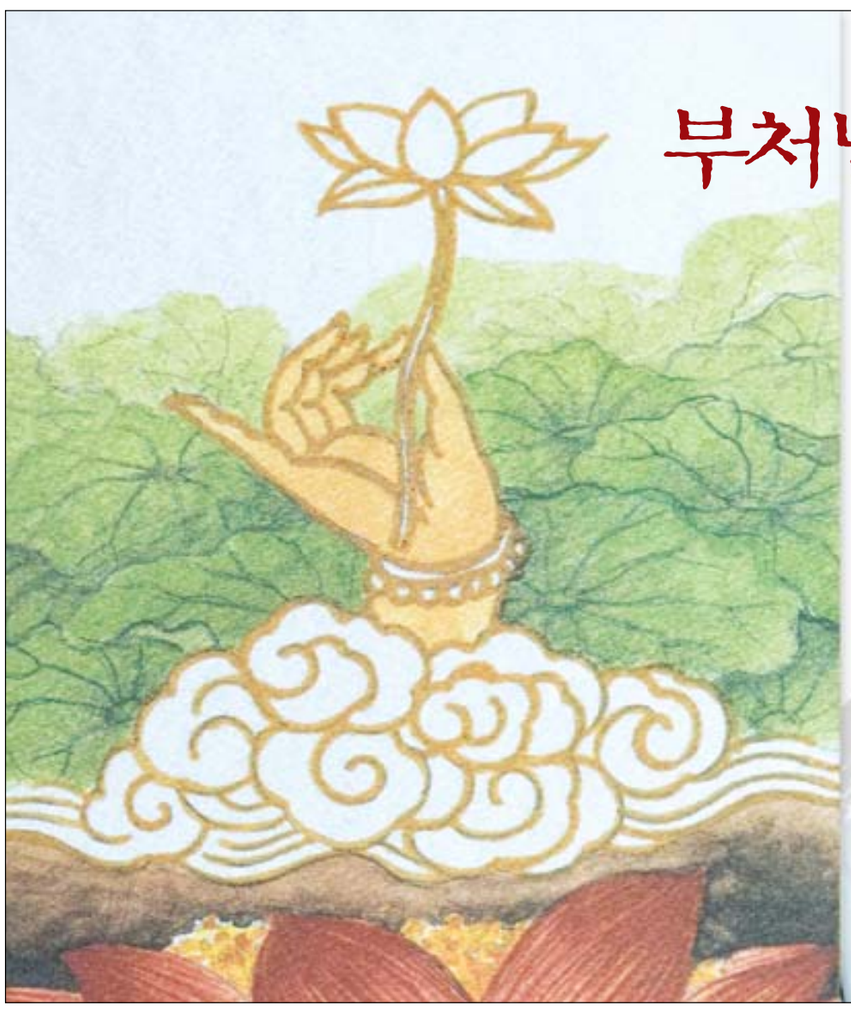
새해 새 아침에 만난 선지식은 무한한 자비로 길을 열어 주었지만 아둔한 중생은 또다시 시비의 바다, 득실거리는 범의 무리 속으로 돌아와야 했다.

글=임연태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 "중생이 본래 부처인데 왜 중생이 되었는가를 살피라. 살피고 또 살피면 벗어나는 길이 보일 것이다"





부처님 성도절 대법회 불자화합 대축제

일 시 | 불기 2552년 1월 15일(음 12월 8일) 오후 2시(화요일)
장 소 |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정심화홀
법 사 | 금아 혜국 큰스님(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찬조출연 | 불교연합합창단, 추민수벨리댄스, LMB불교혼성 싱어즈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대전비구니 청림회
후 원 | 동학사승가대학, 백제불교문화대학, 대전시청불자회
충남도청불자회, 대전 5개 구청 불자회, 경찰불자회
운전불자연합회 대전지회, (사)대한불교금강종
현대불교신문사 충청지사, 불교신문 대전지부
연 락 처 | 용화사 041)541-1505, 011-405-1506


금아 혜국 큰스님(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B10면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수련이 편안하고 회복이 간편한
선관단식
www.zenfast.com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055)834-1115
016-849-3858

부산 선(禪)문화원
제 1기생 모집
선묵화, 참선공부,
체계적인 지도
범주스님 직접지도함
051)518-5900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아넷)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영가 천도 전문 도량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 개인지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역학 - 전반
(30년 노하우 전수)
교통사고 장애를 입어
승려생활불가
042)272-5786
011-9429-5786

역학, 전생요법
전생퇴행,빙의천도
개인지도, 직접상담
031)842-8023
011-772-4606
서울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비룡정사 제행스님

(명예)종교철학박사학위취득
- 학위 : 미국 종합대학교
- 자격 : 스님, 목사님, 종교인
- 서류 : 1. 이력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사진 4매

상담전화 : 080-048-0048

女 사무원 구함
PC 가능자
▷조계종 사찰
(서울 우이동)
011-9087-6287

오래계실 부전스님 모십니다
051)256-3483

조용한 암자에서 수행 기도하면서 남은 여생 보내실 비구니스님, 행자 모십니다
041)567-508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농사가 가능한 부부도 가능)
031)335-2576
011-270-267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65세)
▷보시금 상담후 결정
010-3188-510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김포
010-9469-6625

부전스님 2분 모십니다
대구시 동구 봉무동 196번지 개원사
053)981-0664
053)981-0995
016-515-0664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창원
011-879-2544

가족처럼 지내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팔공산 은해사 근처도량)
공양주방, 욕실완비
011-508-1467

부전(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02)387-3216
011-9782-321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칠곡
011-9394-0016

산세수려한 도량입니다 기도 공부 요양하실분 모십니다
▷경남 합천 청강사
055)932-5706
016-9506-570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1-9214-0509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010-4634-720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작은암자에서 수행하면서 기거하실분
(부산지역)
011-853-6427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만세력 통달, 양력)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통화 중일때는 02-574-3427) 핸드폰 011-498-5067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본인은 역학 및 49재, 천도재, 각종불교의식,
서화, 의술 등등에 능통한 법랍 30여년, 세수 50대
초반의 청정비구로서 신행상담을 해드리고,
천도재를 집전하며 사찰운영을 도울수 있는
여법한도량을 인연하고 싶습니다
011-854-8107

조계종 깨끗한 내원암에서 비구노승은
나이를 먹고 쉬고자하여 평생을 이절을 운영관
리할 인연있는 지계청정하고 신심있는
30~50대의 참신한 비구니스님을 찾고 있음
소백산 지장보궁 내원암
054)653-1180 (경북)

휴양공간안내
"도량 내에 마련된 생활공간에서 함께 머무실 인연"
◇자연과 더불어 휴양하실 분.
◇학업에 진력 또는 창작활동 중인 분.
◇편안한 노후생활을 원하시는 어르신
◆문의처 : 한국불교 태고종 율림원 신도회
031)867-1801, 010-6255-6648
인터넷 네이버 검색창에 '율림원'을 치시고 참고하세요

易) 정통 命理學 (學
四柱 비법완성
命理를 완성코져 하는 분
전문가를 위한 學堂
命理學의 모든것
정통교재-명리학 비전
명리학 비결
四柱 비법완성 교재(책)
각권, 삼만원
明陽 命理學堂
인천 032)330-4684 / 032)503-4684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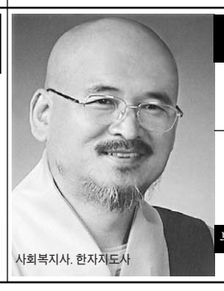
역학공부
- 사주초급 : 월요일 18:30
- 전문가 과정 : 금요일 18:30
이선종 교수

주역, 풍수금낭경, 마의상법
수요일 18:00 수강생 무료수강,
원장 전용원 박사 직강

인터넷 동영상 강의 : www.kbs.cc (사주 전과정 완성까지 45만원)
풍수,관상,육효,자미두수,수상 / 수료증 자격증, 졸업생 재택근무가능
한국역학협회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출구 (02)2264-0258

28숙과 풍수지리 특별지도
- 대상 : 승려에 한하며 1:1로 개인지도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인모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당 앞 송광정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연령 : 50세이하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시스템
- 행자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 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2007년 1학년 경전반 편입생 모집 - 반야심경, 금강경
- 회주 우학스님 특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2008학년도
신입생(대안·위탁)모집

고등과정 (학력인정)
- 3년제 : 중학교 졸업자
- 2년제 : 성인 단기 졸업과정 (불교음악, 불교미술 전공)
  - 학령기를 놓치신 20세 이상 주부 및 기타
  - 중도 포기 학생 (전 · 편입) 가능

중등과정
- 청소년, 일반 : 2년 단기과정

▶ 기숙사 생활 가능 ◀
모집기간 : 2007. 12월 ~ 2008. 1월 한함
모집인원 : 00명
입학원서 : 홈페이지 '입학자료실' 에 탑재

문의 · 상담 : 055)583-6300
010-7770-9290 (행정실)
위치 : 경남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 1124번지 (미륵사 내)
홈페이지 www.yeun.sc.kr
학력인정 연꽃자유고등학교장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육임 수강생 모집
육임 기초에서 백법 까지 실전에
임할수 있도록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사람에 일을 판단하는데는
옛부터 육임이 제일이라 했습니다.
720 국수에 담긴 비술만 터득하면
어떠한 점사도 가능한것이
육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함께
학문을 배우실분들을 원합니다.
◆ 직강수강료 : 100만원


처음할땐 = 문서 시험은 후에는 길로된다
가정을 잘다스리고 화합하세요
그래도 가정이 제일입니다 나를 구해주고
의지할 곳은 가정입니다

육임 동영상 CD판매 판매가 100만원
거리가 멀어서 직강을 들을수 없는 분들은 동영상 CD와 교제로 육임을 공부하실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하실 수 없어도 ID와 비밀번호만 치시면 고화질의 동영상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공부는 직강과 동일 합니다.

720 국수 CD 판매 판매가 100만원
육임에 진수인 "초사(왜 왔는가?, 하고자 하는 일은 될까 안될까?)"를 그날에 시간만으로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알수 있는 육임만에 비법을 그날 시간만 택하여 국수만 찾으면 모든 점사가 명확히 수록된 CD입니다.
육임에 용어와 시간간택법, 보는 요령등을 CD에 담아 같이 보내드리며 직강이 가능한 분들은 4회 수강권을 같이드립니다.

※직강신청+육임동영상+720국수CD 구매시 특별가(200만원) 적용

공념학당
■ 상담문의 : 02)793-7333 ■ 홈페이지 : www.saju79.com
■ 사 무 실 : 서울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 (예금주 : 박옥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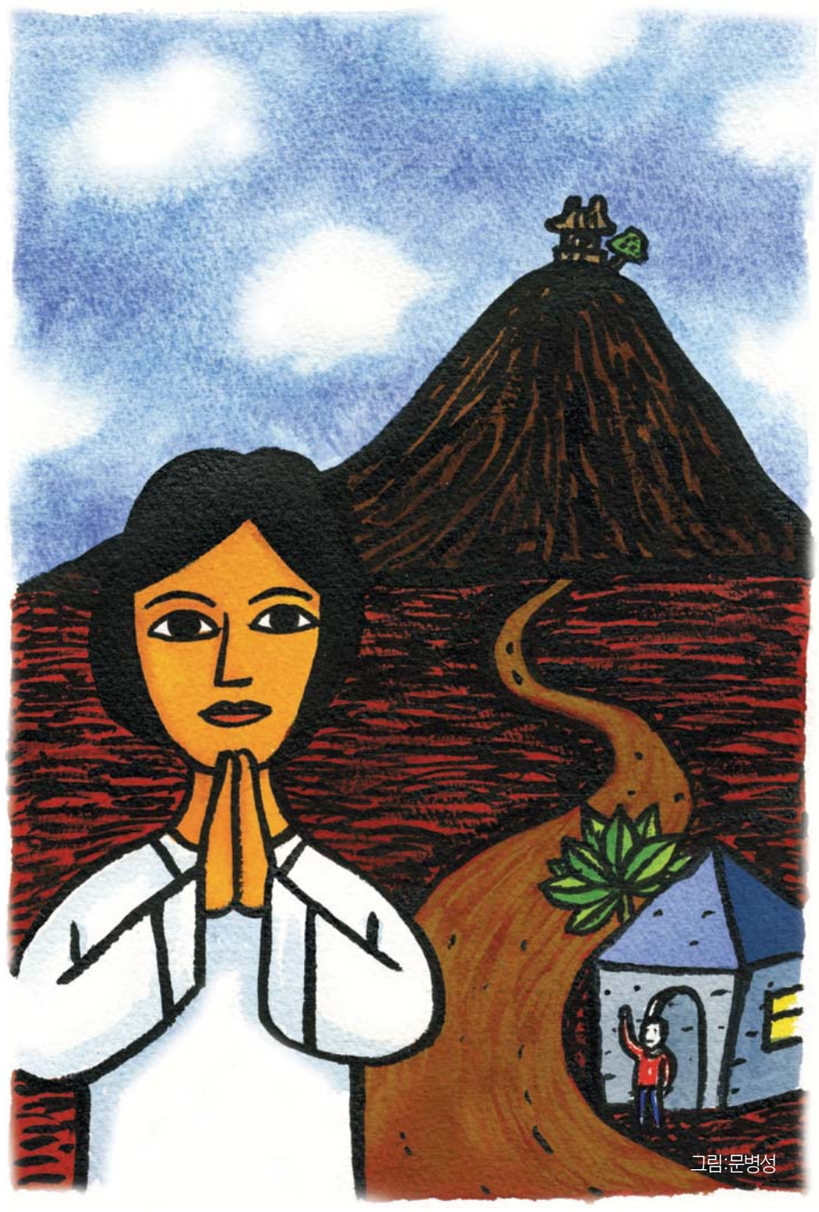
특별상 수상作

나의 삶을 지탱해준 부처님과의 인연

서울 마포구 망원동 주보문심(63세)

제 13회 신행수기 당선작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상(특별상)–주보문심 '나의삶을 지탱해준 부처님과의 인연'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특별상)–서용철 '시비회 가을수련법회'


그림:문병성

천주교 신자에서 결혼 후 불교로 개종
집안 몰락 등 좌절 새벽기도 통해 극복
"마음공부에 푹 빠져 사니 너무 행복해요"

지심귀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매일 새벽 불교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새벽예불 소리에 맞춰 향을 사르고,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다듬는다. 어느새 내 마음은 30여 년 전 부산 한 산사의 새벽예불을 떠올리며 아련한 그리움의 감회에 젖는다.

불교에 귀의하고, 2년 후부터 시작한 새벽예불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새벽 적막 속에서 울려 퍼지는 장엄한 염불소리는 나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벅찬 감동과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다. 이렇게 시작된 나의 새벽기도는 2년이 넘게 지속되었다. 예불 후 1시간 동안 드리는 관음기도는 주지스님께서 꼭 주관하셨다. 나는 기도 정진으로 차츰 신묘한 불법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원래 나는 천주교 신자였다. 처녀시절 천주교 신자가 되기 위해 새벽 교리반을 다니며 공부를 하고, 직장에 출근을 했다. 어렵게 영세를 받고, 청년회에 가입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나는 시댁이 불교집안이어서 관면혼배로 혼배성사를 했다. 결혼 몇 년 후 이웃사람이 한 집에 두 종교가 있으면 집안이 잘 안 된다는 말을 내게 했다. 그 말을 듣고 상심하던 중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고혈압으로 돌아가셨다. 내게 항상 미안해하던 남편은 다시 성당에 나가라고 권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께서 다니시던 절에서는 가끔 엽서가 왔다. 내가 어머니 대신 절의 행사에 참석했다. 어머니께서 오래 다니신 절의 행사에 불참하는 건 불효하는 것 같았다. 1년 동안 절에 가면 법당에서 절하고 공양하고 오는 게 전부였다. 나는 혼자 "불교가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닐 텐데…"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나의 고민을 안 친정 고모님이 대각사로 데리고 갔다. 대각사는 내가 다니던 성당과 불과 몇 백m 거리에 있었다. 법당에서 예불을 드릴 때면, 성당에서 울려오는 종소리가 온통 내 마음을 휘젓곤 했다. 그럴수록 나는 불교를 알려고 노력했고, 큰스님께서는 초심자들이 알아야할 모든 것을 잘 가르쳐 주셨다. 불교신문도 구독하고 불교 서적도 읽으면서 차츰 불교에 심취해 갔다.

'보문심'이란 불명도 받고, 어린이법회에 남매를 보내 불심을 닦게 했다. 남편의 사업도 날로 번창했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몇 년 후 남편이 친구에게 보증을 선 것이 잘못되어 우리가족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처지가 되었다. 몇 번이나 이혼하려고 했다. 그때 이웃 보살님이 새벽 관음기도를 권해서 다니게 된 것이 나의 신심을 더욱 돈독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그 즈음 양산 통도사에서 보살계 법회가 있다고 보살계를 받으라고 공양주 보살님이 일러 주셨다. 나는 보살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통도사 가는 버스를 탔다. 사흘간 <범망경> 법문을 다 듣고, 계를 받았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곳을 합장하고 돌면서 참 불자가 될 것을 부처님께 발원했다. 이 보살계 수계식에서 들은 <범망경> 법문은 그 후 나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다.

서울로 이사를 온 나는 도선사를 찾았다. 그곳은 청담 스님께서 주석하신 곳이었다. 그 즈음 나는 <마음>이라는 청담 스님의 구도집을 읽고 있었기에 감격스러웠다. 도선사를 원찰로 나의 신앙생활은 계속되었다. 경전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다. 부산에서 <금강경> 3개월 배운 것이 전부였다. 1년 후 나는 <법화경>을 배울 수 있는 인연을 만났다. 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법회가 있는 날이면 오전 장사만 하고 오후에 시작되는 법회에 참석하여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경청했다. 점심도 못 먹고 참석할 때가 많았지만, 이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다. 공부가 깊어지면서, 내가 천주교를 믿으면서 항상 의문을 가졌던 문제도 깨닫게 되었다. 불교의 '인과법'이 바로 그것이었다. 고해성사를 보고난 후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죄라는 것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없어진다면, 사람들은 자꾸 죄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까?"하는 회의를 느꼈었다. 나는 자신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법화행자로서의 행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나보다. 매일 집에서 <법화경> 독송하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렇게 <법화경> 공부를 6년쯤 했을 때 내게 또 시련이 닥쳤다. 어떤 불사를 돕다가 서로 오해가 생겨, 나는 더 이상 <법화경> 공부를 못하게 된 것이다. 그 충격으로 나는 모든 생활의 의욕을 잃고 두문불출하였다.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이 일로 인해 나는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을 친견하는 인연을 갖게 됐다. 선실에서 큰스님을 친견하는 자리에서 "큰스님을 뵙고 마음공부를 하고 싶습니다"했다. "너는 내가 여기 있는 줄 몰랐더냐"하시면서 큰스님 구도집과 법문 테이프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셨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렇게 가슴을 짓누르던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내 마음은 말 할 수 없는 편안함과 방금 뵙고 나온 큰스님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집에 와서도 밤에 잠들 때까지 큰스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다. 마음은 너무나 행복했다.

큰스님의 구도집과 법문테이프를 들으면서 나의 새로운 마음공부가 시작되었다. 그 동안의 <법화경> 공부가 바탕이 되어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기고 관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었다. 그렇게 수행을 하던 몇 달 후 선원을 가려는데 남편이 같이 가자고 했다. 전철 타는 시간만 1시간 30분. 남편은 놀라워했다. 이렇게 먼 곳을 사흘이 멀다하고 다녔느냐고.

그렇게 남편도 큰스님 법문을 듣고 발심하여 법형제 회원이 되었다. 법형제 회원들의 따뜻한 배려 속에 남편의 마음공부도 점점 깊어졌다. 남편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다"면서 각박한 사회에서 나누는 인간관계에서보다 새로 느끼는 종교생활에서 도반들의 훈훈한 인간미에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예전에 중단된 불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시 참여했다. 그 불사는 불교복지재단을 만들기 위한 지역개발 사업이었다. 처음에 반대하던 남편도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여 투자를 했다. 그러나 사업은 몇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 중단되고, 지루한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다. 우리 부부는 너무나 절망했다.

우리 가정은 그 때부터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시작되었다. 남편은 그 일로 인해 폭음하는 날이 늘어갔고, 나를 원망했다. 급기야 후두암 2기말이라는 진단이 나와 급히 수술을 받았다. 남편의 외로운 투병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불법을 만나 마음공부를 한 남편은 마음을 돌려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매일매일 좌선을 하며 주인공에 모든 것을 관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좌선하고 있던 중 비몽사몽간에 꽃비가 내리더니 화관을 쓴 관세음보살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나타나시고, 잠시 후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목에서 무엇을 떼면서 "아직 갈 때가 안 됐군"하면서 사라졌다고 했다. 차츰 목소리가 나오고 점점 몸이 회복되어 5년 후에는 완치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 사업이 중단된 후유증으로 그동안 하고 있던 가게도 처분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이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내 신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비록 그전같이 선원에는 못갔지만, <금강경> <천수경>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을 게을리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주인공에 맡겼다. 언젠가 이 역경에서 벗어날 것이라 굳게 믿었다.

점심시간 후 휴식시간에는 근처에 있는 절의 법당에서 부처님께 참회하며 하루속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스스로 위안하며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불교방송 다보원에서 진행한 '100일 법문' 법회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100분 큰스님들의 훌륭한 법문을 듣고, 나 자신이 한층 더 성숙한 느낌이 든다.

나는 요즘 매일 새벽 5시 불교방송의 새벽예불 기도를 시작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경전공부 시간에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경전공부를 마음껏 하고 있다. 백팔참회문을 시작으로 <법화경> <금강경> <원각경> 게송, 신묘장구대다라니 21독을 매일 독송한다. 매주 금요일 서울 다보원에서 하는 '신묘장구대다라니 49독' 기도 정진도 빠지지 않는다.

나는 가끔 법당에 앉아 살아온 지난날들을 돌아보며 "내가 불법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어떠했을까"하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을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에 비유하면서 내 자신에 엄격하게 살았다. 나를 불법에 눈뜨게 한 여러 스승님들. 그분들 중에는 나에게 너무나 힘든 시련을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불교의 인연법을 잘 알기에 모두 다 내 탓으로 생각한다. 그런 큰 시련들이 있었기에 더욱 돈독한 불자로 거듭날 수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한다. 부천님의 무한한 가피력에 항상 감사하며 더욱더 열심히 수행하여 전생과 금생의 모든 업을 소멸하고 내생에는 좀 더 나은 삶을 받을 것을 발원하며, 오늘도 나 자신을 채찍질 한다. 마하반야바라밀!

심사평

"꾸준히 정진하는 모습 담아야"

예년에 비해 응모 편수도 적었고, 내용도 수준이 떨어져 부득이 특별상 2편만을 뽑았다. 다행스러운 것은 가작 2편 모두 기복불교에 안주하지 않고 부처님을 예경 찬탄하면서 자기를 찾기 위해 꾸준히 정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나의 삶을 지탱해준 부처님과의 인연'은 불교로 개종한 뒤 타종교를 믿으면서 가졌던 의문을 풀고, 비불교적인 신행현장을 비판하면서 마음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을 그렸다. '시비회 가을수련법회'의 경우 사찰참배기 속에 몸이 불편한 아내와의 사랑, 그리고 전법원력을 잔잔하게 그렸다.

그러나 2편 모두 대상 또는 우수상으로 뽑기에는 감동성과 문장구성력 등이 부족했다. '현대불교'가 창간 1주년부터 실시해 온 신행수기는 회를 거듭하면서 기복에서 벗어나는 발전적 모습을 보여 왔는데, 올해 좀 부진해 아쉽다. 내년을 기대해 본다.

최정희 현대불교신문 前 편집국장

세계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돌침대, 흙침대 전문기업
(주)장수구들 이 만든
www.geubooki.co.kr
한글도메인 | 거북이표건강침대,장수구들
장수하는 거북이
옥돌침대
흙 침 대
'불기 2551년, 불자님 성불하십시오.' - 불자기업이 만듭니다.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이나 따뜻한 아랫목을 그리워하시는 스님이나 부모님께 건강침대를 선물하세요

흙침대
거북이표



서울본사전시장
412-2574~5(代)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97-2 (구송파사거리)
▶ 지하철 8호선 송파역1번출구 잠실방향100M 우측

하남물류전시장
(02) 3402-2520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하훼단지맞은편
▶서하남입구사거리 오금동 화훼단지맞은편

전국무료배송
(도서지역제외/배송비별도)
본사에서 직접 소비자님께 배송해 드립니다.

강릉점 (033) 651-5223
대구점 (053) 586-0202
제주점 (064) 743-2366
취급점 및 대리점모집 02)487-1097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현대불교 buddhanews.com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위치 : 제주도
●법당 : 30평
●요사 : 60평
●부지 : 700평
●가액 : 2억7천

●위치 : 서울외곽도시
●법당 : 30평
●요사 : 80평
●부지 : 620평
●가액 : 43억(대금분할 지급가능)

●위치 : 경북
●법당 : 35평
●명부전 : 25평
●요사 : 70평
●부지 : 4,500평
●가액 : 15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안내

임법당안내 (30년생)
● 위치 : 부산 범일동
● 평수 : 120평(시유지)
건물 스라브 약30평(등기필)
● 법당 : 12평 ● 요사 방 3칸
● 주방 및 욕실 최신시설
● 정남향 전망 최고 뒷산 접
● 가액 : 9500억원

● 위치 : 남쪽 바닷가 진해
● 부지 : 1500평(주거지역)
● 법당 : 목조 43평(3포 5포)
● 지장전 30평, 요사채40평, 산신각5평
● 공양간45평, 대종각, 사무동(2층) 40평
● 버스진입 가능, 뒤편에 산세 아주 좋음
● 정남향. 탁트인 바다전망
● 전통 사찰 최고의 도량
● 가액 : 15억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근교 낙동강이 보이는 사찰 터 28,000평(당 1만원) "급"

사 찰 안 내

●위치 : 부산
●부지 : 7천평
●법당 : 30평
●요사 : 30평
●가액 : 39억
*도심부근큰가람가능 (법당+대지300평)9억

●위치 : 기장 월내
●대지 : 1,000평
●법당 : 45평
●요사 : 50평
●가액 : 18억
*교통좋은 근교 신축사찰

●위치 : 청송 보현산
●부지 : 1,400평
●법당 : 25평
●요사 : 20평
●가액 : 7억
*기가막힌 계곡, 버스진입

부산 영남지방 풍수전문사찰컨설팅(양도 양수 하실 스님 상담환영,절대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cafe.daum.net/dongmuen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세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 평수 : 1,200평
● 법당 : 전통사찰형식(내9포, 외5포), 경내석굴있음
● 요사 판넬건물 3동
● 국도2분거리, 산속 고속도로 5분거리
● 답사 후 가격결정
● 산세 좋고, 교통편리함
● 가액 : 9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9220-4305

사찰 · 사찰터 전문안내

(대구 · 경북권)
011-528-8255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 평수 : 108평(건물 3층 전체사용) 옥상 사용가능
● 법당 : 삼존불, 약사불, 후불탱화, 약사관음탱화, 신중탱화, 지장호신불 78불, 각 에어컨 2대
● 스님 서재방, 종무실, 대중공양실, 방사 2칸, 후원 5평
● 각 방마다 전기판넬 설비
● 시설 무 모두 A급
● 현재 불교대학 운영중
● 시설비 5천만원, 보증금 절충가능
010-2039-5288

사 찰 안 내

● 위치 : 노원구 상계역 부근(4호선)
● 평수 : 34평
● 2층 법당, 주지실
3층 방3,주방,세면실
● 보증금 11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3천 5백만원
011-888-0130

사찰(급)안내

● 위치 :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의정부 경계)
● 평수 : 430평(2층 건물)
● 1층 : 종무실, 주지실,
공양실, 방5 / 2층 : 대웅전
● 별채 43평 건물
위패당 및 영단
● 가액 : 12억5천만원(절충가능)
010-9757-7245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시내 앞산 자락
● 대지 : 150평 ● 법당 : 20평
요사채 : 20평, 벌채 : 20평
● 삼존불 모셔져 있음
● 가액 : 5억 5천
대구시내.근교사찰(터)
● 위치 : 2억 5천부터 20억
평수 금액 다양
● 사찰전문가와 친절상담
019-534-7239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일산
● 평수 : 총60평, 법당 35평
● 특징 : 연등 500개,
영가등 250개, 인등200개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90만원(조절가능)
시설비 : 1,000만원
031)911-9897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시내
● 평수 : 종교용지 438평
법당 8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칠성각
● 조계종 비구니 암자로
아직 등록하지 않은 개인사찰
● 가액 : 2억 3천만원
011-9581-604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시흥시 정왕동
최고 중심지 상권
● 시설완비
● 법당, 주방, 방2
철학하시는 스님 적합
● 전세 4500만원
가액 : 1억원
010-4527-4849

포교원안내

● 위치 : 정릉 4동 북한산 입구
● 평수 : 4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11-9281-5474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 주위 부림시장, 창동상가,
어시장, 상가 밀집지역
● 불사 관계상 급 안내함
● 법당 2층 약 40평
● 주지실, 공양주실, 방2, 창고1
● 사찰운영 시설일체 양도함
● 보증금 5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최저가) 1500만원
● 명리학을 겸한 스님, 불사성취함
055)221-3358

암 자 안 내

● 위치: 경기 안성시 죽산면
● 대지 160평, 실사용평수 200평
● 1층 적조슬라브, 요사채 겸
살림집 30평
2층 조립식 법당 25평
삼존불 영가단 후불탱화 일절
● 가액:1억 5천 5백만원
(은행융자 2천 2백만원 포함)
● 비구니스님에게 적합
010-9484-7622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남산동
● 평수 : 50평
● 도시가스사용,
시설완비(시설최상급)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 스님 개인사정으로 급안내
016-271-254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평수 970평
● 법당 25평, 요사채 3채(방4)
●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비구니스님 기도처 명당
● 가액 : 2억3천만원
010-3138-4897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강남 논현동
(2호선) 2번출구
● 평수 : 30평
● 2층 법당, 영가단, 거실,
주지실, 공양간, 세면실
● 보증금 2천만원, 월150만원
시설비 1600만원
(꼭 필요하신분 절충가능)
011-545-506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남원
● 부지 3200평, 법당 30평
(목조), 산신각 10평(목조)
● 납골 200기 시설
(100기 미분양),
● 요사완비,
지장대불, 사리탑 완비
● 가액 : 1억 9천만원
010-9115-6831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 법당 1, 큰방 1, 작은방 2
일반주택 독채
● 보증금 3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 1300만원
● 철학 및 무속인 자리
가액절충가능
011-9528-0159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엄마손백화점 앞 2층 60평
● 주차완비
● 방2, 주방1, 에어컨 3대
● 삼불, 산신탱화, 신중탱화
● 보증금 5천만원,
관리비 포함 월 220만원
시설비 5천만원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010-3088-3133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경남 남해
● 평수 : 대지 176평,
밭 790평
● 건물 시골 촌집 폐가
전기수도 차량진입 할 수 있음
● 산세 좋고 경관수려
● 가액 : 1억 3천 500만원
011-594-1526

토 굴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도동
(팔공 IC 3분 거리)
● 단독 독립주택 임법당
● 법당, 방, 주방, 화장실
총 30평
● 가액 : 5천만원
016-813-740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감전동
3층 45평 최요지
● 삼존불, 약사, 천수천안
소불, 108불, 각단탱화
● 시설완벽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10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51)322-2727
010-3007-523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제주시 외도 1동
부영2단지. 2천세대 대단지 앞
● 굿당으로 최적지
● 법당 15평, 요사완비
● 주차공간 300평 및
채소밭으로 활용가능
시설비품 집세 합 950만원
017-393-1127

토 굴 안 내

● 위치 : 성주군 대가면
대천리
● 347㎡(약107평)
● 비구니에게 적합
● 가액 : 1,900만원
053)942-3478

구합니다

사찰 월세나
전세 구합니다
010-7700-76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 법당1, 요사채1, 기도처1
● 대지 : 약 150평
주차장 약 150평
● 산 3600평, 밭 1000평
● 가액 : 1억 3천(싯가)
상담 후 절충가능
010-8981-5954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중구 신당5동
3층건물중 3층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 1500만원
● 집기일체완비, 즉시법회가능
역학하실분 최적지
019-634-3069

30년 서울도심 포교당

● 서울 중심에서 30여년을
포교에만 전념해 왔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부득이 인연을 찾습니다
● 4층 건물의 3-4층 (각 60평)
● 시설 최고 (진신사리 봉안)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7339-8688

임법당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 부지 : 90평, 건평10평
시설비 없음. 즉시법회가능
● 가액 : 4500만원
010-9275-5600

사 찰 중 개

● 위치 : 경기
● 부지 : 1,000평
● 법당 : 35평 목조
● 요사 : 30평
● 가액 : 9억

● 위치 : 동해시
● 대지 : 90평(200평)
● 법당 : 22평
● 요사 : 30평
● 가액 : 9천(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납골공원 내 있는 절
● 법당 15평 ● 삼존불, 시설일체
● 몸만오시면 됩니다
● 전세 1500만원
● 법사님,보살님, 역학하시는분환영
● 60세 이상 연락바랍니다
018-427-2256
063)543-5551

사 찰 안 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서울에서 1시간 30분소요
● 1만여평 부지,전각10여동,
30억 이상의 가치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010-6304-5998

사 찰 안 내

● 경남 고성군 고성읍내
● 평수 : 약 250평
● 대웅전 25평, 삼성각 6평
● 요사 30평, 주지실 종무소 6평
● 전세 4천만원, 월 30만원
● 사찰규모 완벽함
055)342-6341
011-864-669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왜관 낙동강변 동향
● 부지 : 800평, 공유지 500 여평 활용
● 법당 : 목조단청 10평, 임법당 35평
● 요사 : 24평(2층), 부속건물 40여평
● 교통 : 왜관 10분, 대구 30분 거리
● 특징 : 강변고절처로 기도처 최고
● 용도 : 도시인근 포교도량 최적지
● 용처 : 평탄하여 노후생활 최적지
● 환경 : 경관도 좋고 도로포장 완료
● 가액 : 3억 2천 5백만원
● 사진 : 사찰넷에 첨부파일 있음
010-4600-0408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지사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 동 지 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충북 / 충남	혜철스님	043)732-5560 / 011-9422-8453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김해 / 마산 / 거제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광주 / 전남지역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전북지역	조 동 제	063)910-5199 / 011-9642-7733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울산지사	울산 / 경주	서 병 수	052)272-0909 / 011-862-5282
경남 남부지사	남해/고성/사천/함양/진주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제660호 현대불교
2008년 1월 1일(음력 11월 23일) 화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주인공에다 모든걸 맡긴다면 일체가 무너진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모두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여기 동참해 주신 그 선후에 대해서는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습니다. 이 안양시의 귀빈 여러분께서 오신 것도 회장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년 소녀 가장 돕기라고 했지만 가장 돕기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억겁을 거치면서 미생물에서부터 수없이,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면서 진화되고 화해서 인간까지 이렇게 왔고, 인간이 돼서도 또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면서 헤아릴 수 없는 광년을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게 내 부모고 어떤 게 내 부모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며, 어떤 것이 내 자식이 아니고 어떤 것이 내 자식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평소에도 모두를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또 내 한도량으로서 내 몸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요, 또는 자(子)와 부(父)가 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불교(佛敎)가 어떠한 것인가? 불(佛)이라는 것은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교(敎)란 우리가 못났든 잘났든 이 세상에 나서 배우고 느끼고 아는 것을 말하는데, 또 물리가 터져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화문명을 발전시키는 여건이 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도 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란 진리인 것이지 어디 한 군데 국한된 종교가 아닙니다. 이 우주와 더불어 삼라만상 자체, 만물만생이 전부 직결돼 있고 가설이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몸속에 있는 생명들도 내가 마음 쓰는 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 종교, 내 종교 하고 싸울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들이 물 바깥으로 나오면 죽듯이, 인간도 공기주머니 속에서 한 발짝도 에누리 없고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그 공기주머니가 버스라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오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네 걸상 내 걸상 하고 싸우고, 네 걸상이 옳으니 내 걸상이 옳으니 하고 싸우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게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머리 깎은 사람이나 목탁 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일체가 다 만물이 다, 같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면서 이심전심으로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도 새 한 마리도 통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나와서 볼 때에 시급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만이 그 광대한 진리, 불교라는 그 언어 없는 언어를 성실히 실천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못났든 잘났든 이 세상에 났다면 우리가 바로 '불(佛)'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이 상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있음으로써 상대가 있고 부처님도 계시고 부모도 있고 가정도 있는 것인데 '나'는 버리고, '나'는 생각지도 않고 항상 이름과 형상에만 매달려서 모두 밖으로 찾으면서 기도한다면 아무리 보기는 좋고 멋은 있을지언정 참자기는 발견을 못할 겁니다.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도 몸속에 헤아릴 수 없는 생명과 의식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억겁 전으로부터 우리가 진화돼서 형성됐다는 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몸이라고요. 그 속에 천차만별의 모습들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까? 그런데 몸속에 있는 그 모습들 중의 하나가 만약에 큰 물체로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축소돼서 모두 여러분의 몸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인과성 업보성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 이 다섯 가지로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둔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과로서 나의 몸에 모두 주둔이 돼서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서 생각난다고 해서 생각되는 대로 '내 마음에서 나오지.' 이렇게 생각은 마세요. 그거는 의식 속에서, 그 다섯 가지의 의식 속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의 심봉이라는 선장은 바로 불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자아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여러 이름이 많습니다마는 그 선장은 바로 움죽거리지도 않으면서 중심에 끼워져 있는 심봉과 같은 겁니다. 수레 중심에 끼워져 있는 그 중심축입니다. 그걸 주장자라고도 합니다. 그 심봉은 힘을 배출해 줄 뿐이지 부동한 것인데 바퀴가 모두 거기에 의지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 자체가 수레라고 본다면 우리 부처님 자체, 근본이 바로 그 심봉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시공이 없이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가고 오는 거 만나는 거 먹는 거 싸는 거 자는 거, 일거수일투족이 모두가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정되게 하는 게 하나라도 있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다, 내가 들었다, 내가 망했다, 내가 잘되게 했다, 이렇게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이 소립니다. 어떤 거 할 때에, 어떤 거 볼 때에 내가 봤다고 하며 내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도 본다면 때에 따라서 "여보!" 하면 남편이 되고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되고 "얘, 아무개야!" 부르면 바로 아들이 되고…, 이렇게 잘나잘나 나투어서 돌아가듯이 인생살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니라. 그 공마저도 공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불교라는 이 자체가 광대하고 어마어마해서 말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 말로는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고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수없는 진화를 해 왔습니다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바로 자기 모습, 자기 차원이 주어지곤 하죠. 인생이라는 것이 망망대해에 배 띄워 놓은 거와 같고, 살얼음판을 딛고 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어떡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고 물에 빠질 수가 있고 어떡하다 보면 배가 뒤집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배로 비유했고 몸뚱이 속의 생명들을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마음들이 의식적으로 모두 한 심봉의 선장으로다가 합쳐 주지 않는다면 배는 뒤집히게 돼 있죠. 한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체 만물만생 중에 무정물이든 식물이든 간에 뿌리 없이 사는 싹은 하나도 못 봤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도 영원한 자기 선장의 뿌리가 있는데도 그 선장을 믿지 않고 타의에서 자기 자신을 구한다면 백 년 만 년이 가도 자기를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어떠한 마음을 쓸 때에 내가 올바로 했느냐, 어떠한 마음을 쓸 때에 내가 했느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 그 자체도 천차만별로 하는 사이 없이 나갑니다. 고정됨이 없어서 하는 사이 없이 하고, 가고 오는 사이 없이 가고 오고, 보는 사이 없이 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했다' 하는 생각도, '내가 안 했다' 하는 생각도 그냥 묵묵히 놓고 가라는 겁니다. 바로 자기 몸뚱이, 생명의 집합소가 하는 게 아니라 생명 속에 그 생명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 주인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주인을 바로 부처라고도 하고 자기 주인공이라고도 합니다. 타의에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자의에, 나로부터 세상은 있는 겁니다. 사대 성인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라. 너를 알아야 하나로 돌아가는 이 우주의 섭류도 다 알 수 있느니라. 너를 모른다면 어떻게 남을 알 수 있으며 우주의 섭류를 알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마음이 묘하고 광대한 것을 여러분은 모르고 착각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신도님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좋다. 일거수일투족 들어오고 나가는 거, 내고 들이는 거, 그것을 하는 놈이 누구냐? 네가 하지 않느냐. 바로 네가 한다면 네가 어떤 거 할 때 너라고 할 수 없으니 바로 주인공이다. 그러니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긴다면 일체가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고등 동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불가에서는 오신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심안으로 보는 거, 마음의 귀로 듣는 거,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거, 남의 마음을 아는 사이 없이 아는 거, 자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는 거, 그래서 숙명통 천이통 천안통 신족통 타심통, 이 다섯 가지를 오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것이 말입니다, 시쳇말로 다섯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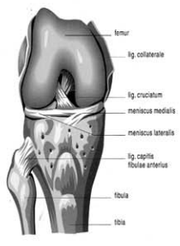
☞14면으로 계속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1004-중-1788호 〈광고〉

퇴행성 류마티스 –
관절염 한방(韓方)치료한다.

중정한의원 왕 원장은 통상관절염이란 관절의 염증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마찰되어 뼈의 기형화를 일으키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시킨다. 왕 원장은 "한방 치료를 통하여 관절염의 고질인 통증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한다."

◆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다른가?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나이가 듦에 따라 피부가 주름지고 머리가 쇠고 동맥경화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절 안의 연골(소위 말하는 물렁뼈)에 주름이 지거나 닳아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성의 이상으로 올 수 있는 병으로써 나이에 관계없이 아이에서부터 나이 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느 연령에서든지 발생 할 수가 있으며 퇴행성 관절염은 40대 이후 50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주로 침범하는 관절 부위가 서로 조금씩 다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발가락, 손목, 무릎, 발목 같은 관절에 많이 오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 끝마디, 무릎 혹은 발목, 척추 그중에서도 요추 같은 체중이 실리는 즉 몸무게가 많이 실리는 관절에 주로 나타난다고 왕 원장은 말한다.

◆ 관절염 통증 치료한다.


중정한의원 원장 한의학박사 (경희대 외래교수)

관절염은 그 정도에 따라 경증(輕症), 중증(中症), 중증(重症)으로 나뉘며 초기관절염은 가벼운 통증을 느끼는 정도이고 중기에는 관절 주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은 심해지고 통증이 시작되면2일~3일간 지속된다. 말기에는 통증이 극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어려움을 느끼며 최악의 경우 관절 모양 자체의 변형이 유발되기도 한다. 왕 중권 한의학박사는"한방 관절염 치료를 통하여 진행 속도와 상관없이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밤에 고통 없이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 관절의 상태를 되돌리는 데는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의 경우 1~2개월의 한방치료로 가능하며 중증(中症),중증(重症)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3~6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중정한의원
상담문의 080-521-6666

근·하·신·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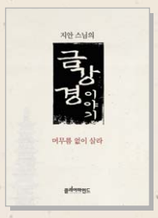
불기 2552(2008)년 새날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클리어마인드 · 현대북스 대표 오세룡(석담)
임직원 일동

2007년에 독자들이 사랑을 주신 책 –


「간화정로」
월암 스님


「염불선」
덕산 스님


「금강경이야기」
지안 스님


「좋은만남 멋진이별」
자광 스님


「문없는 문, 빗장을 열다」
김성우 엮음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주)지오비스 | 도서출판 클리어마인드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 두산위브파빌리온 736호
T.02)2195-5151 F.02)2198-5153
gobs108@hanmail.net

현대북스
현대북스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 1가 7번지
T.051)244-1251 F.051)244-1241
hdbooks21@hanmail.net

내가 했다 안 했다 하는 생각도 그냥 묵묵히 놓고 가라!

☞13면에서 계속

지가 갖추어진 컴퓨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고 가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가는 그 자체가 입력이 되어서 입력된 것이 현실로 나오는 겁니다. 어저께도 과거고 일 초 전도 과거입니다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있는 것이 현실에 모두 나오니까 말입니다. 컴퓨터에 입력이 되면 그대로 현실로 나오죠? 그런 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에다 놔라 하는 것은 뭐냐? 그 입력된 것이 나오는 자리에다 되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만이 과거의 모든 유전성 업보성, 그 다섯 가지가 없어질 수 있고 또한 거기는 팔자 운명도 붙지 않는 자리다 이겁니다. 바로 입력된 게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말로 하든 상식으로 하든 지식으로 하든 어떠한 걸로 해도 그거는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다가 다시 입력을 해야만이 그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아니라면, 타의에서 구해서는 자기가 깨달을 수 없느니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말 하죠. 여섯 가지 대신 못해 주는 게 있습니다. 밥 먹는 거 똥 누는 거 자는 거 아픈 거 죽는 거 깨닫는 거, 이 여섯 가지를 누구도 대신 못해 줍니다. 대신 못해 주는 이 자체가 바로 '인생은 홀로 와서 홀로 간다. 그런데 가는 곳이 있느냐? 바로, 가는 곳도 그 자리요 오는 것도 그 자리요 사는 것도 그 자리!'란 말입니다.

만약에 과거가 있다고, 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 초 전에 과거였는데 현실로 오느라고 과거라고 했습니다. 현실로 오기 위한 방편에 의해서 과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인해서 현재로 오려면 그 사이가 미래죠. 그러니까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란 얘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도 공했느니라." 하셨습니다. 공했다는 그 말을,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란 말을 아까 얘기해 드렸죠.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서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고 그런 가운데에 있느니라. 이 줄이 말입니다, 전력을 가져오려면 이쪽 줄과 저쪽 줄이 한데 합쳐져야 하고 그래서 불이 들어올 뿐입니다. 어느 누가 "스님, 참 이런 공부를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너의 줄과 내 줄이 한데 합쳐져서 불이 들어올 뿐이지 네가 한 것도 내가 한 것도 바로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 지금 과학이 발전됐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터지지 않는 이상 진짜 실천할 수 있는 과학을 연구 못할 겁니다. 무(無)의 세계, 정신세계 50%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의학계도 그렇습니다. 50%를 모른다면 그 반만 가지고는 사람을 100%로 건질 수가 없습니다. 모두 살고 있는 것도 99%지 100%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죽는 것도 건지는 거요 살리는 것도 건지는 겁니다. 헐었던 옷을 벗어 버리게 하고 진화해서 다시 새 옷을 입게 되니까 그것도 건지는 겁니다. 건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도 모습도 가져올 수 있고, 어느 집에 인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로 자기 인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미지를 끝까지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세세생생에 주어진다고 봅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세생생 주어지는 것이니까, 세세생생 창살 없는 감옥에서 헤매고 돌게 될는지 어떨지는 자기의 소관입니다, 모두.

우리가 지금 잘 알아야 할 문제는, 소년 소녀 가장 돕기라고 하지마는 이 외에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한생각의 보시가 있습니다. 이 한생각의 보시라는 것은 자기 몸같이 생각하고 자기 아픔같이 생각하고, 자기 부모같이 생각하고 자기 자식같이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현재의 부모만 부모가 아니고 현재의 자식만 자식이 아닙니다. 수억겁을 거치면서 그렇게 해 왔는데 어느 때의 내가 인생으로 출현됐을 때에 나라고 하겠습니까? 내 부모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저,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을 봐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스스로 생겨야 되는 거죠? 억지로는 못하죠. 내 우물 안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다를 보시란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주머니 속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인생살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은 광대하고 무변하고 묘하니까 네 마음이 그 공기주머니를 뛰어넘어라, 그러면 자유권을 얻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지금 이 몸뚱이 속에 있는 생명들의 집이 되죠? 이 집이 무너지면 안 되죠? 이 집은 안의 생명들을 보호하고, 안의 생명들은 작용을 해서 이 몸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 씀씀이대로 바로 속에 통신이 돼서, 대뇌로 통신이 돼서 소뇌를 거쳐서 중뇌로, 중뇌에서 책정을 내려서 사대로 통신이 됩니다. 사대로 통신이 되면 거기에서 공장마다 바로 부족한 거를 메우면서 다 이렇게 튼튼하게 이끌어 갑니다. 이 대뇌로 통신이 안 되면 책정을 내릴 수가 없어서 몸속에서 작용들을 못하죠. (이마를 짚어 보이시며) 여기가 명령서인데요. 그러니까 의학도 심성의학이 돼야 하고 문화 문명을 잘 이끌어 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심성이 트여져야 된단 얘깁니다.

>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라!
> 너를 알아야
> 하나로 돌아가는
> 이 우주의 섭류도 다 알 수 있느니라!
>
> 너를 모른다면
> 어떻게 남을 알 수 있으며
> 우주의 섭류를 알 수 있겠느냐!

마음은 창살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몸은 놔두고 지금 댁들의 집을 다녀와 보세요. 멀든지 가깝든지 말입니다. 자기 회사를 갔다 오려고 해도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채 갔다 오실 수 있어요. 어디에 뭐가 놓이고 어디에 뭐가 놓인 것까지도 다 알고 있죠? 그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 통 안에서, 즉 육통 안에서 벗어난다면 누진에서 자유권을 얻어서 마음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육통에서 벗어나야 바로 이 속에 있는 천차만별의 의식들을 보살로, 천백억화신으로 화하게 해서 응신으로서 나투게 한다."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시쳇말로 한다면 '분자로 화해서 입자로 모두가 나툰다.' 이 소리와 똑같은 얘깁니다. 그래서 입자로 나투어서 그 입자가 또 원자가 되고 이렇게 하듯이 말입니다.

길게는 얘기 못하겠어서 짧게나마 그냥 건둥건둥 해 나가는 겁니다.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몸속에서 움죽거리는 것과 우주의 섭류와 인간살이의 섭류가 다, 천지인이 움죽거리는 것도 모두가 일치합니다. 불법승이라고 하는 그 자리도 바로, 내가 생각이 없을 때는 부처요 생각을 냈을 때는 법신이요 움죽거렸을 때는 화신, 보현신이란 얘깁니다. 부처님의 마음 하나가 그렇게 광대해요. 부처님의 마음 하나가 깨달은 마음 하나라면 바로 부처님의 마음으로서 이름이 지어진 아촉이 있고 아미타가 있고 미륵이 있고, 또는 칠성부처가 있고 지장이 있고 관세음보살이 있고 용신이 있고 지신이 있고, 매사에 아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이름 해서 보살이라고 했지마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대로 지금 현실에서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남을 알며 남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 하나가 그렇게 귀중합니다. 마음 하나를 이렇게 생각하느냐 저렇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위치가 주어집니다. 자기 위치가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위치도 주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의 주인공은 다 똑같습니다. 근본, 생명의 근본,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불을 켜면 거기도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가설만 됐다면. 그래 자식과 부모, 형제가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가설입니다, 무의 가설. 이 모두가 그렇게 연결이 돼서 우리가 이 지구라는 도량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도량이라 하면 우주 법계, 과거 현재 미래, 삼라만상을 다 한꺼번에 한도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시급하다는 게 뭔가? 우리의 마음을, 정신계를 모르기 때문에, 지구라는 우리의 집, 공기주머니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들이 차원이 높아지지 못해서 지구에서 에너지가 부족하다 해도 그 에너지를 끌어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못된단 얘깁니다. 이 허공에도 모든 생명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끌어 쓸 수 있다는 사실은 부처님께서 여러분한테 벌써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대로 이 자리에서…, 삼천 년 전도 그대로 이 자립니다. 후도 없고 전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가정을 지켜 나가고 우리 사회를 지켜 나가는 데도 이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도리를 확고부동하게 알고 내 마음이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벗어나는 마음이라야 체가 없는 데는 체가 없는 대로 용무를 하고, 용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데서 작용하는 거를 용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작용도 할 수 있고 보이는 데서 작용도 할 수 있고 이래야만이 이게 평등하게 해 나갈 수 있는,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된단 얘깁니다.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볼 때에, 전 세계로 봐도 그렇지마는 더더욱 한 가정과 같은 우리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 중에서도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들 해 보셨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독교나 가톨릭교 불교, 모두가 타의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나도 전자에 천주교에 입교를 해서 좀 다녀 봤습니다마는, 자기가 잘못해 놓고서는 고해성사를 한다는 게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떨까 저런 건 어떨까 하고 발걸음을 걷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됐습니다마는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타의에서 구한다면 내 어머니 못났다고 잘난 딴 어머니 찾는 거와 똑같습니다. 못났든지 잘났든지 자기가 자기 몸을 움죽거리게 하고 가게 하고 오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만나게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억겁 동안 진화를 시켜서 형성시켰고요. 지금도 형성시켜서 이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참자기를 못마땅해하고 자기 심봉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아서 자기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면 그거는 손해도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손해죠.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오든지 불교인이 오든지 다 똑같이 대답해 줍니다. 내가 대답하는 거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다 더불어 같이 한 거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기 주님은 자기 주처에 있는 것이지 딴 데, 타의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제 나무에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려보내고 또 태양력이나 공기력을 흡수해서 내려보내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익이 있고 공덕이 있는 거지 어떻게 이 뿌리가 저 뿌리를 믿습니까? 이 뿌리가 저 뿌리를 믿어서 에너지가 온다면 어유,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진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지식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나무가 네 뿌리를 믿어서 푸르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걸랑 제 나무에서 익혀라. 제 나무에서 익는다면 그 무르익은 과실의 맛은 일체 만물만생이 다 먹고도 되남느니라." 과실 하나 가지고도 말입니다. 그거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종자 하나를 심어서 그 종자가 한 나무에 얼마나 많이 열립니까. 열리면 다들 먹이고도 그 종자는 되남죠? 끝간 데 없이 먹이고도 되남죠?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6년 1월 21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전통따주기지도사 강좌(1박 2일) 안내

한국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 월 1회 기본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합니다.
-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따주기 활용
-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 학생 포교(고교생, 대학생 등)
- 따주기 사회봉사 및 포교
- 전통따주기지도사로 활동
- 생활속 비상따주기로 활용(풍, 급체, 기절, 경기 등)

강좌세부 내용

가. 1일차(09:00 ~ 22:00)
- 우주의 기운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공해)
-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 5행으로 본 인체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신비한 비장따주기
- 병 예방 비법

나. 2일차(09:00 ~ 13:00)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수치의 비법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수상 보감, 내 · 외 궁합 비법
- 작명 비법
- 종합, 질의 및 답변, 수료증 수여

강좌 일정 및 장소 (선착순 각 16명)
- **강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직강(교수, 공학박사)
- **일정**

☞ **충남청양교육장 : 2008. 1. 12(토) ~ 1. 13(일)**
〈금요일 오후 도착가능〉
40만원(순황토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제공)

☞ **부산교육장(부산평생교육원) :**
2008. 1. 26(토) ~ 1. 27(일)
35만원(숙식제외,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제공)

◇ 준비물 : 필기구, 편한 운동복(츄리닝)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謹賀新年 佛紀 2552年

2008년 戊子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 9교구

운 문 사
운문 승가대학
운문 승가대학원

회 주 명 성
주 지 진 성

대중일동

www.unmunsa.or.kr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TEL 054)372-8800, 370-7100
FAX 054)371-0359

대한불교조계종

원각사 해동선원

선원장 태 응

사부대중일동

경남 산천군 금서면 평촌리 540-5
TEL 055)973-9554
banyob@naver.com

대한불교조계종

용 연 사

회 주 지 성
주 지 상 원

신도일동

대구지하철 대곡역에서 달성 5번버스가
사찰(용연사) 경유 노선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많은 관람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882
TEL 053)616-8846

대한불교조계종
각원사 울산포교원

연 화 사
호계불교대학

주 지 덕 륜

호계불교대학
재학생 일동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68-6
TEL 052)293-5550
FAX 052)293-5540

대한불교조계종

대해사 국제선원

선원장 혜 여

사부대중일동

http://www.daehaesa.org

경북 경산시 대동 160-6
TEL 053)818-4055
FAX 053)294-0408

대한불교조계종

송 림 사

주 지 성 덕

대중일동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91-6
TEL 053)616-8846
FAX 054)976-6802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종무원장 김법운(칠곡 동명사)
부 원 장 민 덕(안동 유일사)
총무국장 권혜공(안동 연봉사)
재무국장 이혜융(경산 불종사)
사회국장(주재기자)
서지산(김천 월정사)
서무과장 류지화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간2리 265
TEL 053)857-4339
FAX 053)857-0206

정법 대승불교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상 원 사

총무원장 석 고림
(사단법인:문공부등록단체)

경주 상주시 낙동면 상촌1리 산112-2호
TEL 054)534-3268
H·P 011-9935-2947

대한불교원효종

대구교구종무원

종무원장 불은사 서응
종무국장 동안사 운봉
교무국장 미륵암 보현
재무국장 정현사 진율
사회국장 기원사 두철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519-6
TEL 053)584-9149
FAX 053)586-0078
H·P 011-525-1717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대구교구종무원

종무원장 석 담
총무국장 무 상
재무국장 지 현
홍보국장 고 봉
감 사 도 정
대구교구종회장 지 언

회원종도 일동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249-11
TEL 053)854-1417

대한불교천태종

울릉 해 도 사

주 지 정비룡
신도회장 박봉식

남양 성 인 사

신도회장 도영국 外
신도일동

태 하 삼 도 사

신도회장 김도근 外
신도일동

경북 울릉읍 도동 584-6
TEL 054)791-2471

대한불교 천태종

대 성 사

주 지 김도산
총 무 서덕재

신도회장 김우영

• 부 설
동해유치원 053)652-5760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홈페이지 www.daesungsa.or.kr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TEL 053)624-0542
FAX 053)623-0265

합동석물(주)

석재가공 석공사
전문건설업체

대 표 탁희열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TEL 054)955-8200~1

지산치과의원

원 장 송준기

「가족같은 병원, 환자 중심의 병원」

- 지산치과의원 원장
- 치의학 박사
(임플란트, 보철학 전공)
- 단국치대 임상교수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 2동 1188-2
TEL 053)782-0022
FAX 053)782-2875

한국(영남)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3월 동시모집

◆ **가장 거창하고 가장 실속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화요일 저녁반,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 주1회 공부
▷학력, 연령 제한없음
▷會主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입학하시는 분들께 새법요집,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구큰절	053)474-8228
경산도량	053)816-8228
칠곡도량	053)313-8228
구미도량	054)443-8228

※ 행자(예비스님)모집 - 문의 ☎ 010-2488-8228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謹賀新年 佛紀 2552年

2008년 戊子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계율청정조계종 삼화불교

〈 본 종단은 청정계율의 율종이며 대한불교조계종 선종과는 별개의 종단임 〉

◆ **원 로 원 장** : 법종 ◆ **원 로 원** : 성민, 혜일, 혜정, 법종, 백공, 천광, 일봉, 해남, 혜경
◆ **부 종 정** : 혜일 ◆ **종 회 의 장** : 정봉
◆ **중앙율원장** : 성민 ◆ **중앙선원장** : 도일

◆ 감찰원장 : 상산 교육원장 : 일봉 포교원장 : 정오 호계원장 : 대풍
감찰부장 : 지오 교육부장 : 봉선 포교부장 : 정산 호법부장 : 태산
감찰국장 : 지호 교육부장 : 봉선 포교국장 : 묵헌 규정부장 : 월성
호법국장 : 다정
규정국장 : 영산

◆ 총무원장 : 혜인 부 원 장 : 지운 기획실장 : 정금옥(불이성)
총무부장 : 동산 총무국장 : 도업 총무과장 : 조 일
재무부장 : 법정 재무국장 : 대도 조사과장 : 문희만
교무부장 : 월곡 교무국장 : 진묵
사회부장 : 자명 사회국장 : 도홍
문화부장 : 지우 문화국장 : 효천
비구니부장 : 중비 비구니국장 : 법련, 덕산

⊙ **총림**
- 삼화총림 **백화사**
- 부산총림 **흥국사**
- 경남총림 **백천사**
- 강원총림 **조주선관**

⊙ **종단 법인**
- 학교법인 : **삼화학원**
- 사단법인 :
① **본국검도 협회**
② **천지무예도 협회**
③ **행복한 사회**
- 의료법인 : **효성**
- 재단법인 : **가평 그린 공원**
- 사회복지법인 : **정향**

⊙ **삼화불교신문사**
사 장 : **백공**
발행인 : **혜인**
이 사 : **정오, 동산, 혜원, 정산, 혜은, 각원, 덕산, 중비, 정금옥, 조일**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남부교구종무원장 : **상산**
강 원 교 구 종 무 원 장 : **광덕**
서울서부교구종무원장 : **법선**
충 남 교 구 종 무 원 장 : **무광**
서울북부교구종무원장 : **정담**
충 북 교 구 종 무 원 장 : **백공**
인 천 교 구 종 무 원 장 : **혜정**
경 남 교 구 종 무 원 장 : **지운**
부산중부교구종무원장 : **정오**
경 북 교 구 종 무 원 장 : **혜관**
부산동부교구종무원장 : **봉선**
전 북 교 구 종 무 원 장 : **정산**
경기남부교구종무원장 : **법정**
제 주 교 구 종 무 원 장 : **덕산**
대 구 교 구종무원장 : **도오**
일 본 동 경 종 무 원 장 : **정대**
전남,광주교구종무원장 : **광운**
미 국 뉴 욕 종 무 원 장 : **성산**
중 국 남 경 종 무 원 장 : **해산**

★ **전국신도회**
회 장 : 허 정석
고 문 : 김 윤주
부산신도회장 : 박 해식
강원신도회장 : 김 현재

★ **학교법인 삼화학원**

⊙ **삼화불교학림**
학 장 : 법종 부학장 : 해운
교 수 : 법종, 백공,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동균
조 교 : 정금옥
운영이사 : 무불, 성산, 원명, 본각, 혜관, 도우,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덕운, 청호, 현덕, 도오, 일행, 도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법해,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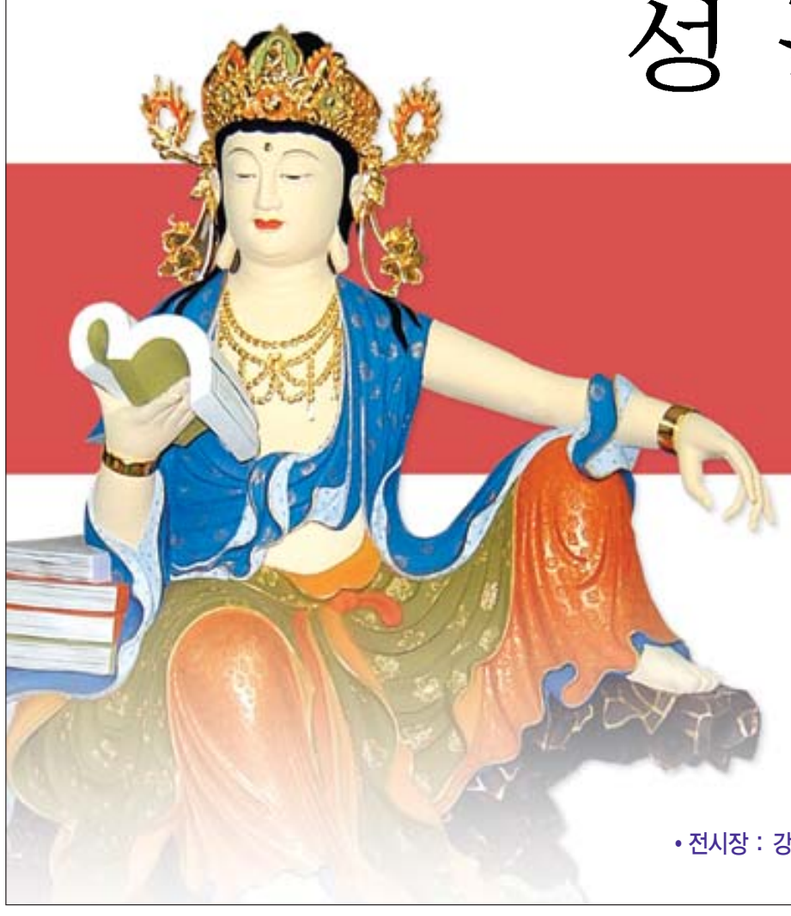
⊙ **삼화불교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법종, 일봉, 정수, 송암 성민
조 교 : 조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도홍, 성해, 성하, 묵헌, 지원, 혜법, 혜묵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월,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보덕, 진제, 연각, 성묵,청산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총 장 : 오 멘화, 혜인
부 총 장 : 윤경석
학생처장 : 손영진
학생주임 : 이화목
조 교 : 손정, 주소리
겸임교수 : 신병용, 김병호

총무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511-2026, 2027, 3445-7375~6
FAX : 02)511-2028

인터넷 주소
삼화불교종단 : www.shbuddhism.or.kr
삼화불교학림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E-MAIL주소 : samhwade@hanmail.net

성 불 조 각 원 www.sungbul.co.kr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성불조각원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패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화 : 033)263-1102 · 017-379-0590 / 경남지사 011-588-8317

2005 지상캠페인

지금 읽는 불서 한권 성불의 씨앗

대도시 불교전문서점

경영난 감수하며

불서보급 '사명감'

현대불교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2008년 1월 1일 화요일 제 660 호 C1

불교전문서점

가 보셨나요?

우리나라 불자들은 대부분 책(불서)을 읽지 않는 편이다. 통계상으로 본다면 불자들의 연간 독서량(불서 기준)은 0.5권 정도로 개신교인들의 12권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수치이다.

책을 안 읽는 이유가 무엇일까? 책을 읽으면 알음알이가 생겨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거나 '교학(책)은 하근기, 참선은 상근기'라는 한국 선불교의 왜곡된 풍토에서 기인한 것 등등이 그 이유다.

이런 잘못된 풍토 때문에 우리나라 불자들은 불서를 경시하게 됐고 책을 읽지 않게 됐다. 결국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불교는 '무식한 불교'로 전락해 버렸다.

그러다보니 10여 년 이상 절에 다녔어도 불교의 기본 교리를 물어보면 대부분 골머리가 되어 버리기 일쑤다. 정말 자신이 불자라고 한다면 최소한 부처님의 생애, 사상, 가르침 등 기초 상식이나 지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불자들의 외면(?)을 받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전국 대도시에는 몇 년째 경영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불서를 보급하는 불교전문 서점들이 꿋꿋하게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서울의 운주사를 비롯해 부산의 영광도서, 대구의 삼영불교서적과 해인불교서점, 대전의 보문불교서점, 광주의 불교서원과 불일서점 등이 바로 그곳이다.

5개 도시의 불교서점들을 둘러 본 결과 부산과 대구는 상황이 조금 낫지만 이외의 불교서점들은 사정이 어려웠다. 온라인 판매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줄어든 마진율과 대형서점의 공격적인 마케팅도 영세한 대부분의 불교서점이 짊어진 무거운 숙제였다.

김정수 대전 보문서적 대표는 "몇몇 불교서점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불교계 전체의 시장이 개선되고 활성화돼야 한다"며 "그것은 상업적인 행위에 대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라는 큰 덩어리에서 생각해봐야 할 불교의 위상과도 연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교서점들은 일반서점에 비해 분명 고객이 한정적이고 수익 모델이 좁다. 경영자들이 불교를 사랑하고 불서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벌써 문을 닫았어야 할 정도로 경영난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심지어는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곳도 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모르면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 가치를 못 느끼면 의미가 없으며, 또한 의미가 없으면 긍지를 갖지 못한다. 불자들 스스로 불교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려면 불서를 읽고 공부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불교서점들은 우리 불자들에게 가치와 의미, 자긍심을 느끼게 해 주는 소중한 장소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불서 한권이 얼마든지 성불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불서를 많이 읽자.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전문서점들을 자주 찾고 애용하자. 그 곳에는 불교의 오묘한 진리가 무궁무진하지 않은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대도시의 불교서점을 찾아가 봤다.

글=김주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한국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시청각 학습기!**

보고 · 듣고 · 배우는 ~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

불교대학에서 의식을 공부하시는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불경 해석 학습기기!**

염불(念佛), 염송(念誦)모음

■ **염 송 경** • 반야심경 • 천수경 • 불설아미타경 • 금강반야바라밀경 • 원각경 • 관세음보살보문품 •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 불설약사여래본원경 • 화엄경 보현행원품 • 화엄경 약찬게 • 초발심자경문 • 무상계 • 의상조사 법성게 • 장엄염불 • 부모은중경 • 백팔대참회문 • 대불정능엄신주 • 지장보살본원경 • 천지팔양신주경 • 보왕삼매론

■ **염송의범** • 송주편 • 예경편 • 불공편 • 천도재 · 49재편 • 시식 · 영반편 • 장의편 • 점안편 • 이운편 • 의식편 • 기타편

• **제품사양**
컨텐츠 캡션 MP4 재생기능, 동영상 촬영, 내장형 카메라, 녹음기능, MP3, 멀티태스킹 · 백그라운드 음악, 내장 1G 플래시, 외장 2G SD카드 지원, 320×240 TFT LCD 화면, FM 라디오 내장, 터치패드 사용, 게임기능, 전자수첩(전자북, 메모, 스케줄, 달력, 계산기), 영 · 중 · 일 · 한자 전자사전
※영어 · 일어 · 중국어도 함께 공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하십시오.
도연아카데미 문의 (02)701-5161~2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운주사

온라인 매장 개설, 소매서점 활성화 위해 노력

최대규모 불서총판…불서시장 견인

1989년에 문을 연 유서 깊은 서울의 최대규모 불교서점이다. 현재 임희근(49)씨가 대표로 있다. 총판(도매)으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은 현대불교신문에서 인터넷 판매를 해오던 여시아문과 붓다북을 완전히 흡수해 사이버 영업망을 확장했다.

임희근 대표는 원래 운주사 창업 전에 진영사(현 관음사)라는 출판사에서 어린이 관련 불서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다. 당시(1980년대 후반)만 해도 불교서적에 관한 총판이 전무한 상태라 2~3개의 소매 서점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임 대표는 소매 서점들과 접촉을 하면서 이들이 총판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알게 됐다. 그때부터 임 대표의 마음속에는 불교서적만을 위한 총판을 만들어야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창업을 준비하게 됐다.

운주사에서 현재 가장 많이 거래되는 도서 장르는 법어와 에세이다. 그 다음은 경전 해설류가 그 뒤를 잇고 있다고 임 대표는 소개한다.

임 대표는 "초창기 서점 수가 몇 개 안 될 때는 불교 소매 서점들도 호황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이유는 매장 수의 증가에 대해 시장 규모의 수요가 뒷받침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하나는 운영방식에 있어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데서 오는 영향도 있다고 임 대표는 덧붙인다.

다양해진 판매와 구매 형태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이 보편화 되고 활성화 된 것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점도 그 이유 중 하나로 본다고 했다.

운주사의 통계로 볼 때 불교서적 시장은 그래도 매년 5~10% 정도 증가하고 있다. 시장이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겠지만 우선 서점들의 노력도 있어야 한다는데 운주사는 동의한다 그래서 운주사도 총판으로서 소매 서점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당면 과제로 꼽는다. 시대 흐름에 맞춰갈 수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운주사의 계획이라고 한다. (02)3672-7181 박재완 기자



부산
영광도서

갤러리 등 문화공간 인기

40년 역사 부산의 '대표 서점'



1968년 5월 1일 문을 연 영광도서(대표 김윤환)는 올해로 개원 40주년을 맞는다. 창업주인 김윤환 대표는 0.5평 소규모의 점포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이 서점이라는 것에 착안했지만 우선 책이 좋다는 것이 문을 연 가장 큰 이유였다. 지리적 조건은 비교적 좋지 않으나 단골고객 관리를 꾸준히 했고, 한 권이라도 구하기 힘든 책을 전국에 수소문해 구해주는 열성을 보인 것이 입소문이 나서 성공의 기틀을 마련했다. '영광도서에 책이 없으면 한국에 없는 책' 이라는 소문까지 돌 정도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절판 된 책은 출판사에 직접 전화 연락해 구해주기도 한다. 현재 불교서적 7120종을 보유 중이다. 전국에 있는 웬만한 불서는 모두 소장하고 있는 셈이다.

영광도서가 지역민들에게 호응을 얻은 데는 책을 파는 공간만이 아니라 독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부산시민 문화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것도 기폭제가 됐다.

영광도서는 갤러리를 6년 동안 이끌어 오고 있으며 대관료가 무료여서 중견작가는 물론 신예 및 청년 작가들의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세미나실 사랑방에서는 출판기념회, 포럼, 불교 강좌, 중국어 특강 등 시민을 위한 무료강의도 펼쳐진다. 이외에도 영광도서는 독서 감상문 공모, 지역 문인들을 초청해 대화와 토론회 시간도 활발히 갖는다. 거래처는 대부분 출판사들과 직거래하고 , 소규모 출판사는 운주사를 통해 거래하고 있다. 온라인 홈페이지는 구축돼 있으나 판매 보다는 책 정보 검색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www.ykbook.com, (051)816-9500-4 하성미 기자



병고의 고통으로 고생하는 불자님들께
산삼의 인연을 맺어드리고자 합니다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운 약사여래 도량 선광사는 병고의 고통으로 고생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산삼의 인연을 맺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강원도 일대에서 활동하는 심마니들을 위해 오래 전부터 산삼 감정을 해오고 있으며, 인연 있는 분들께 산삼을 안내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약사여래도량 선광사 주지 도봉 합장

연락처 : 017-377-0464, 02)886-8655
서울시 관악구 봉천 10동 871-34번지(서울 포교원)
강원도 강릉시 지변동 232-1번지

산삼이란?

• 천종(진종)산삼 (天種, 眞種)
고산지대의 식물의 특성에 의하여 압력이 높고 바람이 세고 습기가 적고 등등으로 고생고생하며 자란것으로 뇌두는 가늘고 짝대 역시 작고 가늘며, 잎수와 가지 숫자도 적다. 열매 또한 작으며 숫자가 적다. 뇌두가 가늘고 길며 약통에서 미가 갑자기 가늘어져 미에 살이 안붙고 힘이 있어, 예쁘고 귀한 티가 난다.
30년 정도는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 자란 연도에 비해 크기가 작고, 잘 크지를 못하며, 제일 커봐야 1냥 2~3돈 정도라 할 수 있다. 작지만 많은 세월이 느껴진다.
오리지널 산삼이란 것이며, 천종(진종)산삼이란 참으로 귀하며 신이 우리에게 내려준 지상최고의 식물인 것이다.

• 지종산삼 (地種)
야생장뇌 산삼에서 씨앗이 떨어져 자라면 씨종이 한단계 진화하며 야생장뇌에서 1-2대 지난것이 지종산삼이며, 뇌두의 굵기가 진종산삼과 야생장뇌의 중간정도이고, 생긴 형태도 중간이다.

• 인종, 야생장뇌 산삼(人種)
야생장뇌란 재배장뇌씨가 새등에 의해 깊은 산으로 옮겨져 자생하는 것으로 생명력이 한단계 진화하며 오래살 수 있는것. 인삼과 많이 닮았으며, 뇌두가 두껍고 미에 살이 많고 귀티가 나지 않는다. 현재 채취되는 산삼의 대부분은 (95%이상)야생장뇌 산삼이나 지종산삼이라고 할수 있으며, 그러나 천종(진종), 지종,야생장뇌의 어디에 속하느냐는 집착할 필요는 없고 야생산삼이며 년조가 같으면 약효는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하다. 같은 년조일때 천종(진종)산삼은 야생장뇌나 지종산삼보다 크기가 작다.

"사찰난방
저렴하고 강력한 한열나무보일러가 최고입니다"

초대형 나무보일러는
역시 한열테크가 가능합니다

구입시 할부가능



● 수평형이며 연도가 3패스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열으로 긴형태의 보일러로써 나무를 태운열기가 앞-뒤,뒤-앞, 다시 앞-뒤로 열기 3번돌아 열효율이 높습니다.

● 룸 스위치가 있어 온도조절이 쉽습니다.
방안의 스위치로 온도조절이 가능하므로 대단히 편리합니다.

● 화실이 크고 사용하기 편합니다.
화실이 크기때문에 길고 굵은 나무를 넣을 수 있어 난방이 편리합니다.

● 대형사찰, 복지시설등 200평이상 난방 및 온수가 가능한 기술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200평이상의 대형 공간에도 난방 및 온수 사용이 가능한 검증된 기술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 연도구조 청소가 쉽습니다.
나무를 태우면서 생기는 목초액이 연통에 붙어 연도를 막히게 하지만 연도 구조를 간단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청소가 쉽습니다.

2004Korea Consumer Best Awards 한열나무보일러 스포츠서울 라이프선정 2004년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2005년 히트상품&서비스 경영대상

대한민국 업계 최초 발명특허, 실용신안, 국제표준,
기술평가 결정서를 획득한 기업은 한열나무보일러가 유일합니다.



A/s안내

무상서비스
- 제품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의 보일러 본체의 부품불량 및 문제 발생시 무상수리 및 무상교환 가능합니다.

유상서비스
-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
-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
- 전기사용 잘못으로 인한 고장
- 동파로 인한 고장
- 모타 펌프 이상으로 인한 고장
- 본사의 설치도면을 어기고 개인 설비업자의 임의 설치로 인한 고장

서비스 신청요령
- 매매계약서 보관
- 보일러에 이상이 있을시 설치 대리점으로 문의

HYT 한열나무보일러
주소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 432-29번지
전화 054)482-3339 / 휴대전화 016-255-5191
공장 : 경북 영천시 고경면 용전리 382번지
전화 054)333-5191 / 팩스 054)338-1006
창업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대구 삼영불교서점

2대째 운영…용품 · 음반도 판매

"책과 불심 함께 보급"



현 대표인 이재근(55)씨의 부친 이승환 회장(78)이 40여 년 전에 창업해 2대째 운영하고 있다. 도서는 약 3만 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창업주 이승환 회장은 "당시에는 일반 출판사를 하고 있었는데 해인사 스님들과 알고 지내면서 스님들의 책을 한 두 권씩 출판하게 된 것이 불교전문서점을 시작하게 된 계기 였다"며 "일반인들에게도 책을 통해 불교를 알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매장은 약 20여평 정도 이며, 불서와 함께 불교용품도 판매하고 있다. 음반 종류만 온라인 판매가 이뤄지며, 도서판매는 오프라인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불교출판사들과는 모두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한다. (053)421-3980

박재완 기자

대구 해인불교서점

대구불교 1번지 '책포교 1번지'



해인불교서점이 위치한 대구 남산동은 조계사가 있는 서울의 견지동과 같은 동네다.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불교용품점이 많이 모여 있다.

남산동에는 7~8개의 소규모 불교서점이 모여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해인불교서점이다. 1978년 문을 연 이 서점은 국어교사 출신인 김규하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김씨는 교사가 적성에 맞지 않아 학교를 그만 두고, 알게 된 스님의 권유로 불교서점을 시작했다고 한다.

매출 규모를 묻자 "지금은 이익창출보다는 포교하는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해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란 인상을 받았다. 이 서점 역시 불교용품도 함께 취급하고 있었다. 불서는 약 2만권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판매 방식은 오프라인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해인 서점 역시 불교출판사들과 직거래 판매 방식을 택하고 있다. (053)425-0108

박재완 기자

대전 보문불교서점

3만여 불서 온 · 오프라인서 '대기중'





1963년 현 김정수(45) 대표의 부친인 김주홍(70)씨가 창업할 당시엔 일반 서점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불자였던 김주홍 씨가 불교 서적을 한 두 권 구해서 가져다 놓기 시작한 것이 불교전문 서점이 된 시초였다고 한다. 현재는 3만 여권의 불서를 판매하면서 불교용품도 함께 취급하고 있다. 현재 운영자인 김정수 대표는 불교서점에 대해 밝게 전망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 했다. 매출이 줄어드는 것도 그렇지만 주 고객층이 50~60대에 그치는 것도 시장 활성화에 부정적이라고 했다. 젊은 층이 없기 때문에 장년층 고객이 없어지고 나면 소비자층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판매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고 있지만 온라인 매출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한다. www.buddhazone.co.kr, (042)257-0161

혜철 충청지사장

광주 불일서점

원각사 포교원 직영, 3만여권 구비

팬사인회 등 '이벤트' 호응



1981년도 개점했으며, 불교포교의 일환으로 원각사 포교당내 불교관련 전문서적을 구비한 것이 시작이다. 판매하고 있는 불서는 약 3만여권 정도인데 이는 실제로 호남권에서 가장 많은 숫자다. 처음에는 불교서점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불교용품도 함께 취급하고 있다.

작가와의 팬 사인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최근 정찬주, 김훈, 김용택 등과 팬 사인회 겸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열어 지역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원각사 직영으로 운영하며,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하고 있다. 총판 두 곳과 9군데의 불교 출판사와 직거래를 하고 있다. (062)232-7542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불교서원

온라인·기획 코너 마련 등 진취적 영업

독서모임·저자와 대화 준비



1998년에 불교서적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불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서적과 문화상품을 보급하고자 개원했다.

현재 4천 여 권 정도 보유하고 있다. 불교용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지만 운영자가 불교용품에 비해 불교서적에 많은 비중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 '독서모임'과 '저자와의 대화'를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매장 오픈도 준비하고 있다. 매장도 리뉴얼해 불서를 체계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기획 코너를 별도로 만들 계획이다. (062)226-3056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신수비결"

2008년 무자년의 나의 운세

-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 집에서 2008년의 운세를 볼 수 있음

▶ 신수비결 : 30,000(삼만원)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상호, 법명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 (정가 30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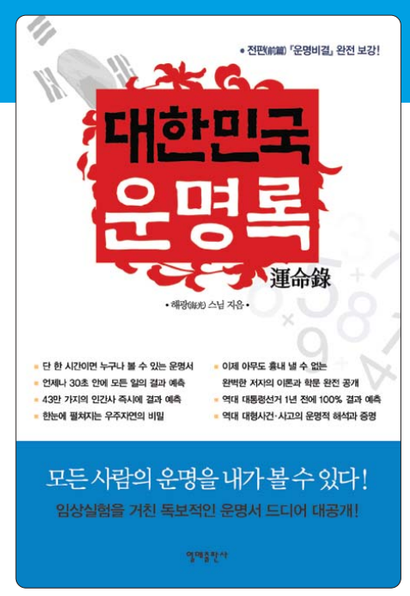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운명록 전수생을 모집 합니다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해광스님 직강

과학적으로 證明된 정확한 논리와 臨床을 통한 입증된 學說 – 대한민국 운명록
운명학 역학계에 돌풍을 일으킨
경악과 충격의 베스트셀러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자격 : 현재 사암이나 포교원을 운영 중인 스님, 법사 포교원을 개원하여 포교에 진력할 분 스님이 되고자 하는 50세 이하의 불자

특전 : 포교원, 사암의 운영에 전폭적 지원

금강禪院 · 금강불교대학
032)665-8472 / 010-3730-5247
경기도 부천시 상3동 533-7

"필자 발굴·소재 개발 양질의 불서 만들어야"

주제: 불서읽기 활성화 길은 없는가

참석자:
윤창화(불교출판문화협회 부회장)
이병두(칼럼니스트)
최승천(조계종 출판사 편집부장)
이규만(불교시대사 영업부장)

진행: 임연태 본지 편집부국장


윤창화 불교출판문화협회 부회장·민족사 사장


이병두 칼럼니스트.


최승천 조계종 출판사 편집부장.


이규만 불교시대사 영업부장.

책 읽는 인구의 감소 추세가 가파르다. '독서는 마음의 양식' '책 속에 길이 있다' 등의 독서권장 문구도 빛을 잃어 가고 있다.

영상매체와 인터넷, 휴대폰에 맞춰진 생활양식이 책 읽는 시간과 문화를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책이 양산된다 해도 읽는 사람이 없으면 헛수고에 불과하다.

반대로 책을 읽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좋은 책이 없으면 사회의 지식수준은 고양될 수 없다. 좋은 책과 독서인구가 함께 늘어날 때 그 사회의 교양과 지식이 탄탄해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각 분야에서 양질의 서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한 해 한권의 책도 읽지 않는 사람이 열 사람 중 네 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다.

불교계도 마찬가지다. 불서 전문 출판사들은 한 해 유통되는 불서가 최대 400만권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한 해 동안 한 권 이상의 불서를 읽는 불자는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이 분야 전문가들도 한 해 동안 열 사람 중 네 사람 정도는 불서를 한 권도 읽지 않을 것이란데 의견을 함께 한다. 불서를 읽는다는 것. 그것은 책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불자로서의 교양을 쌓는다는 지극히 평범한 신행활동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불서 읽기 활성화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불교계 출판 현장을 지키는 전문가들을 통해 불서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독서문화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불서읽기 활성화의 길을 모색해 봤다.

정리=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임연태: 금년 현대불교는 '지금 읽는 불서 한 권, 성불의 씨앗'이라는 주제로 불서 읽기 지상 캠페인을 전개하려 합니다. 캠페인 지면에서는 '불서를 만드는 사람들' 코너 등을 신설해 불서의 생산 현장을 소개하며 불교계 출판 시장의 하드웨어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사찰 도서관 운영 권장, 불서읽기 모임의 조직 및 성공사례 소개 등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획과 군부대, 사찰 도서관 등에 불서 나누기 운동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윤창화: 불서 읽기를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것은 불자 개인의 교양과 지식의 증장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포교 혹은 불교계의 전반적인 수준 함양을 위해서도 필요한 운동이라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교계 여러 단체를 참여시켜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랍니다.

임연태: 우선 무엇을 불서(佛書)라 하면 좋겠는가? 그 정의를 먼저 짚어 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최승천: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전해주거나 간접적이지만 그 사상이 담긴 모든 종류의 서적을 불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경전, 경전해설서, 학술서, 신행수기, 에세이, 문화유산 관련 서적 등을 포함해 넓은 의미로 봐야할 것입니다.

윤창화: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정신과 불교의 이념을 담은 내용이라면 소설이나 시 등 문예물도 포함될 수 있고 전기나 각종 총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식의 출판물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가급적 넓은 범주에서 불서의 개념을 정립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이병두: 영화의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영화에서 부처님 이야기가 한마디 없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간접적으로 녹아있는) 여러 영화를 불교영화의 범주에 넣고자 합니다. 불서의 범위와 의미도 확장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임연태: 하지만 지나치게 범위를 확장할 경우 자의적 해석에 따른 이견과 불서와 비불서의 모호한 경계에서 오해도 생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점에서 불서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이규만: 서점에서 불서와 비불서를 나누는 기준은 출간한 출판사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출판사에서 발간된 서적은 스님이 썼더라도 불교서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임연태: 출판사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이규만: 물론 그렇습니다. 출판사의 영업력도 무관치는 않다고 봐야 합니다. 홍보와 마케팅 등이 일반 출판사에 비해 약한 불교전문 출판사들의 현실적 고충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병두: 불교서적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았더라도 실제 팔렸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왕이면 좋은 불서가 불교전문 출판사에서 나오는 것이 좋겠지요.

윤창화: 스님들이 대체적으로 불교출판사보다는 일반 출판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교출판사의 전반적인 능력이 메이저급 일반 출판사보다 못한 것도 자성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최승천: 예를 들어, 지광 스님의 <정진>이 능인선원 출판부에서 나왔다면 지금의 (베스트셀러) 결과가 나왔겠는가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랜덤하우스라는 거대한 출판사에서 냈기 때문에 일반인의 호응을 얻은 것입니다. 출판사가 갖는 제작의 전문성과 홍보력과 영업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병두: 불교계 출판사가 대체로 열악하다고 하지만, 조계종 출판사의 경우 일반 대형출판사의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조계종 출판사를 비롯해 불교계 출판사들은 새로운 기획물 등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도 사실이 아닌지요?

최승천: 조계종 출판사는 종단이 운영한다는 상징성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출판본연의 기능을 확충하고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창화: 스님들의 책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 책은 볼 필요 없고 수행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책은 독약이다'라고 표현하는 풍토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승천: 그것은 선종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교입선(捨敎入禪)'은 원래 교리를 바탕으로 선 공부를 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교를 무시하라는 것으로 잘못 인식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교양대학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양대학을 다니는 불자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불교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생겨 불서를 사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양대학 때문에 그나마 불서의 독자층이 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병두: 정확한 통계는 없을 것이고 미루어 짐작하건대, 스님들의 경우 책 읽기를 권하는 분들이 전체의 10% 미만일 것 같습니다. 읽으라고 권하는 분들 중 다수도 책 추천에 높은 안목을 가졌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러므로 불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포교원, 학자그룹, 출판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해 '불서추천 가이드 북'을 정기적으로 만들어 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윤창화: 그런 작업이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려고 한다면, 크게 어려운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개인의 수준에 맞춰 초 · 중 · 고급 등 등급별로 3~5권 정도씩만 추천해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규만: 많은 불자들은(특히 처음 입문한 경우) 불교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런 시기에 좋은 독서지도가 따라 주지 않으면 기복신앙으로 휩쓸리거나 '불교는 역시 어려워'하고 돌아서 버린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경우 목사님들이 책을 들고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불교계에서는 책 들고 법문하는 스님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책 읽기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임연태: 아무래도 책을 많이 읽고, 수행에도 철저한 스님들이 불자들에게 책읽기를 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서의 소비에 있어서 사찰에 관계된 서점과 일반서점 판매 비율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규만: 물론 있습니다만, 그리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영업현장에서 볼 때는 5:5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병두: 사찰에서는 법보시로 다량의 책을 소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 판매인데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독서인구의 측면에서 통계에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보시가 출판사를 어렵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불교서적은 절에 가면 공짜로 얻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병두: 그리고 학자, 스님, 군법사, 종무원 등 불교계에서 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불서를 돈 주고 사서 읽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들은 공짜로 받아보겠다는 생각이 팽배해있습니다. 이런 풍토에도 자성의 여지가 있습니다. 군부대 등에 책 보내기 운동을 하는 경우도 책에 대한 인식을 가볍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투투컴퓨터
www.twotwocom.co.kr
전문가용 종합 역학프로그램 /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홈페이지 제작, 관리 / 종합사찰 서비스
문의전화:02)585-1141
네이버에서 투투컴퓨터를 치세요! 사주대전, 금강장사,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강장사 사찰신도관리 전문프로그램 금강장사
한눈에 보이는 신도관리! 철저한 사후관리!
축원관리/회원관리/영가관리/생일관리/명함관리/모듬처리/일정관리/회계관리/신수보기/전체신도인쇄/자료정리와 백업기능.. 투투컴퓨터의 금강장사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용 종합 역학 소프트웨어 투투컴퓨터 검색
四柱大典
사주대전은 무료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새로워지고 강력해지는 사주대전의 모습을 투투컴퓨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리, 주역, 귀곡, 자미, 기문, 궁합, 성명, 택일, 당사주, 토정비결, 오운육기
홈페이지 제작
1. 제작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전문담당직원이 직접방문 상담
2. 제작 후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 컨설팅지원
3. 검색사이트 일반등록 무료대행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고음질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수준별 불서추천 가이드 · 독서지도 필요”



이규만: 캠페인에 의해 무료로 배급되는 책들은 귀하게 대접받지 못한다고 봐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형태로든 책이 읽히는 것은 좋지만 대가없이 유통되는 책이 많을수록 출판시장은 어려워집니다. 일부 언론사나 신행단체 등이 출판사에 반품된 책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반품서적도 엄연히 출판사 재산입니다. 책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유통되는 책의 양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윤창화: 불서의 가치를 높이는 것, 불서를 귀하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불서라면 일반 교양서적과 다른 면이 있으니까요. 최근 2~3년 사이 불교문화에 관한 책들의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함량미달의 서적도 많습니다. 주로 에세이들이 수준이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문학적 수준도 모자라고 교리적으로도 수준미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승천: 스님들의 법문집 혹은 에세이들에 문제가 있습니다. 읽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 자기표현이 과하다 싶은 것들도 있습니다. 법문집을 내더라도 충분히 점검을 해서 내야합니다. 자기 욕심만 갖고, 이름 내기 차원에서 법문집이나 수필류를 출간하는 풍토가 전체 불서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진단은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닙니다.

이병두: 대형서점에서 불서가 구석으로 몰리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연태: 한 해를 기준으로 불서는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유통되고 생산되는 양은 어느 정도 될지 알아보는 게 필요하겠군요. 유통구조에 문제는 없을까요?

이규만: 불서의 유통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일하는 불교시대사의 경우 도매서점 3곳, 지방 서점 100여 곳을 직거래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도매점에서 담당하므로 유통 공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전담사원을 둘 수 없는 출판사도 총판이나 도매점과의 거래를 통해 해결합니다.

최승천: 배본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의 어느 서점에서 불서를 찾는 독자가 있다면, 서점에서 출판사 혹은 총판으로 주문을 합니다. 때문에 책을 못 구해서 못 보는 일은 없습니다. 책값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독자에게는 읽고 싶은 좋은 책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병두: 많은 사람들이 도서정보를 주로 언론에서 접하는데, 불서의 홍보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요일간지와 공중파 프로그램, 교계신문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윤창화: 수년전 민족사와 운주사가 함께 불서의 생산량을 따져 본 적이 있습니다. 신간은 250~300여종, 그중에는 100만부에 이르는 베스트셀러도 있지만 드문 경우입니다. 평균 종당 4000권으로 잡고 후하게 계산하면 신간은 1년에 120만권정도 됩니다. 구간도서 중 유통 · 판매되는 것이 1500종 된다고 보면 부수로는 130만권쯤 될 것입니다. 여기에 법보시를 합해야 전부 400만권이 못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추산입니다. 금액으로는 불교계 출판시장은 300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통계는 불자 인구를 1200만 명이라 합니다. 1200만에는 모든 세대가 함께 포함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불자가정은 300만 쯤 됩니다. 1가구당 어른을 2명으로 한다면 600만 명이 불서의 잠재독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400만권의 불서가 유통되고 있다는 계산에 맞춰볼 때 불자들의 1인당 독서량은 한 해 0.6권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 불자들은 1년에 책 한권도 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임연태: 좋은 불서의 생산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윤창화: 좋은 책을 만들자면 필자, 출판사, 독자 이 세 가지가 일치돼야 합니다. 우선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독자도 형성됩니다. 좋은 상품이 있으면 시장이 개척되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출판사도 좋은 편집과 기획으로 도서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독자는 좋은 도서를 구매해주고 남들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불교 서적에 대한 독자의 수준이 낮다고 봅니다. 좋은 도서가 나와도 구분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병두: 앞에서 언급했듯이 불자들에게 독서 안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규만: 불서의 제작 형태를 볼 때, 불자들을 위해서만 기획되고 집필하는 듯해서 안타깝습니다. 불교 밖의 사람을 위한 기획출판도 필요합니다.

최승천: 저도 좋은 불서 생산을 위한 열쇠는 기획출판에 있다고 봅니다. 원고를 받아 쉽게 출판하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좋은 필자를 발굴하고 테마를 개발해야 합니다. 덧붙여 편집과 디자인에 대한 획기적인 시도가 따라야 대중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좋은 불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훌륭한 필자를 발굴하기 위해 민족사가 필자를 공모한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고 봅니다.

이병두: 일반 출판사들의 경우 책을 하나 내는 데 2년여의 기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 책들은 읽다보면 그 노력이 보이거든요. 시간과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번역서를 보면 대형서점과 출판사에서 선점해서 영세한 불교계 출판까지 차례가 안 오지 않습니까? 눈을 조금만 돌리면 미국 외에 동남아, 인도 등에도 좋은 책이 많습니다. 또 삼성증권 우승택씨처럼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불자들을 필자로 선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연태: 책을 만드는 입장에서의 점검도 중요하지만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사찰이라는 공간만큼 불자들에게 책을 읽게 하기 쉬운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도서관 형태가 아니더라도 사찰에 적어도 도서실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찰이 불서읽기 운동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창화: 불자들에게 스님들의 말씀 하나하나가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인들의 백 마디가 스님의 한마디만 못하다고 할 정도지요. 스님들이 적극적으로 독서를 권장하고 소개해야 합니다. 스님들이 독서를 권장하는 것은 출판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신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불서읽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최승천: 현재의 독서 풍토라면 사찰 도서관이 활성화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소규모 포교당은 공간이 부족한 문제도 있고, 하지만 소위 ‘관광사찰’에서 도서관을 운영한다면 관광객에게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를 통해 불서가 얼마나 많고 좋은가를 알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임연태: 지역을 대표하는 대형서점들이 있는데 불교코너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반면에 불교전문 서점이 있지만 영세합니다.

최승천: 서점은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매대를 사고파는 실정에서 무작정 불서를 위한 공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지요. 차라리 인터넷 서점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온라인 서점인 예스 24의 1년 매출은 1620억, 인터파크는 1350억, 알라딘은 800억입니다. 온 오프라인 서점 1위인 교보문고의 매출은 3297억으로 온라인 3대 서점 매출을 합한 것보다 적습니다. 결국 방법은 인터넷 서점에 대한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예스24의 종교코너에서 ‘불교출판명가 베스트전’ 등이 그 개척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병두: 잘 팔리는 책이라면 알아서 좋은 자리에 공간을 넓게 해줄 것입니다. 동남아국가들에서는 불교서적 코너가 아주 넓습니다. 다종교인 그곳에서 불교도서를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규만: 불서는 신간종교서적 전체의 10%가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 판매량도 적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동남아, 일본, 우리나라는 종교 성향이 다릅니다. 다른나라에서는 불서를 읽는 타종교인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배타성이 강한 개신교의 경우 불서를 금기하다시피 합니다.

임연태: 불자가정에 ‘108권장서 갖기 운동’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불서읽기 운동을 위해서는 종단이나 단체의 도움도 절실할 것입니다.

윤창화: 우선 불서를 읽는다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단지 책을 읽는다는 정도라면 종단이 나설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불서를 읽는다는 것은 책을 통해 불교를 알고, 불교교리의 이해를 높이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종단이나 스님들이 단순히 책을 읽자는 것이 아니라 포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우선은 기초교리 수준도 이해 못하는 다수 불자층의 교양을 위해 캠페인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승천: 불서읽기운동을 한다면 과연 어떤 책을 읽겠는가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검증된 책을 말하라면 불출협에서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불서 10’에 오른 책 등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들을 선정해 독후감 응모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규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도 좋지만 포교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병두: 그 쪽이 중요하지만 정말 책이 없다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규만: 그렇습니다. 책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경우 어린이를 위한 성경 등 어린이를 위한 책들이 체계적으로 완비돼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는 그것이 미흡하므로 이를 해소할 길을 하루속히 찾아야 합니다.

임연태: 조계종이 올해부터 불교출판 문화상을 제정해 시상한다고 합니다. 또 불서전시회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본지가 전개해 나갈 캠페인과 함께 출판과 독서 시장이 탄력을 받고 불자들이 불서 읽기를 생활화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창화 불서 읽기 포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이병두 기획출판 위한 시간·재원 투자 필요

최승천 조계종 출판사 본연 기능 강화 노력을

이규만 무상 유통되는 불서 차츰 줄여나가야

www.kukbukarma.com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
남산스님의 기혈수비법
괄사 · 발란스 테이핑

물소뿔 괄사
10cmX7cm(15,000원)
물소뿔로 제작된 괄사는 수공으로 직접 만들어 부작용이 없다. 관절염과 비만, 변비, 뱃살, 혈액순환, 당뇨병, 고혈압, 잔주름 제거에 괄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45도 각도로 긁어주면 된다. 또한 긁은 자리에 붉은 피멍이 드는 것은 부작용이 아니라 나쁜 사가 나오는 것으로 며칠이 지나면 사라진다. 매일 30회씩 괄사를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긁어주면 된다.
발란스 테이핑
5cmX10m(25,000원)
정형외과나 한의원등에서 많이 쓰이는 테이핑 요법이다.
테이핑을 붙이기 전에 부위에 따라 15cm 간격으로 잘라놓고 어깨결림, 관절, 오십견, 좌골신경통, 근육통 등은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붙여주어야 한다. 또한 피부를 깨끗하게 닦은 뒤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화제의 신간
저자: 남산스님
변형신국판
컬러/ 값 10,000원
기혈수비법이란?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로 유명한 남산스님이 이번에 몇 십년 동안 대체의학 방면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험을 하여 얻은 결론들을 토대로 기혈수비법을 공개한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혈수비법 중에는 고혈압과 관절염을 가정에서도 쉽게 해결하는 방법과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마음대로 먹고 운동 안해도 뱃살이 빠지는 비법을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집에서도 간단하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국부카르마 문의:080-999-1080우체국 601161-01-005632(예금주:불타암)

화제의 신간
天機秘傳
2008년 戊子年 목자년
핵심 택일지
365일 매일 한장씩 한눈에 훤히 볼 수있는
상담자과 혐왕는장 한눈에 꿰뚫어 볼수있는
특수래정비법 공개···,
국8절판 / 백초스님 편저 / 20,000원
새롭게 다시 쓴
한국 최초의 택일지 운세 비법 출간!!
핵심 인연래정비법에 대하여
당일 찾아온 사람의 마음을 꿰뚫기
그 사람의 현재 마음과 運을 짚어보는 법
매일운세 吉凶판단법
당일 일상행사 길흉표
자신의 재수대통 방향자리
결혼 약혼 택일법
장례행사 이장의 길흉표
日辰法 보는 조견표
建除十二神 정국도와해설
임신한 아기 男女건강법
상담자 吉凶 來占法
당일 불공, 고사, 기복법
이사방위 길흉표
건축,상량,개업일 판단법
月日辰 해당 身殺조견표
二十八宿 정국도와 해설
황혹도 길흉표와 해설
생기복덕 길흉표
지금 바로 펼쳐보십시오!
전국 서점 판매중!
대권의길 명당에 있다
명당이 대권주자를 만든다 / 대권주자가 되려면 명당을 얻어야 한다 / 명당을 얻으려면 명지관을 만나야 한다
저자는 제주도의 묘소 사진만 있으면 호남 자택에서 수맥과 지기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감정할 수 있다. 또 주택 사진이나 평면도만 있으면 자택에서 수맥을 찾아낸다.
대권의 길 명당에 있다!
지리학의 근원(根源)
자연과 인생 / 지기론(地氣論)
수기론(水氣論)
동기감응론(同氣感應論)
신세론(山勢論) / 용맥개론(龍脈槪論)
평지론(平地論) / 지남침론(指南針論)
겨레출판사 / 신국판 / 304쪽 / 컬러 20,000원
羅經과 立向法
새로운 풍수학의 획기적 지침서
나경과 입향법을 알면 부와 귀를 얻을 수 있고 부와 귀를 얻는 길을 쉽게 풀이한 책이다.
음택은 자운개로 자연의 흐름을 포태법으로 땅의 기운을 찾아 길흉을 알고 양택은 8문8주개로 생활의 윤택을 찾아 행복의 길을 열게 하였다.
풍수지리는 자연의 법칙을 연구하여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조상의 묘지를 좋은 자리에 모시면 조상의 음덕으로 발복(發福)한다고 믿으니 막역 타고난 운명이 불행해도 조상을 吉地에 안장(安葬)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본다.
신규탄 / 최창용 배광용 지음 / 20,000원
사주명리 한방처방학
4×6배판/徐昇煥지음/양장본 : 권880쪽, Ⅱ권680쪽/각 권 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0,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수십 년째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시거나 불교교양대학을 몇 년째 다닌 분들에게 불교 이야기를 좀 해보시라고 하면 입도 떼지 못하는 것이 불교계의 현실입니다. 시중에는 불교입문서가 넘쳐나건만 사람들은 여전히 무슨 책을 읽어야 하는지 모르고 어떤 책을 어떨 때 읽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불교출판계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피부로 느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여 시작한 것이 바로 불교서적읽기 모임입니다.



글자 말고 '의미'를 읽어라

"소리내어 꾸준히 읽으면 내용파악하며 '음미' 가능"

이 미 령 |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읽기' 익숙하면 '토론'을

사람들은 '독서모임'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번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버립니다. 사실 수많은 독서모임들은 정해진 책을 일주일 혹은 며칠 내로 각자 다 읽은 뒤에 모여서 책의 내용에 대한 자기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하건대 책 한 권의 내용에 대한 자기 생각을 타인에게 말한다는 것은 저자만큼의 관심도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고도로 준비가 잘 된 독자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책을 읽자! 우리 모임은 말 그대로 소리내어 책을 읽기로 하였습니다. 불자들이 길게는 수십 년 법문을 듣고 경을 읽었어도 제 입으로 불교용어를 소리 내어 말하지 못하는 것은 듣기에만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책의 문장을 소리 내어 읽는 것만으로 불교용어들을 제 목소리로 소리 내고 불교를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소리 내어 책을 읽으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우선 자기가 책을 읽을 때는 그야말로 글자를 읽느라 온통 신경이 쏠려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읽을 때는 회원 대부분이 책의 내용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또한 책 읽는 다양한 사람들을 4년째 대해 오다보니 책 읽는 그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일상생활에서의 태도, 지위 등을 얼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과의 교제가 원만하고 활발한 성격의 사람은 책을 읽을 때 매우 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극적 성격이거나 완벽주의자의 경우 놀랍게도 책을 읽을 때 너무나 더듬거리고 심지어는 완전히 틀리게 읽기도 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단어를 건너뛰는 것은 예사입니다. 하지만 굳이 이런 것들을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자신의 책 읽는 소리를 들음으로써 스스로가 진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한 달 정도 참여하면 그 이후 책 읽는 소리가 놀라울 정도로 매끄러워집니다. 조금 더 꾸준하게 하면 해당부분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음미하면서까지 읽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책을 15권정도 읽고 나면 슬슬 자기의 의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토론은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책은 책일 뿐

시중에는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들이 아주 많습니다. 억만장자가 되는 법, 주식으로 부자 되는 법, 부동산으로 재테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들이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책들로 인해 정작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그 책의 저자와 출판사뿐입니다. 책 속에 돈이 들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 책을 사서 읽는다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 속에는 부자 되는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을 뿐이므로 책을 읽은 뒤에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을 한번 실천해보아야 합니다.

불서 읽기 모임을 하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말은 "글자에 집착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비난입니다. 그렇다고 깨달음이 좌복 위에 있는 것도, 매일 돌리는 염주 속에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방편입니다. 방편은 그 사람을 목적지에 다가가게 하는 것(upadaya)을 말합니다. 일부 스님과 불자들이 불교서적을 경원시하는 이유는 책을 그저 책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불교서적을 읽으면서 그 속에 불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책의 내용을 음미하고 책에서 권하는 대로 살아보는 그 속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만나는 것입니다. 책은 그저 책일 뿐입니다.

또한 모든 책의 내용이 다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저자가 아무리 위대한 수행자나 학자라 할지라도 상식에 어긋나거나 심한 비약이나 억지 주장이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하나씩 발견하면서 그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 또한 참으로 좋은 공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것인가에 몰두하거나 어떤 사항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불교 상식을 얻는 효과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책은 잘 쓰여야 합니다. 잘 만들어져야 하고 많이 팔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책의 생명은 '읽힘'에 있습니다. 내 돈을 주고 샀건 법보시로 거저 얻었건 책은 읽혀야 합니다. 보현행원품 중에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법공양이라 하였습니다. 부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알아보려면 책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보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책은 그저 책일 뿐이되 그 책을 잘 활용하면 불교라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어느 사이 살갑게 느껴질 것입니다. 수행의 하나로 책읽기를 권합니다.



사찰에 도서관 생기니 너무 좋아요!

지난해 12월 17일 춘천 석왕사. 10여명의 불자들이 책상에 둘러 앉아 열심히 책을 읽고 있다. 단순한 방이 아니라 도서마다 라벨이 붙어 있는 어엿한 도서관에서다. 사찰에 왠 도서관? 춘천 석왕사는 6개월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10일 사찰 도서관을 개관했다. 장서도 다양하다. 어린이 청소년 관련 도서 1500권을 비롯해 불서가 2500여권이나 된다. 책 종류가 많고 다채로워 문 연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신도와 인근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신도 손성환(54 · 춘천교대 학군단장) 거사는 "솔직히 나이가 들면 도서관을 가고 싶어도 학생들이 많아 멋쩍어 쉽게 가게 되질 않는데 사찰 안에 도서관이 생기니 절에 기도하러 와서 책 한 권씩 읽게 돼 좋다"며 "특히 주지스님 법문 중에 이해가 쉽지 않은 교리 내용이 나오면 바로 이곳에 와서 찾아보고 공부할 수 있어서 신행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좋아했다.

사찰 도서관-춘천 석왕사

이해가지 않은 교리내용 바로 찾을 수 있어
독서토론 세미나 및 다양한 행사 마련할 것

석왕사 도서관에는 관장도 있다. 김영례 보살(55)이다. 불교대학 총무를 맡고 있는 김 보살은 현재 서울대 중앙도서관 정보통신 과장인 남편 덕분에 초대 관장직을 맡게 됐다.

"전문 사서 경력은 없지만, 어깨너머로 남편에게 도서관 운영에 대한 얘기를 많이 지도받아 도움이 됩니다. 석왕사 도서관은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책이 더 필요하지요. 현재 신도와 불교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계속 기증 도서를 받고 있어 올 하반기 정도면 1만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도서관을 개관하기까지에는 무엇보다 석왕사 주지 백운 스님의 간절한 발원과 노력이 있었다. 도서관은 원래 올해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신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지난해 12월 개관했다. 계획을 머릿속에만 갖고 있으면 언제 실행에 옮겨질지 모른다는 스님의 강한 신념이 도서관 불사를 이루게 해줬다.

백운 스님은 "앞으로 사찰은 신행 공간에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지역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다"며 "특히 사찰 도서관이 전국에 많이 생긴다면 불자들이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사찰 도서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스님은 "사찰 도서관이 생기면 불자들에게 근기에 맞는 책을 골라 줄 수 있어 모든 대중에게 획일적으로 하는 법문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석왕사 도서관은 올 상반기 중 장서들이 일목요연하게 문서로 정리되면 지역민들에게 대출 서비스는 물론 독서토론 모임 활성화, 불서 읽기 세미나, 어린이 청소년 독후감 공모 행사 등 다양한 독서관련 행사도 펼칠 예정이다. 도서기증 (033)251-5040

춘천=김주일 기자

무료개방체험
황토와 산야초(야생화)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운 소승은 용맹정진 기도로 약사여래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본 도량에 **황토찜질방과 좌욕방**(산야초 및 야생화 30여종)을 마련하여 심신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과 함께 하고자 **무료 체험방**을 개방합니다.
또한 도량내에 지하암반층에서 솟는 **맥반석수**는 감로수로서 심신의 건강을 지켜 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홈페이지 : 검색창에 불토사 라고 치세요!)

약사여래 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불토사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356-3번지
종무소 전화 : 033)343-0103

중앙불교대학원 학인(승려, 행자) 모집
◆ 모집학과 : 사미과 6개월 과정
(3개월 기본교육 - 습의, 3개월 통신교육)
◆ 원서접수 : 2008년 1월 5일까지
◆ 개강일시 : 2008년 1월 7일 (월요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본, 사진 5매
◆ 자격요건 :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행자)
◆ 특 전
- 6개월 기본교육 이수 후 사미계 수계득도 하도록 지도하고 사찰(포교원) 창건 시 초심자라도 여법히 법회를 봉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 졸업 후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지속됩니다.
◆ 사미과 교수 : 현봉
(통도사 출가, 보광선원 금당선원, 現 무사암 주지)
◆ 수강료 : 일백오십만원(지도비, 삼개월 숙식제공)
◆ 문의처 : 본 대학 사무국
(대표전화 031-676-0908 / 팩스 031-676-0206)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번지


기치유란 무엇인가?
최근 기치유에 관심이 높아지는데 반하여 일반인들은 물론 통합보완의학(대체의학)분야에 종사하거나 연구하는 사람들 조차 기치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치유를 어떤 종교와 연관된 것으로, 무속인들이 귀신을 쫓는 방법으로, 안마나 지압의 일종으로, 최면이나 심리치료의 연장성으로 등등 많은 오해와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 보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기치유는 서구에서 healing touch, energy healing 등으로 불리는 통합보완의학의 한 분야의 치유 방법을 말합니다. 기치유사가 환자의 신체에 살짝 손을 대거나 약간의 거리를 유지한 채 자신의 치유 에너지만을 방사하여 병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몸을 만지거나 주무르는 등의 행위는 일어나지 않으며 주문을 외우는 등의 주술적인 방법도 쓰지 않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믿음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본 연구회에서는 정통 기치유만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9주 과정의 수련을 마치면 기치유 능력을 갖을 수 있으며 자신의 병이나 가족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게됩니다.
한국 기치유 연구회에서는 2008년부터 수련비를 대폭 낮추어 누구나 부담없이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기치유 방법을 배워서 기치유에 대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의식을 갖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기치유가 가정의학적인 차원에서 보편적 치유법으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기치유 양성반 35기 개강!
개강일자 2008년 1월 12일(토) 오후 2 : 00 ~ 4 : 30
수련회비 ~~99만원~~ 58만원 (9주, 매주 토요일)
수련지도 : 윤한흥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주)명상신문 논설위원
참고서적 : 기치유와 기공수련 / 기치유학(윤한흥 지음)
한국기치유 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02-3482-5032 www.gichiu.com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덜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謹賀新年 佛紀 2552年

2008년 戊子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수행과 참여"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회 장 공병수
직전회장 류진수
수석부회장 김성림
부 회 장 황진옥 배태순 이상률 권승렬 김영기 황국근
감 사 서병흔 김창석 이대원성
상임부회장 이욱태
사무총장 홍정표

회원 일동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5동 1330-9
부산불교신도회관
전화 051)853-2021 팩스 051)853-2036

釜山佛敎實業人會
妙 光 禪 院

회 장 김윤환
고 문 강병중 서춘석 박수복 이상태 하문원 최 찰
부 회 장 김종태 이근철 이달수 임정웅 지호경 한기승 황인관 조재원 배상진
감 사 안인성 이수환
총무이사 신병호
재정이사 이학성
사업이사 이환길
부총무이사 이규인
재정자문 김정웅

회원 및 마야부인회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401-9
부산불교실업인회관 4층
전화 051)818-9914 팩스 051)818-9916

삼천불삼천배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감 로 사

감로불교대학

- 기초 / 경전 과정 -
조실 지관 회주 법희
주지 혜총
사부대중일동

■ 부산시 진구 전포2동 33번지
전화 (051)809-0926 팩스 803-0188

불교 자비사상 실천현장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부산시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

부설 : ▪용호재가복지봉사센터 ▪용호치매노인주간주말보호센터 ▪용호가정봉사원파견센터 ▪용호어린이집 ▪용당어린이집 ▪양정노인주간보호센터 ▪부산시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 ▪무료급식(매일 400여명) ▪노인대학(매일 200여명) 등

이사장 혜 총 / 관 장 이춘성
소 장 김영곤 부 장 서은해

전화 051)628-6737 / 팩스 051)628-6562

대한불교조계종

내 원 정 사

주지 단옹 정련

- **석암장학회** 051)243-0692
- **내원정사** 유치원 051)244-0691
- **사회복지법인 내원**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051)264-9033
  내원어린이집 051)264-9031
  하단어린이집 051)206-3722
  부산서구시니어클럽 051)244-6700
  중증장애인요양시설반야원 055)632-1854
  마하병원 055)633-3000
  부산사하지역자활센터 051)263-6697
-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
  함지골 청소년 수련관 051)405-5223
  합천군 청소년 수련관 055)932-5662
  중구청소년 문화의집 051)247-8425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산3-2번지
전화 051)242-0691
팩스 051)248-0691

대한불교조계종

해 운 정 사

조실 진 제
주지 지 청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410번지
전화 051)746-2256, 4812
www.seon.or.kr

홍 제 사
황 령 선 원

선원장 혜 국
사부대중일동

- 매월(음) 초하루법회, 화엄경강의, 초사흘 신중기도
- 매월(음) 보름 - 24일 자비도량참법기도<10일간>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3동 산 51-2
전화 051)802-0130

대한불교조계종

영 주 암

[부설] 양정청소년수련관, 영주암유치원, 영주암어린이집

회 주 불국정관
주 지 범 산
신도일동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1동 950
종무소 051)754-2210 유치원 051)754-6120
어린이 집 051)755-2888 수련관 051)868-0750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부산분원

관 음 사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환희불교 복지대학

재단법인 관음선행장학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9-2
☎ (051)294-9300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다정한 어린이집 · 노인주간보호센터
부 산 사 하 두 송 자 활 후 견 기 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2동 96-1번지
☎ (051)265-9471 www.dusong.or.kr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

문수불교문화원
회 주 법 흥
주 지 지 원
신도회장 김철윤 김진실행
신도일동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51-8
전화 051) 624-3754, 623-3648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금강암

주지 정 만
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
전화 051)508-4509 FAX 508-4870

부산불교거사림

회장 배호암
회원일동

■ 부산시 동구 초량1동 974-2 소림불교회관
전화 051)442-1280
www.bsgsi.co.kr

부산여성불자회

회 장 왕선자
부회장 이윤목, 이정순, 정정자, 이미춘, 박영옥
총 무 하영조, 배복자, 손영순
재 무 김연자, 정유리, 서정례
감 사 김정숙, 한순정
장학위원장 홍말연(유리광)

이사 · 회원 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401-9번지
(부산불교실업인회관 305호)
전화 (051)817-3168(팩스겸용),3166

재단법인

보 현 장 학 회

이 사 장 정 여
상임이사 각 우
이 사 여현 정만 정현 심금윤월 백대일심
감 사 상현 오미희
사무국장 이욱태

후원하여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 57
전화 051)403-7096 / 팩스 051)403-9810

재단법인

一 念 獎 學 會

이사장 李大願行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401-9
부산불교실업인회관내
전화 051) 818-9914, 팩스 818-9916

사단법인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 원 일 동

■ http://cafe.daum.net/kybabs
전화 051)861-5241

부산불교사회복지 · 청소년기관협의회

후원 및 자원봉사는 부처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본 불교협의회 복지기관을 통해 해주십시오

회 장 혜총스님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박용하 / 부장 채종현
■공창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명현스님 / 부장 박신자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정순화 / 부장 조수경
■금 정 청 소 년 수 련 관 관장 정만스님 / 부장 강규성
■두송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지현스님 / 부관장 김맹자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서봉스님 / 부장 김민아
■부산시노인복지시설인력지원센터 이사장 혜총스님 / 소장 윤기혁
■부산시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 이사장 혜총스님 / 소장 김영곤
■부산광역시청소년쉼터 소장 박용하 / 국장 정현숙
■부 산 보 현 의 집 원장 박용하 / 국장 정현숙
■부산진구청소년지원센터 이사장 범산스님 / 소장 김금순
■사단법인 선양복지원 이사장 김수현 / 사무국장 서윤희
■사회복지법인 보현도량 이사장 정여스님 / 사무국장 정득보
■사회복지법인 혜 원 이사장 원혜스님 / 사무국장 이명숙
■선 재 어 린 이 집 이사장 원혜스님 / 원장 임수영
■실비요양원 상락정 실버빌 원장 혜문스님 / 사무국장 최종필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이사장 혜총스님 / 소장 김영곤
■양 정 청 소 년 수 련 관 관장 범산스님 / 국장 장문숙
■영 도 구 노 인 복 지 관 관장 선공스님 / 부장 박경란
■영 주 암 어 린 이 집 이사장 혜총스님 / 원장 양금선
■용 당 어 린 이 집 이사장 혜총스님 / 원장 배지미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춘성 / 부장 서은해
■사회복귀시설 컴넷하우스 이사장 혜총스님 / 원장 채인숙
■화명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유정스님 / 부관장 장병주
■하 단 어 린 이 집 이사장 정현스님 / 원장 김명숙

사무국장 이춘성
간 사 김영곤, 서은해

부산불교회관(부산 시청 옆)

여여선원 · 여여정사

(부설) 신행학교 · 여여불교대학

선원장 정 여
명예회장 김경환
신도회장 이향순

신도회, 동문회, 복지회, 선림회, 지장회, 관음회, 교무위원, 여여선림, 여여산악회, 기초교리반, 금강경반, 육조단경반, 참선반, 법회경반, 여여불교대학

여여선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157-1
전화 051)853-5486~7 / 팩스 051)863-6422
여여정사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1058
전화 055)355-9290~1

대한불교조계종

弘法寺

國際佛光會 韓國釜山協會

건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한나래문화재단

주 지 深 山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1220-1
전화 : 051)508-0345
팩스 : 051)508-6561
www.busanbuddhism.com
E-mail: 5080345@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 법 사

<부설>대자유치원 · 토월도솔유치원
진해 자은 도솔 어린이집 · 영축불교대학

주 지 호 암 지 태
신도회일동

■ 정법사:경남 마산시 추산동 65-2
☎ 055)246-8393, 245-6544
■ 대자유치원
☎ 055)245-0108, 242-0108
■ 토월도솔유치원:
경남 창원시 창남동 45-1번지 APT단지내
☎ 055)261-0832
■ 진해자은 도솔 어린이집:
경남 진해시 자은동 911번지
☎ 055)551-2112

대한불교조계종

비룡산 동명불원

주 지 정 산
신도회장 서 정 혁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507번지
전화 051)626-4337
팩스 051)626-4330

필요한 상품 여기 다 모였네!

매년 많은 불교 상품들이 출시된다. 상품 출시가 늘어나는 만큼 불교시장이 커감을 반증하지만, 소비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아무리 좋은 상품들이 개발돼도 소비가 따라주지 않으면 시장은 위축되고 결국 다음 상품은 기대할 수 없다. 신년을 맞아 양질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좋은 상품을 찾는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본지는12가지 아이템을 엄선해 2008년도 불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히트 예감 상품을 간추려 소개한다. **조동섭 기자**

1 연꽃씨앗을 몸에 지녀요.



연꽃씨앗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무량한 복을 받는다고 한다. 연실공방은 살아있는 연꽃씨앗을 갖고 손수 가공한 제품을 선보였다. 제품의 문양도 모두 손으로 작업했다. 피부에 접촉되는 면은 순은을 사용해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제품에 사용된 연꽃씨앗은 악세사리로 사용하다 언제든 키울 수 있다.

- 제품명 : 연꽃씨앗 핸드폰줄, 연꽃씨앗 귀걸이, 연꽃씨앗 합장주, 연꽃씨앗 열쇠고리
- 제품가격: 5,000~2만원
- 연실공방: (031)982-4992 www.lotusee.co.kr

2 소망 가득 모아 새해소망등 밝혀요.



등(燈)은 불법에 대한 진실한 귀의는 물론 자신의 서원이 있거나 업장소멸과 어려움을 밝은 빛으로 해결하기를 원할 때 밝힌다. 새해소망등은 지난해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앞으로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한해를 정리하며 새해를 맞아 내 주변 법계를 환하게 밝히는 것은 어떨까?

- 제품특징: 플라스틱 소재 육각조립등 높이 28cm 폭24cm 외 5종. 조립식이라 설치 및 보관 간편. 디자인은 원하는 사진과 그림을 담을 수 있다.
- 제품명: 새해소망등
- 찬덕연등: (031)792-6288 www.chanduk.com

3 현대인 기호에 맞는 기능성 맞춤 향



분향독서(焚香讀書)라는 말이 있다. '향을 피우고 책을 읽는다'는 뜻으로 책을 읽을 때 향을 피우면 정신이 집중된다. 선조의 지혜가 담긴 향을 현대인의 실생활에 쉽게 접목할 수 있도록 만복향당이 화풍시리즈를 출시했다. 천연재료를 갖고 현대인의 다양한 요구에 맞춤 상품으로 연기가 적고, 상쾌하고 은은한 잔향이 특징이다.

- 제품명: 화풍시리즈
- 포 장: 430스틱의 대형, 120스틱의 중형, 50스틱의 소형 등
- 제품가격: 5000원~4만원
- 만복향당: (02)577-4155 www.mbhd.co.kr

4 전통구들에 신기술을 더한 효도상품



몸에 안좋은 수맥과 전자파는 차단하고 몸에 좋은 원적외선만 골라 받을 수는 없을까? '거북이표' 침대로 널리 알려진 (주)장수구들 제품이 혼수용품과 효도선물로 인기다. 다량의 원적외선 방출로 편안하고 쾌적한 숙면을 돕고, 동판 사용으로 인체에 해로운 수맥과 전자파를 차단하는 효능이 입소문으로 전달됐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한국에서 발명특허를 받은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 발열체선은 장수구들만의 자랑이다.(발명특허 제184360호 발명특허 제184359호)

- 제품명: 장수구들 304목련Q침대
- 제품가격: 298만원
- 거북이표흙침대 : (02)3402-2520

5 건강을 생각하며 만든 죽염



환인동 요가마을이 만드는 민속죽염은 천일염과 대나무, 황토, 송진 등 100% 순수 국산재료로 엄선해 만들었다. 꼭 9번 굽는 정성까지 더한 고급 죽염으로 대한염업조합 허가제품이다.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는 민속죽염은 특히 민속죽염환이 인기다. 환인동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죽염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모든 음식에 소금대신 죽염을 쓰는 것이 좋다"고 한다.

- 제품명: 민속죽염
- 제품가격: 2만7천~5만원
- 민속죽염: (054)733-0979 www.msjy.co.kr

6 원적외선과 음이온의 효과를 한몸에



원적외선은 인간생활에 유익한 생육광선이다. 생물의 생존과 생체활동을 촉진시키는 광선으로 온열, 숙성, 지성 등 다양한 작용을 한다. 산림과 폭포, 해변 등에서 많이 발생되는 음이온은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활력 증진과 피를 맑게 하는 효과가 있다. 금강약돌 건강매트에는 육각거북 열침이 약 2500개 부착돼 있어 강력한 원적외선을 방사한다. 함께 발생되는 음이온이 건강유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제품명: 금강약돌 조합자극 건강매트
- 제품가격: 295만원
- (주)금강닥터사 : (02)722-0880

7 고무신코 모양 건강화



발의 건강이 몸의 건강이라 한다. 만행화는 무명, 삼베 등 자연재료로 손염색 가공 등 100% 수작업으로 만들었다. 특히 동 99%의 지압식 바이오 실리콘 깔창과 천연 코르크 중창 사용으로 발냄새와 무좀예방에 좋다. 미끄럼 방지를 위해 무발포 우레탄창을 채용했다. 디자인은 전통 고무신코 모양으로 멋을 살렸다.
고객만족을 위해 원할 경우 맞춤식 키높이 신발 제작도 가능하다.

- 제품명: 만행화
- 제품가격: 12만원
- 만행화: (02)733-5715 www.manhaenghwa.co.kr

8 알아서 켜지고 꺼지는 무전원 정원등



실외 전등 끄는 것을 잊었거나, 외출 후 야간에 귀가했을 때 컴컴한 정원을 지나기가 불편했다면? 낮동안 태양빛을 받아 충전했다가 밤이 되면 센스에 의해 자동으로 점등되고, 날이 밝으면 자동으로 소등되는 제품이 코스모스환보에서 출시됐다. 무보수 무전원 정원등은 원하는 위치에 고정만 하면 된다. 또 반영구적인 발광다이오드(led) 사용으로 보수 염려가 없고, 태양광으로 작동돼 전기료 걱정이 없다.

- 제품명: 태양광 정원등
- 제품가격: 소형 3만원대, 중형 10-20만원대,대형 40-60만원대.
- 코스모스환보 : (032)670-8998 www.cosmoshuanbo.com

9 전통의 맥을 잇는 수제목탁



목탁은 100~300년 수령의 산살구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옻을 생칠하는 제품이 고급으로 알려져 있다. 30년 동안 이런 과정을 거쳐 고급목탁을 제작하고 있는 곳은 영천목공예사. 이곳에서 수작업 목탁에 사용한 옻칠은 생칠이다. 나무속까지 칠을 먹이는 방법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나무결이 자연그대로 살아 있고, 절대로 벗겨지지 않아 반영구적이다. 우수한 제품으로 실용신안특허도 받았다.

- 제품명 : 수제 목탁
- 제품가격: 10~50만원
- 영천목공예사 : (054)334-9757 www.ycwoodart.co.kr

10 오래 은은한 밀랍향까지 가득



밀랍은 벌집으로 만드는 고급 천연재료다. 그동안 유럽 등 선진국에서만 볼 수 있었던 밀랍양초를 삼환양초가 개발해 시판중이다. 밀랍양초는 다른 양초에 비해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길다. 또 천연벌집의 은은한 향이 초를 켜둔 내내 지속된다. 자연 밀랍색 그대로인 밀랍양초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좋다.

- 제품명: 밀랍양초
- 싸이즈: 밀랍양초 1~4호, 돈타레, 밀대 등 다양.
- 삼환양초: (031)766-0242 www.shcandle.net

11 이젠 어학기로 불교 공부해요.



전자사전처럼 간편하게 불교 정보가 검색되면 얼마나 좋을까? 초심자들을 불법으로 인도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시청각 경전이 출시돼 화제다. 교계 최초로 출시된 MP4 불교경전 교재 어학기 아이센스에는 모든 경전과 의범이 담겨져 있다. 일본어 · 영어 · 중국어 등도 되고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내장형 카메라는 물론 다양한 부가 기능도 갖췄다. 320×240 TFT 멀티태스킹 · 터치패드 사용 · 영일중한전자사전 · 전자수첩 기능 등.

- 제품명: 아이센스
- 제품가격: 미정
- 도연출판사: (02)701-5161~2

12 과일의 왕 두리안



"부자 되려면 두리안 먹지 말라"는 말이 있다. 두리안은 겉껍질이 단단하고 거친 가시로 덮여 있는 열대 과일이다. 강장효과가 탁월하고 고단위 비타민A와 칼슘, 인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좋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과 함께 림버거 치즈 비슷한 냄새가 난다. 부처님께서 가장 즐겨 드셨던 두리안과 망고는 공양물로 으뜸이다.

- 제품명: 두리안 / 망고
- 제품가격: 두리안 5만5000~10만원 / 망고 8만원
- 향다원: (031) 634-1329

청동불상 제작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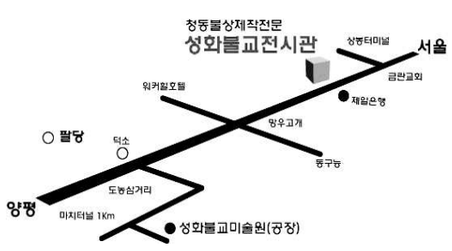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 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승기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 가 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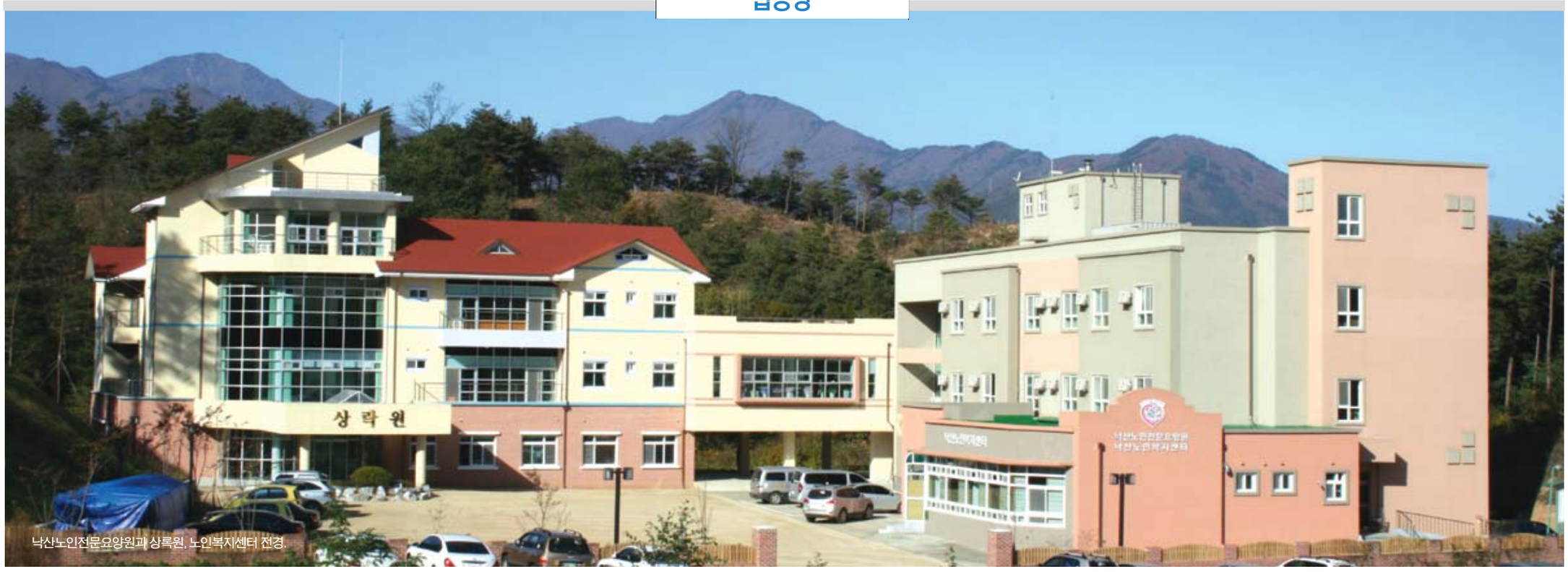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래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자수 대진 합장



낙산노인전문요양원과 상록원, 노인복지센터 전경.

미래 복지 불사의 꿈 양양 낙산사

단일 사찰 최대 규모의 복지 타운

2005년 4월 5일 산불로 인해 잿더미가 됐던 강원도 양양 낙산사(주지 정념)가 복원 불사뿐만 아니라 복지 불사의 모범 사찰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낙산사가 전국에서도 전무후무한 복지타운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2005년 10월 13일 설립된 낙산사복지재단 산하에 낙산노인전문요양원을 비롯해 상락원(낙산실비노인전문요양원), 낙산노인복지센터, 관음의 집, 양양 노인 무료급식소를 두고 있다.

또한 양양군내에 유치원과 의상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으며, 무산청소년문화센터(무산지역아동센터)는 올해 설립할 예정이다. 복지시설은 무문 스님이 관장을, 무료급식소와 유치원, 공부방은 지봉 스님이 원장을 맡고 있다.

교구본사가 아닌 단일 사찰에서 이렇게 많은 복지 및 어린이 청소년 문화 시설이 운영되는 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 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낙산사를 따뜻한 사찰, 정이 넘치는 사찰, 누구나 편안히 와서 기도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정념 스님은 화재가 난 이후부터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일체 받지 않는다.

그동안 300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또한 1년 365일 방문객들을 위해 점심공양으로 국수를 무료로 대접한다. 경내에는 10여대의 무료 커피 자판기도 운영되고 있다.

편집자주

#낙산노인전문요양원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께 전문 인력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와 시설 장비를 갖추고 가족과 같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어르신들을 모시는 은빛 보금자리다. 요양원은 낙산도립공원, 설악산, 국립공원등 주변이 관광지구로 둘러싸여 경관이 수려하고 울창한 주변의 송림야산은 항상 맑은 공기를 제공해 어르신들께서 머무르시기에 최적이다.

입소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어르신 중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이다. 60명이 정원인 요양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3인실, 4인실, 의무실과 휴게실, 물리치료실, 목욕실, 생활관센터 등을 갖추고 있다. 프로그램은 심리 및 치료재활, 사회적응 치료 등을 운용하고 있다. (033)672-0053


지난해11월 준공 된 낙산 유치원.

#낙산 상락원

2007년 10월 19일 문을 연 유료 요양원 상록원은 지상 4층 규모에 정원은 60명이다. 1층에는 사무실, 자원봉사실, 원장실, 상담실, 임종실, 다용도실, 세탁실, 식당 2·3층은 의무실, 2인실(6실), 3인실(2실), 6인실(2개) 생활관센터, 목욕실, 강당 등이 있다.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개별 및 집단상담 치료, 미술치료, 작업치료, 발맛사지, 노래교실, 운동치료 등이 마련돼 있다.

입소자격은 수급대상이 아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면 가능하다. (033)672-0053

#낙산노인복지센터(주간보호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치매, 중풍, 노환 및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께 낮 동안 각종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소대상은 양양군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몸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정 노인으로 낮 동안 보호자가 필요한 분들이다.

프로그램으로는 레크리에이션, 취미여가 서비스, 물리치료, 이미용서비스 등이 있다. 매일 오전 9시 시내에서 차량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오후 4시 퇴근시켜준다. 20명이 정원이다.(033)672-7303

#노인무료급식소

낙산복지재단이 주관하고 양양군이 후원하며 지난해 2월 12일 양양군 복지회관 2층에 개소했다. 65세이상 양양군 어르신 누구나가 오셔서 점심공양을 할 수 있는 이 급식소는 매주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까지 이용 가능하다.

#낙산유치원

1984년도 양양군 시내에 개원한 이래 3개 반이 운영돼 왔으나 지난해 11월 옆에 새 건물을 완공해 6개 반으로 늘려 운영하고 있다.

육바라밀의 이름을 따 보시반, 지계반, 인욕반, 정진반, 선정반, 지혜반 등이 있다. 주로 5살부터 7살까지 취학 전 아동들이 입학 대상이며, 정원은 총 150명 정도다.

불교유치원 답게 국악과 다도 등도 가르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마다 새로 지은 강당에서 원장 지봉 스님의 지도로 유아 법회를 열고 있다.

#공부방(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영어, 책읽기, 한자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저소득층 자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양양군내 거주하는 초등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무산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해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낙산노인전문요양원장

"모두 가족같은 마음으로 대해요"


무문 스님

무문 스님의 직함을 보면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주 업무는 낙산노인전문요양원장 겸 노인복지센터장 겸 상록원 원장이다. 여기에 하나 더 있다. 낙산사 재무 소임까지 맡고 있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이런 와중에도 요양원 직원들에게 스님이 항상 교육하고 강조하는 것이 있다. 바로 '친절'이다. 노인들을 자신들의 부모님처럼 친절하고 편안하게 모시라는 것이다.

"낙산사가 주지 스님의 엄명(?)으로 친절을 강조하듯이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떠나 몸 불편하고 병드신 것도 서러운데 요양원이 불편하다면 어르신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고 무문 스님이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친절을 강요만 하는 것은 아니다. 1차 고객인 직원들에게 우선 좋은 대우를 해준다. 타 복지시설보다 급여체계가 높으며, 자녀가 있는 직원들에게 매월 장학금도 지급한다. 또한 타지역에서 온 독신자들을 위해 아파트를 빌려 숙소로 제공해 준다.

"어르신들을 잘 모시려면 일단 직원들이 생계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부터 항상 걱정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어르신들을 잘 모시겠습니까?" 그래서 낙산 요양원 직원들은 이직률이 낮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김주일 기자

C09최종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8,000원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입 종 안 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 의 : 창종주 054)632-2799
011-228-7813
총 무 031)883-1506~7
011-338-1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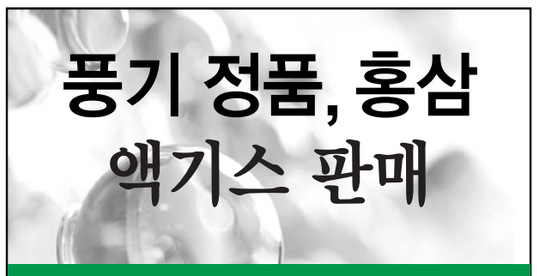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1조.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종 찰 인 증 서

사 암 인 증 서

풍기 정품, 홍삼
액기스 판매



100ml×60포(한달분)
회원가입(6개월,1년) 우대할인

전 화 054)634-3429
휴대폰 011-9373-3778
E-Mail : pay3579@hanmail.net
입금계좌 : 우체국 703884-02-048103
(예금주 : 박영애)

누구나 판매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원가로 공급해드리고
생활고 보장

백만원으로 대리점운영
전국선착순

당뇨병, 각종 암환자분께는
특혜드림



쌍 화 차

피로회복 감기예방에 좋은 쌍화차를 엄선된 약초로 정성들여 끓여 여러 불자님 앞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저희 세일물산에서는 일산 수연제, 인사동 모란, 여의나루 하나찻집 등 전통찻집과 각지에 계신 일반 고객들께도 좋은 반응을 얻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저 알리오니 많이 애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팩 ➡ 35,000원 60팩 ➡ 60,000원 [배송료 포함]

❖ 氣를 바로 알면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십수년전 부터 인체 · 나무 · 동물에 어떤 에너지를 접촉했을때 그 변화하는 기운을 시각 촉각 등을 통해서 느끼고 알게되는 능력을 얻어 그동안 저에게 인연이 되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번 지면을 통해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께서 건강에 도움이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체질개선이 아닌 현재 상태의 기운을 통해 어떤 에너지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 내므로 즉시 확실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 내 몸에는 어떤 식품이 맞을까?

내가 먹고 싶은 식품(곡식, 야채, 과일, 고기류, 생선류, 약, 약초, 건강식품)이 내몸에 맞는지 즉석에서 판별해 드립니다. O-Ring테스트나 L로드, 팬드릭 같은 인위적인 매개체 없이 세포가 반응하는 것을 즉시 읽어내므로 틀림없습니다.

❖ 어떻게 하면 통증과 피로감 불편함에서 벗어날까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에너지를 찾아내어 거기에 맞는 식품, 약초, 건강식품 등을 맞춰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으며 특히 내몸에 맞는 기능성 맞춤 한방차를 이용하시면 탁월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적용가능 예

- 어린이 : 분유, 이유식 제품선택
- 아토피 허약체질 : 기피음식 분류
- 청소년 :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식품 분류
  공부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한방차 선별
- 직장인 : 스트레스, 피로회복, 숙취해소에 필요한 식품 한방차 선택
- 원인을 알수 없는 질병 : 어느 경락의 부조화인지 상담

건강식품, 약초 약재, 신약등을 연구하시는 분께는 인체 적용 반응을 이용하시면 높은 효능과 시간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공동연구도 가능합니다.

세일물산 02)965-4413

謹賀新年 佛紀 2552年

2008년 戊子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사)부산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총 재 대성스님
부 총 재 정여스님 수불스님
사무총장 무관스님
협 회 장 백명숙 사무국장 이욱태
고등부지회장 박병택 중등부지회장 손태석

■ 부산시 연제구 연산5동 1330-9
부산불교신도회관 7층 파라미타
전화 051)513-4306 FAX 513-4307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여성부

회 장 백명숙(대일심)
부회장 박동희(만월심)
총 무 남영희
재 무 정지연
운영위원 박애순, 김명애, 정지연
해외협력부장 김애영
감 사 이위교

■ 서울사무국 ☎ (02)720-1708
■ 부산사무소 ☎ (051)818-3427

대한불교조계종

운 수 사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3동 산 5번지
전화 051) 317-5671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해운대포교원

반 야 원

(부설)
반야불교교양대학

주 지 목 종
신도회장 최중식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61-7
(영진파스타 8층)
전화 051)701-5655
팩스 051)701-5654

지장불교근본도량

공 덕 원

http://www.gongdukwon.net

주 지 효 선

신도회, 지장회, 대원회,
연화합창단,
솔바람산악회, 열린마음봉사회,
대원청년회, 어린이회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370-5
부산은행 5층
전화 051)625-2253
팩스 051)625-3886

삼천불 봉안 도량
대한 불교 조계종

정 토 사

주 지 산하 덕진
사부대중일동
조계종 신도 전문 교육기관
정토불교대학
무료급식소:밝은세상

■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803-5

마음 편한 절
대한불교조계종 용두산 미타선원

주 지 하 림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 2가 1-11번지
전화 051) 253-8687,8
www.mitazen.net

자비실천수행도량

미 룡 사

부산불교대학
주 지 정 각
지도법사 청 명
이 구
신도회장 김동열(광운)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 1동 323-194
전화 051)404-4300,403-4848 팩스 403-4860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산 선암사

주지 원범

원 효 봉 사 회
원 효 거 사 회
원 효 합 창 단
원 효 청 년 회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3동 628번지
전화 051)803-7573, 7522
팩스 051)803-7521

보건복지부지정

새생명나눔실천본부 부산지역본부

본 부 장 원범
부본부장 자인. 목종. 김귀련
감 사 해암. 이경순
총무이사 혜창. 문수용
기획이사 마나. 이욱태
재무이사 법안. 박성미
홍보이사 혜산. 김성수

이사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1동 393-12
불교회관 500호
전화 051)853-0429 팩스 051)853-0439
http://www.bsli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

여래사불교대학

운영위원장 대 성
학 장 원 범

입문자과정, 불교학과,
기초참선반, 경전반, 다도반

부산불교교육원

원 장 박동범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1동 345-5번지
대성빌딩 3층
전화 051)466-4080 팩스 051)462-1483
www.bulgyo.or.kr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 부산 포교원

화 명 선 원

주 지 무 거
사부대중 일동

“
좋은인연
좋은만남
기도도량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93-2번지
건아빌딩 7층
전화 051)335-7112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범어사 말사

복 천 사

회 주 혜 문
주 지 경 호
신도회장 공묘정행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 3가 산 6번지
전화 051)417-5551
www.bokc.co.kr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 어 사

조 실 지 유
주 지 대 성
부주지 계 전

선 원 장 인 각 강주·율원장 지 오 박물관장 경 선
총무국장 범 산 기획국장 혜 민 교무국장 지 선
재무국장 원 범 사회국장 대 방 포교국장 무 관
호법국장 강 하 연수국장 종 인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546 ☎ 051)508-3122~6
[www.beomeosa.co.kr]



대한불교조계종
영축 총림

통 도 사

방 장 원명 지종
산중원로 초우 덕진
주 지 아산 정우

총무국장 용담 현기 율 주 중산 혜남
기획국장 지상 강 주 혜엄 우진
교무국장 진각 유 나 상경
재무국장 자명 율 원 장 우설 덕문
사회국장 진응 박물관장 명정 범하
포교국장 양관 도 감 만성
호법국장 인오 원 주 묘행

영축 총림 통도사 대중일동

경남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전화 : 055)382-7182 전송 : 055)382-7196

“한 순간도 ‘불교’ 밖에 나간적 없어”

권 기 종 동국대 명예교수 | 원각불교사상연구원장



선친께서 주신 ‘초발심자경문’으로 불교공부 시작

군법사 교법사 1기생… 한글대장경 출판사업 동참

내 인생에 있어서 불교를 떼어 놓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교학을 전공해서 불교대학의 교수로 정년을 마치고 지금도 불교의 한 연구원의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1940년 경북 안동의 한 불교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어머니 등에 업혀 절에 가서 자고 온 기억을 갖고 있다. 나중에 커서 알게 된 일이지만, 선친은 그냥 절에 다니는 신도의 수준을 넘어 불경과 불서를 읽으시는 요즘 말로 하면 다소 수준 높은 불교신도였다.

나는 초등학교(당시 소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천자문>을 선친께 배웠고, 그 후 <동문선습> <명심보감> <소학>도 배웠다. 그러던 어느 날 선친께서 “이 책을 한 번 배우는 게 어떻겠냐”고 내 놓으신 책이 바로 <초발심자경문>이었다. 나는 이 <초발심자경문>을 선친께 배웠다.

이것이 내 불교인생의 시작이었다. 물론 그 이전에 어머니의 등에 업혀, 또는 걸어서 절에 간 것은 정말로 아무 것도 모르고 타의에 의한 것이라면, 이 <초발심자경문>의 배움이야 말로 내 인생의 큰 충격이며 불교공부를 하게 되는 전환점이기도 하다. <명심보감>이나 <소학>은 그 내용이 윤리적인 교훈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즉 선(善)을 행하고 악은 행하지 말 것이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라는 등 지극히 단순한 교훈의 의미로 마음에 다가오지는 않았다. 여기에 비해 <초발심자경문>은 가히 충격적인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주인공, 즉 너 자신아 나의 말을 들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서 도(道)를 이루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아직도 괴로움의 세계에서 헤매고 있는가…”라는 등의 가르침은 전혀 앞의 것과는 그 내용과 차원을 달리한 것이었다.

나는 이때부터 불교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고, 그 당시에 불교 책들을 구해 읽었다. 예를 들면 <심전개발> <팔상록> <장수왕과 장생타자> <보덕각시> 그리고 <부모은중경> 등의 책들이었다.

여기서 선친에 대해 약간 소개를 할 필요가 있을 것같다. 선친 불명(佛名)은 ‘성산(惺山)’이셨으며, 보살계를 받으셨고 여러 분의 큰스님들을 찾아뵙기도 하셨으며, <부모은중경>을 번역해 보급하시기도 하였고 몇 개의 사원 건립에 화주가 되기도 하셨다. 당시 안동 포교당은 의성 고운사 말사였으며, 당시 고운사 주지 서재균 스님이나 안동 봉정사 주지이셨던 김광문 스님, 대구 남산동 정혜사 주지(지금의 법호는 알 수가 없다)스님과도 깊은 교류가 있으셨다. 또한 지금의 진각종(당시 심인불교) 종조이신 손규상님을 대구 남산당 심인당에 찾아가 만나기도 하셨다. 그 후 동산, 청담, 관응, 자운 스님 등도 뵈었다고 하셨으며, 선친의 말씀으로는 관응 스님이 경북 예천 포교당에 계실 때 법문을 들었는데, 설법을 잘하시더라는 이야기를 하셨다. 또한 전주 연화사에서 자운 스님에게 보살계를 받으셨다고도 하셨다. 만년에는 집에 계시는 시간보다 절에 가서 계신 시간이 더 많으셨다.

다시 나의 이야기로 돌아와 나는 한국전쟁 당시 전염병의 만연으로 어머니를 잃었고, 따라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른 사람보다 빨리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출가를 결심했고 출가에 앞서 선친의 허락을 받아 절로 갔다.

이미 <초발심자경문>을 끝마치고 상당한 불교적 소양을 가지고 왔으므로 6개월의 행자기간을 거쳐 불교전문강원에 입학하게 되었고 이후 3년간 강원에서 소위 이력(대교과 졸업)을 마쳤다. 이력을 마치기까지는 통도사강원, 중앙학림, 표충사, 동화사강원을 거쳐 해인사강원을 지관스님 강하에서 졸업하였다.

그간에 가르침을 주셨던 스님으로는 운허 스님, 관응 스님, 월운 스님, 지관 스님 등 네 분의 스님이 계시다. 비록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내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준 스님으로 법정 스님을 들 수 있다. 법정 스님과의 인연은 운허 스님께서 한국 최초로 불교사전을 편찬하실 때 인환 스님, 법정 스님 등이 이 편찬 작업에 종사하셨고 내가 이 편찬 일에 참여하여 함께 일하게 되었을 때다. 그 후 법정 스님과는 조계종 총무원에서 출간한 <불교성전> 편찬과 불교종립학원연합회에서 간행한 중고등학교 불교교과서 편찬에도 함께 일하게 되었다. 성전 편찬 시에는 서경수 교수님도 함께 일했고, 중고등교과서 편찬에는 목정배 교수도 함께 일했었다.

이후 대학을 거쳐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게 되었다. 대학원 석사과정에서는 이기영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모셨다. 당시 나는 불교학과 학생이었고, 이교수님은 인도철학과 교수이셨다. 그러니 불교학과 학생이 인도철학과 선생님을 지도교수로 모신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러나 대학원에 문의한 결과 지도교수로 모시는데 규정상 하자가 없다고 했다. 이후 과정을 마치고 논문심사를 할 때는 다소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이기영 선생님은 프랑스에서 불교공부를 하고 오셨으며, 새로운 방법으로 불교학을 접근하고 연구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학문적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그 후 박사과정에서는 선학과 지관 스님을 지도교수로 모시게 되었으니, 이 역시 불교학과 학생이 다른 학과인 선학과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모시게 된다. 처음에는 불교학과 장원규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모셨으나, 장 교수님이 정년하시고 행방이 묘연하여 할 수없이 지도교수를 변경한 것이다.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한국불교백년사편찬부에서 근대불교백년사 편찬사업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이때 편찬실장은 인하대학교 사학과에 재직하다가 정년하신 정광호 교수였고, 나보다 뒤에 들어와 함께 일하던 연구원으로는 현재 월간 <불교> 주간으로 있는 송금엽 선생이었다.

그 후 나는 동국대사범대 부속고등학교 교법사로 가게 되었다. 이때 불교종립학교연합회라는 기관이 설립되고 불교에서 설립한 초·중·고등학교의 불교교육을 체계화 하려는 일환으로 교법사 선발시험을 보게 되었고, 이 시험에 합격했다. 나와 함께 합격한 사람으로 김봉식(前 홍제중학교 교장), 서윤길(동국대 명예교수), 박명순(前 명성여고 교장), 김재호 선생 등이 있다.

이전에도 불교종립 중고등학교에서 불교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었지만, 그 자격 등의 제도가 없었다. 이때부터 새로운 교법사 제도를 마련하고 불교종립학원연합회장 명의의 자격증이 주어졌으며, 나는 그 자격증 번호 1번이 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 학교를 떠나 군법사로 가게 되었다. 군법사 제도는 불교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하지만 막상 군법사 제도가 실행되자 사실상 불교종단은 적합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 무렵(1968년)에는 불교대학을 졸업한 군법사 자격자는 승단 내에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승단 밖에서 적임자를 선발하여 제1기 5명이 임관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그 중 한 명으로 임관하여 1군사령부를 거쳐 주월사령부, 육군본부에서 전역했다. 당시 월남전에는 군법사의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그래서 다섯 명의 군법사 김봉식, 이지행(前 대원회 법사), 권오현(前 불교방송 전무), 장만수, 권기종 중 네 명이 파월되고 한 명이 육군본부에서 근무하고 제2기생을 배출시켰다. 나는 주월사령부의 근무를 마치고 육군본부에 남아 있던 김봉식 법사와 임무교대를 했다. 이어 백마부대(9사단)에 있던 권오현 법사가 육군본부 법당으로 전입하면서 함께 육군불교장교회를 창립하게 되었다. 초대 회장에는 정승화 장군이 추대되었다.

그 후 4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는 동국대학교 동국역경원에서 한글대장경 출판사업에 동참하게 되었다. 한글대장경의 번역·출판사업은 불교종단의 노력보다는 운허 큰스님(역경원장)의 원력에 의해서 이룩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만 해도 조계종단은 말로만 포교·역경·도제의 삼대 사업을 이야기했지 역경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가질 여력이 없었다. 나는 1974년부터 불교학과의 강사가 되어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1977년에는 전임강사가 되었다. 전임강사 즉 교수가 되면 동국대학교의 정각원 교법사의 보직을 맡게 되었는데 당시 정각원장은 지관 스님께서 맡고 있었다.

그 후 동국대학에서 총장비서실장에서부터 신문사 주간, 총무처장, 불교대학장 등 많은 학내의 보직을 맡았고 밖으로 불교학회장도 역임했다. 2006년 2월 말로 정년하고 현재는 명예교수로서 천태종 원각불교사상연구원 원장직을 맡고 있다.

사) 영남범음범패 연구보존회 제6기생 모집

2008년 무자년 새해도 각 사암에 가람수호와
성현의 가호가 충만하시길 삼보전에 발원합니다.
사단법인 [영남법음범패연구보존회]에서는
제5기 수련을 마치고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6기 범패수련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져 알립니다.

아 래

※ 자 격 : 삭발염의한 스님(일반불자 제외)
※ 개강일 : · 초급반 – 2008년 2월 25일(음력 1월 19일) 오후 3시 매주 월요일
· 중급반, 상급반 – 2008년 2월 28일(음력 1월 22일) 오후 3시 매주 목요일
※ 수강일 : 매주 월, 목요일 오후 3시
※ 장 소 :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86번지 화장사 (진영포교당)
※ 교육과정
· 초급반 : 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각단예불 등(초발심자경문)
· 중급반 : 사시불공, 49재 및 천도재의식, 관음시식, 사물다루는법
· 상급반 : 바라작법, 사물, 착복무(오공양춤) · 연구반 : 범음범패에 대한 연구보존
· 강사 : 한파, 종욱, 자광, 덕찬, 보담 · 고문 : 혜봉스님(대연사)
· 자문 : 종욱스님(승학사) · 회장 : 한파스님 · 부회장 : 무애스님
· 이사 : 무애, 법화, 덕암, 눌암, 현담, 보광, 승암, 보담
· 회원 : 현덕, 혜봉, 혜도, 무영, 보광, 법광, 자운, 만법, 면구, 무의, 행우, 원광, 성실, 혜정, 지원, 현진 등

※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055)343-2267

(사단법인) 영 남 범 음 범 패 연 구 보 존 회

謹賀新年 佛紀 2552年

2008년 戊子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박종하
신도일동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519-3
TEL 02)582-8609 / FAX 02)597-3510

대한불교조계종
백 화 사
주지 일법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18-2
TEL 02)381-9103~4 / FAX 02)381-9105

대한불교조계종
봉 국 사
주 지 김월서
신도회장 구광명화
대중일동
■ 서울시 성북구 정릉2동 637번지
TEL 02)919-0211~2 / FAX 02)919-0216

대한불교조계종
수 안 사
회주 세민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38-12
TEL 02)587-4677 / FAX 02)522-5666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 관 사
회주 진관
주지 계호
사부대중일동
부설코끼리유치원
■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1번지
TEL 02)359-8410

정법도량 청소년수련원
대한불교 조계종
신 흥 사
주지 오성일
대중일동 신도일동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산 42
TEL 031)357-2695, 357-3916

대한불교조계종
정 각 사
주지 광우
대중일동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1가 277-12
TEL 02)742-1231 / FAX 02)742-1235

대한불교조계종
안성 석 남 사
주지 정무
매월 첫째주 일요일 중심회 법회
매월 초하루 정기법회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508번지
TEL 031)676-1444

대한불교조계종
등 명 낙 가 사
주 지 이청우
가섭회장 최종명
금강회장 이상숙
신도일동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1리
TEL 033)644-5337

大韓佛敎曹溪宗
雉岳山 龜 龍 寺
原州佛敎大學
住持 慈光 (遠行)
■ 우)220-831 강원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1029
TEL 033)732-4800~3
FAX 033)732-1211
E-mail : guryongsa@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내 원 정 사
주지 현문
사부대중일동
■ 서울 동작구 상도1동 788번지
TEL 02)814-5502

북한산 노 적 사
주지 종후
사부대중일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331번지
TEL 02)353-5016

대한불교조계종 · 무등산
證心寺
주 지 진화
부주지 대전
신도회 일동
(증심회, 지장회, 합창단, 자향회)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6
TEL 062)226-0108
홈페이지: www.jeungsimsa.org

세계불교임제종
자 바 사 (慈悲寺)
주지 지정
사부대중일동
■ 경남 함양군 안의면 봉산리 60번지

바다소리 풍경소리 신흥사 템플스테이

한반도 끝자락,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푸른 섬이 있습니다.
거칠 것 없는 하늘과 땅, 바다의 힘찬 기운이
중생을 살찌우는 섬, 완도.
그 곳에 신흥사가 있습니다.

바다소리 풍경소리 어우러져
마음을 달래주는 도량 신흥사.
완도 신흥사 템플스테이 *를 만나 보세요.*

◦ 신흥사 템플스테이에서는 섬으로 떠나는 역사여행
(청산도, 보길도)과 바닷가 달빛 명상,
제 3세계 영화 감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문의 : 061)554-2634
www.sinheungsa.net

한국불교화엄종
구이 정 각 사
주지 벽송
사부대중일동
■ 전북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산 176번지
TEL 063)222-2555~6

대한불교조계종
한 천 사
사부대중일동
마음을 맑게 세상을 자비롭게
■ 경북 예천군 감천면 증거리
TEL 054)652-6911

운봉산 광운사 서울포교원
광 운 정 사
주지 청운
부설 광운불교대학
광운사 033)433-9108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87-10
TEL 02)381-8966

보 타 사
사부대중일동
■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보타사
TEL 02)928-2074

대한불교본원종 총무원장 주석사찰
삼각산 연 화 정 사
주지 대화
사부대중일동
■ 서울 종로구 평창동 417-6
TEL 02)379-1965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성륜산 용 덕 사
주지 성효
대중일동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 산57번지
TEL 031)332-0426
FAX 031)339-7604
www.yongduksa.com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경 국 사

사부대중일동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75-3
L 02)914-5447, 2828
FAX 02)914-4326

대한불교 조계종
승 가 사
주지 정호
사부대중일동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산 1번지
TEL 02)379-2996

한국불교 태고종
무 량 사
주지 무공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단법인 대륜불교문화
(태고)연구원 이사장
서울시 강북구 수유4동 584-12호
TEL 02)904-0016,0081

(사)대한불교무량종 인천지원
비 룡 정 사
주지 박보산
신도일동
비룡불교대학 제4기 모집
인천시 중구 선린동 57-7
TEL 032)763-1237

현실감각 일깨우는 조정자 역할



그림 · 김홍인

김 진 무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전통적으로 불교 교단은 이른바 '칠중(七衆)', 즉 비구 · 비구니 · 사미 · 사미니 · 식차마나 · 우바새 · 우바이 등으로 구성된다. 칠중은 다시 재가와 출가의 둘로 크게 분류된다. 불교교단의 전개와 전파에 있어 그 주체는 출가의 뛰어난 스님들이 담당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재가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했다. 최근 이런 재가 가운데서도 '거사불교'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필자의 전공인 중국불교에 있어서 유명한 거사들에 대하여 그 역할과 생애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오늘의 거사들이 참다운 불법 실현을 위해 어떤 신행과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귀감으로 제시한다.

거사란?

연재를 시작하기에 앞서 '거사'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근본불교에서 거사의 호칭은 당시 인도의 사성계급과 관련해 나타난다. <장아함경> 권22에 바라문종과 찰리종 등을 언급하며, "거사종(居士種)은 여러 가지 기예를 익혀 생활한다."고 설명한다. 이런 설명에서 거사는 사성계급 중 평민에 해당하는 '바이샤(vaiśya)'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승불교가 흥기하면서 거사는 점차로 '장자(長者)'와 혼용되기 시작한다. 거사를 나타내는 범어는 gṛha-pati인데 이를 중국에서는 가라월(迦羅越)로 음역하고, 의역으로는 장자 · 가주(家主)로 하고 있음이 그 증거다.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거사'와 '장자'는 그 의미가 다르게 쓰인다. <유마경>에서는 분명하게 '거사'와 '장자'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는데, 거사는 '백의(白衣)거사'라고 해 일반적인 평민을 의미하고, '장자'는 불교를 깊이 이해하고 비교적 부유하며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중국에서 불리는 거사

그러나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거사' 호칭은 인도에서처럼 거사와 장자로 구분되지 않게 된다. 본래 중국에서는 <예기(禮記)>의 옥조편(玉藻篇)에 "거사는 도와 예술에 머무는 선비이다[居士, 道藝處士也]"라고 주석돼 있고, <한비자(韓非子)>의 외저설좌(外儲說左)에는 "학문에 머무는 선비[居學之士]"라는 말이 있어 이것이 거사라는 용어의 효시로 본다. 따라서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의 거사는 세속적인 관직과 부와 명예를 초탈해 학예와 도를 즐기는 선비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거사의 용어는 비록 인도불교 번역어로 사용됐지만 본래 지닌 함의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에 따라 주석이 필요하게 됐는데, 승조(僧肇)의 <주유마힐경(注維摩詰經)>에 구마라집(鳩摩羅什)의 거사에 대해 "외국(즉, 인도)에서는 많은 재산이 있어 즐기는 사람을 거사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천태 지의(智顗)대사는 <관음의소(觀音義疏)>에서 "거사란 재화를 많이 축적하고 가업이 풍부하여 이루어진 이름"이라 말한다.

이러한 주석은 중국인들이 본래 지니고 있는 거사의 개념과 약간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이후 수대(隋代) 혜원(慧遠)의 <유마의기(維摩義記)>에는 "거사는 두 가지다. 첫째는 재산을 많이 축적한 '재물에 머무는 사람[居財之士]'이고, 둘째는 재가에서 수도(修道)하여 '집에 머무는 도사[居家道士]'를 거사라 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중국적인 '학문(불교의 가르침)에 머무는 선비'의 거사개념이 불교에 스며든 것이 짐작된다.

'거사'는 일반적으로 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 · 율이나 중국의 전적에 '거사'가 꼭 남성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여거사(女居士)'의 표현이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사'의 개념에는 남 · 녀 모두가 포함된다. 또한 중국에 있어서는 일반 민중으로부터 고관대작, 군왕 · 황제 등 신분에 상관없이 불교에 깊은 이해를 가지거나 혹은 거대한 재시(財施)를 일으켰다면 모두 거사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거사불교에는 거사 교의에 대한 학습과 수행, 신행활동, 그리고 여러 호법 등이 모두 포괄된다. 중국불교사에서 거사들의 역할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까? 실제적으로 불교의 발원지인 인도와는 문화적 풍토가 전혀 다른 중국에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거사불교의 역할은 거의 결정적이었다. 그것은 중국 역대 거사와 거사불교에 대한 자료를 일람한다면 바로 긍정하게 된다. 거사와 거사불교에 관련된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거사 불교관련 자료

거사불교와 관련된 자료는 다섯 종류로 분류된다. 첫째가 바로 거사전(居士傳)의 유형이다. 가장 유명한 것은 청대 팽소승(彭紹升: 法名 際清)의 <거사전>과 <선여인전(善女人傳)>이고, 명대 도명잠(陶明潛)의 <선각집(先覺集)>, 원신(圓信) · 곽응(郭凝之)의 <선각종승(先覺宗乘)> · <우바이지(優婆夷志)>와 주시은(朱時恩)의 <거사분등록(居士分燈錄)>, 심태(心泰)의 <불법금탕편(佛法金湯編)>과 하수방(夏樹芳)의 <명공법희지(名公法喜志)> 등이다.

이 가운데 <거사전>은 가장 전형적인 거사 전기로 전56권의 방대한 저작이다. 총 217명의 거사를 표제로 설정하고 내부에 등장하는 인물까지 포함하면 거의 300여 명에 이르는 거사들의 전기를 싣고 각 전기에 출전근거를 설명한다. <거사분등록>은 거사전의 형식이나 그 인물의 범위를 선을 수행한 거사로 한정해 약 110명 거사들의 전등을 다뤘다. <불법금탕편>은 제왕 · 명신 · 거유(巨儒) 등이 행한 불교의 호법과 관련된 전기고, <명공법희지>는 명공(名公), 즉 유명한 관료와 충의열사 등 거사의 전기를 기술했다.

둘째는 유명한 스님의 사적을 기술하면서 거사를 함께 기재한 자료다. 승우(僧祐)의 <홍명집(洪明集)>, 도선(道宣)의 <광홍명집(廣弘明集)> · <집고금불도론형(集古今佛道論衡)>, 언종(彦悰)의 <집사문부응배속등사(集沙門不應拜俗等事)> 등 수십 종이 있다. 이들 문헌은 불교와 도교 · 유교 등과의 논쟁 및 여러 사건을 기록하면서 거사들이 찬술한 저작이나 행적 등을 함께 기록했다. 이는 거사불교의 면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셋째는 거사들이 스스로 찬술한 호법론(護法論)이다. 주로 <홍명집>과 같은 문집에 게재돼 있다. 이사정(李事政)의 <내덕론(內德論)>과 장상영(張商英)의 <호법론(護法論)>, 유밀(劉謐)의 <삼교평심론(三敎平心論)> 등이다. 이런 저작들은 그 사회적 영향이 매우 지대해 불교가 중국에 뿌리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넷째는 각 종파의 사서(史書)와 전기다. 도원(道原)의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과 보제(普濟)의 <오등회원(五燈會元)>, 구여직(瞿汝稷)의 <지월록(指月錄)> 등이 있다. 각 고승 전기와 거사들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다섯째, 각종의 소설과 개인문집이다. 유의경(劉義慶)이 찬술하고 유효표(劉孝標)가 주석한 <세설신어(世說新語)>와 언지추(彦之推)의 <언씨가훈(彦氏家訓)> 등이 있다. 당시 시대적 상황과 거사들의 불교사상이 반영돼 거사불교의 방계자료를 형성한다.

거사불교의 역할

위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중국의 거사불교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역할을 했다. 우선 여러 형태의 호법활동이다. 중국에 불교가 처음 전래되었을 때 현저한 문화 차이 때문에 전통적인 사상을 고집하는 중국인들은 불교를 극심히 비판하고 배척했다. 이런 상황에서 거사들, 특히 제왕과 대신, 귀족, 관료, 문인 등 지배계층에서 보여준 적극적인 호법행위는 불교 사원과 승단을 보호했다. 거사들의 외호가 있었기에 중국에 불교가 뿌리내릴 수 있었다.

둘째 막대한 재물을 보시했다. 거사들은 정치사회적인 호법과 동시에 사찰 건립과 유지, 보수에 끊임없는 재시를 했다. 그 결과 중국불교는 통치자에 의해 자행된 폐불 · 멸불의 시련속에서도 면면히 그 맥을 전승할 수 있었다.

셋째 교의에 대한 다양한 개진이다. 학문 소양이 깊은 여러 거사들이 있어 교의가 발전할 수 있었다. 나아가 새로운 교의가 거사로부터 제시되기도 했다. 위진(魏晋)시기 도생(道生)스님의 <돈오성불론(頓悟成佛論)>은 당시 유명한 문인이었던 사령운(謝靈運)의 적극적인 지지에 그 내용이 더욱 풍부해졌다. 부대사(傅大士)는 초기 선사상(禪思想)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또 이통현(李通玄)의 <화엄론(華嚴論)>은 중국이나 한국에서 지금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 세 가지뿐 아니라 거사불교는 항상 승가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했다. 불교가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현실감각을 일깨우는 중요한 조정자 역할도 했다.

이제 이런 중국 거사불교의 토대로부터 거사들 각각의 행적과 사상과 역할을 조명해 그들의 불교인생과 거사불교의 역사를 따라가 보자.

옥석공예사
불상. 석탑. 건축. 자연석. 석물. 납골당
수십여 년의 불사경험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정진하는 자세와 장인정신으로 원만한 불사의 주춧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덕 큰스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옥석공예사 대표 임상균 합장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60-2
031)859-5689 / 011-353-3622

히말라야 산상 염불기도 법회
히말라야 선원 – 네팔
해상 참선 법회
덕적도 밧지름 해변 – 대한민국
www.begood05.com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 행 화
방한용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발,마춤형 제작
방한용부츠 보아털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20-250mm • 색상 : 회색, 검정
최고의 선물
조각무명 특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사계절단화 풍산동 99% 지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지압깔창 발명특허원41435 풍산동 99% • 가격 : 10,000원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예천) 붓다불교점 054)655-2525

謹賀新年 佛紀 2552年

2008년 戊子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호국 불교 묵조선

대한불교 조동종

종 정 지명 덕찬

총무원장 대은 덕우

종도일동

■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 도선사 : 서울시 노원구 상계4동 산 154번지 TEL 02)2091-0408

대한불교 조동종 주석사찰
청 련 사

종 정 윤지명 덕찬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562-1
TEL 02)379-3935

대한불교 조동종 주석사찰
도 선 사

총무원장 황대은 덕우

■ 서울시 노원구 상계4동 산154번지
TEL 02)2091-0408

하나투어 HANATOUR 전문판매대리점
불교성지순례전문여행사

대덕 큰스님!!
정해년 한해의 보살핌에 감사드립니다.

불교성지순례 및 문화 탐방
◇ 칭짱열차 티벳
◇ 보현도량 아미산
◇ 낙산대불 구채구, 황룡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하나투어 VIP 여행사
진주시 신안동 8-10번지
신안동 ☎ 055)743-5001
E-마트 ☎ 055)741-9999

대한불교 조동종 주석사찰
부 종 정 오 도 암

주 지 최제공 덕호

■ 대구시 동구 검사동 764-9
TEL 053)984-0343

대한불교 조동종 주석사찰
승정원장 금 강 사

주 지 박지운 덕주

■ 경기도 남양주시 외부읍 덕소리 600-15
TEL 031)512-4477

대한불교 조동종 주석사찰
부승정원장 용 천 사

주 지 박심월 덕담

■ 서울시 강서구 등촌2동 570-6
TEL 02)2062-0725

대한불교 조동종 주석사찰
부승정원장 금 강 사

주 지 김법공 덕룡

■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공세2리 128-1
TEL 031)773-4747

대한불교 조동종 주석사찰
남해교구원장 미 륵 암

남해교구종도 및
신도일동

■ TEL 055)867-2259

대한불교 조동종 주석사찰
대한불교 조동종

영동교구 종도일동

대한불교 조동종 주석사찰
종회부원장 만 덕 사

주 지 허운성 행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3리
TEL 054)261-0591

대한불교 조동종 주석사찰
사회국장 묵조선명상선원

주 지 심성운 영묵

■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125-194
TEL 02)464-8305

대한불교 조동종 주석사찰
연 화 정 사

주 지 최병익 원봉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산 151번지
TEL 031)643-6441

대한불교 조동종 주석사찰
감찰원장 우 암 사

주 지 송덕성 행성

■ 서울시 강서구 화곡본동 24-197
TEL 02)2698-6100

대한불교 조동종 주석사찰
부 종 정 석 본 사

주 지 김통원 행원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240-1
TEL 031)573-4848

대한불교 조동종 주석사찰
교육원장 보 광 사

주 지 석광혜 행문

■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419
TEL 02)790-3325

대한불교 조동종 주석사찰
경북교구원장 건 봉 사

주 지 박운학 덕해

■ 경북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175-1
TEL 054)746-3651

대한불교 조동종 주석사찰
강원교구원장 보 문 사

주 지 송혜각 행서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리 산 513번지
TEL 033)434-5469

謹賀新年 佛紀 2552年

2008년 戊子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조동종 주석사찰
규정부장 **정 본 사**
주지 김원광 행광
■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산 281-1번지
TEL 033)636-4627

대한불교 조동종 주석사찰
총무부장 **행운정사**
주지 엄법화 행인
■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당남리 68번지
TEL 031)326-7108

대한불교 조동종 주석사찰
재무부장 **석 불 사**
주지 이법연 행록
■ 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 844-1
TEL 02)379-3939

대한불교 조동종 주석사찰
문화부장 **정 불 사**
주지 김능일 행능
■ 경남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155번지
TEL 055)329-3149

대한불교 조동종 주석사찰
포교부장 **원각선원**
주지 강소원 행오
■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101번지
TEL 031)485-7981

대한불교 조동종 주석사찰
감찰부장 **보 림 사**
주지 임혜산 행은
■ 충북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 322-323번지
TEL 043)421-1318

대한불교 조동종 주석사찰
종회의장 **명 덕 사**
주지 우해륜 행봉
■ 강원도 홍천군 남면 명동리 471번지
TEL 033)432-7345

대한불교 조동종 주석사찰
충북교구원장 **관 음 사**
주지 석혜성 행산
■ 충북 청원군 미원면 쌍이리 279-5
TEL 043)297-0209

대한불교 조동종 주석사찰
영남교구원장 **관 음 사**
주지 권청담 덕신
■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879번지
TEL 052)262-6958

대한불교 조동종 주석사찰
종회의원 **혜광선원**
주지 원혜광 혜광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658-4
TEL 031-452-0586

대한불교 조동종 주석사찰
종회의원 **심 원 사**
주지 박홍길 지성
■ 경북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2리 늘밭마을 283
TEL 054)773-9603

불교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정해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대덕 큰 스님께 감사드리오면, 무자년에도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아름다운 풍경 소리를 찾아서
풍경 여행사와 함께 떠나세요.
풍경여행사
이영미 실장 합장
■ TEL 02)938-1405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말사
운달산 김 룡 사
주지 혜 창
부주지 정 업
사부대중일동
– 마음을 맑게 세상을 자비롭게 –
■ 경북 문경시 산북면 김룡리 410번지
TEL 054)552-7006,9336
FAX 054)553-5352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말사
화엄도량 부 석 사
주지 근 일
사부대중일동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번지
TEL 054)633-3464
홈페이지 www.buseoksa.org

동울산사암연합회

원 로	원각사	월타
고 문	법륜사	눌암
회 장	대원사	동파
사무총장	수도사	초우
	관음사	현수
	관음사	혜원
	용암사	법광
	자광사	향공
	정각사	해승
	동축사	문성
	등용사	본명
	반야사	노암

사부대중일동
전화 052)233-7176, 251-0134

대한불교조계종
신라고찰
봉 서 사
사부대중일동
■ 경북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764번지
TEL 054)859-5996

대한불교태고종
백 운 사
주지 송계
사부대중일동
신비한 기운을 받은 소백산자락에 위치한
백운사에서 산신각불사의 소중한 전국의
인연을 기다립니다.
사업대통,소원성취,건강발원,학업성취
■ 경북 예천군 상리면 도촌리 313번지
TEL 054)652-3113

대한불교조계종
계룡산 갑 사
주지 태 진
사부대중일동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번지
TEL 041)857-8981, 8982
FAX 041)857-9753

대한불교조계종
현 덕 사
주지 현 종
사부대중일동
■ 강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569
TEL 033)661-5878

公益法人 **大韓佛教 華嚴宗**
大本山 **藥 師 寺**
(약사 추모관 운영中)
회 주 **화 담**
주 지 **화 응**
부주지 **대 휴**
신도일동
財團法人 **華嚴僧伽浆學財團**
公益法人 **大韓佛教華嚴宗浆學會**
이사장 **한상호(화응)**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산 21
☎ 032)422-2066
서울사무소 소장 **양 위 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08 금강빌딩 301호
TEL 02)730-0798~9 / FAX 722-3205

대한불교조계종
희양산자락
봉 암 사
주지 함현
사부대중일동
조계종 스님들의 선 수련장으로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있으나
특별히 매년 부처님오신날만 개방합니다.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485번지
TEL 054)571-9088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산 축 서 사
주지 무여
사부대중일동
조계종 전문교육 불교교양대학 운영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TEL 054)672-7579
홈페이지 www.chooksersa.org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유물전시관
주지 벽담 청안
사부대중일동
3월 3일과 9월 9일에
두번 윤장대를 돌릴 수 있는 사찰
새해를 맞아 신문사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북 예천군 용궁면 내지리 391번지
TEL 054)655-1011

대한불교조계종
대원사·대원불교대학
조계종 신도전문 교육기관
주지 용담
사부대중일동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선재어린이집
경북 안동시 목성동 57-1번지
TEL 054)858-2630(종 무 소)
054)855-6033(어린이집)

사찰공양실 고급수저 공장도가 시판!

불자용 명품수저 DANI 공장도가 Set 당 1,000원씩 공급



사찰공양실 보시로 품격!!
불자가정 새해 선물로 최고!!

국내주방용품 생산메이커인 (주)신도스텐에서 사찰 공양실과 불자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큰호응을 얻고 있다.

명품브랜드인 DANI 로 국내주방용품을 석권하고 있는 신도스텐 대표 최성욱은 사찰에 갈때마다 공양실에서 나오는 수저가 일반식당에서 나오는 저품격 수저와 같아 사찰공양실이 아닌 세상식당에서 먹는것과같은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명품DANI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공장도 가격에 공급한다고 했다. 명품수저"다니"는 일반수저와 달리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의료기 만드는 최고급 스텐레스로 제작되었으며 수저 손잡이 상단에는 막힘없는 불사 성공과 불자들의 건강장수를 위해 "반장"을 넣고 수저중간에는 사찰과 불자가정의 비상을 기원하는 뜻에서 "학2마리"가 비상을하며 손잡이 하단에는 공양하는 불자님들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게 육자대명왕진언"옴"자를 넣어 고급스럽고 품격있게 제작되어 있다. 명품:다니"일반수저는 백화점에서 Set에 3,500원씩 판매되고 있으나 사찰과 불자님께는 보시하는 마음으로 1,000원씩 공급하고 있어 사찰공양실과 불자가정의 뜻깊은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있다. 명품수저DANI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20Set 선물용 20,000원과, 사찰에서 사용할 수 있게 50Set 50,000원, 100Set 100,000원등 3가지로 포장되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의(02)741-4477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무자년 새해 福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세요

평생부자지갑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무자년 소원 성취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영험!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가족 친지에게 새해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새해 소원성취의 선물!

2008년 쥐띠 무자년은 12지신중 첫번째로 앞으로 12년을 새로이 시작하는 첫해다. 속설로 2007년 12월이 되면 정해년의 기운은 다해 떠나가고 무자년의 새로운 기운이 이미 들어오고 있어 버릴것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기운을 받을 준비를 해야한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신묘장구란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잘 풀린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않고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 물질로 인한 고통이다.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동안 물질의 고통을 해결하고 평생부자로 사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다. 그러나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신묘장구 지갑은 대비신력의 신통한 종자가 들어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대복을 받으며**, 어떠한 고통과 액난도 다 소멸되게 영험을 발하게 하는 의식인 점안식까지 마친지갑이다. 또한 사용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어려웠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부동산이 쉽게 팔리고 생각지도 않던 좋은 일들이 만들어 지는등 영험의 지갑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지갑내부에는 돈을 들어오게 하는 신묘법구인 "보병"을 넣고 모든 일들이 확 풀리게 하는 영험의 "반장"을 부착하고 모든소원이 성취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지갑앞면에 넣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가 꾸며져 있다. 불심사에서는 지갑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성취를 위한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남성용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95,000원

신용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2008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 막아!!

닥쳐올 화를 미리 쫓는 삼고금강저



※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뜻깊은 삼재소멸 선물로 품격이 있습니다.

2007년에 드는 삼재 2008년 묵는삼재 2009년 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2009년 말까지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삶을 살아야 하므로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법하지 말고 일을벌리면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 세상 각종 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 금강저는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순금금니로 제작하여 가방 또는 지갑속에 넣고 다니면 안전하다. 삼재가 끝나는 2009년 말일 삼고금강저를 기도한 후 땅속에 묻으면 삼재는 모두 끝난다. 삼재소멸 불공을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드린다. 가격:35,000원 (가로5cm폭2cm)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삼재소멸비방으로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고 다니면 성공!

1929년생 뱀띠 (악삼재)	1945년생 닭띠	1961년생 소띠 (악삼재)	1977년생 뱀띠
1933년생 닭띠	1949년생 소띠 (악삼재)	1965년생 뱀띠	1981년생 닭띠 (악삼재)
1937년생 소띠	1953년생 뱀띠	1969년생 닭띠 (악삼재)	1985년생 소띠
1941년생 뱀띠 (악삼재)	1957년생 닭띠	1973년생 소띠	1989년생 뱀띠 (악삼재)

※삼재가 든 중생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하는일 마다 어렵고 큰 화를 당하며 금전적인 손실을 보고 건강이 나빠지며, 관재수가 든다.
삼재라 하여 삼재가 든 모든사람이 안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사용 백연화 향로

후손의 번영과 안녕을 지켜주는 우리집 가보



• 규격:높이14cm, 폭18cm, 무게1kg

천년이 지나도 그대로 99% 황동으로 제작

제사를 지내는 의식중에 제일 중요하고 엄숙해야할 의식이 첫번째로 분향이다. 신위(神位)께서 오시도록 향로에 향을 피워 인도하는 의식으로 제사용어로 강신(降神)이라 한다. 강신은 제주(際主)를 위시하여 제사에 참석한 모든이들이 신위 앞에 선다음 제주는 무릎을 꿇어 향로에 분양을 한다. 이때 신위께서는 천가지 눈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후손들이 행동가짐도 바르게 해야하고 음식도 정갈하게 하며 향로 또한 동물모양등의 조각이 없는것을 사용해야 한다. 백연화 향로는 하얀 연꽃이란 뜻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신위(神位)를 모신다는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 향로다. 불심사에서 제작한 백연화 향로는 99%황동만으로 정교하게 제작되어 천년이 지나도 변색 변질 되지 않게 베르린 왁시까지 처리 하였다. 자자손손 가정의 부와 명예를 얻게 일곱봉우리의 백연화가 향로에 피어있고 후손의 가정가정마다 만사 형통과 모든 소원이 성취되고, 건강장수하게 육자대명왕진언을 넣어 가정의 천년가보로 품위있게 제작되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제사때 품위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98,000원 **문의 (02)741-4477**
농협: 053-02-228720 이진경

천연백수정 108염주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불멸의 염주



※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최고급!

■ 평생염주 축원불공 마치고 시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천연백수정 108염주를 수입시판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천연백수정은 바위에 석불을 만들고 석불이마에 영험을 발하기 위해 백수정을 점안해 어둡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님광명으로 맑고 깨끗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뜻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영원불멸의 부처님 보석이라하여 천연백수정을 간직하고만 있어도 평생행운과 건강을 지켜주며 원하는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행운의 보석으로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와 아라비아 상인, 정치가, 지도층인사들의 전통모자에는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한다는 행운의 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볼수 있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사업을 하고 계신 분, 중대한 시험을 앞둔 분, 소중한 인연을 찾고 계신 분,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등은 믿음으로 사용하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된다는 평생염주다. 천연백수정 염주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으시고 사용하실 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백수정 108염주외 특별선물로 일반인께는 손목단주를 스님께는 합장주를 드립니다.

■ 영원히 살아 숨쉬는 승리의 염주

가격95,000원
전화 :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 사고예방 삼고금강저 출시

닥쳐올 화를 미리 쫓고 생명을 보호하는 영험!

안전운행의 선물! 평생보호의 선물!



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친 비방!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세상 사는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가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비방의 법구가 삼고금강저다. 달리는 자동차 사고는 자의든 타의든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와 죽지 않으면 평생고통속에 살아야하는 액란이다. 부처님 제1위 법구인 삼고금강저는 세상사는 동안 생명을 보호하고 닥쳐올 화를 미리쫓고, 악연을 만나지 않게 하며, 법적인 관재수를 소멸하고 금강의 지혜를 얻어 안전운행하게 하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부처님 가피로 생명보호와 안전운행의 축원불공까지 마친 자동차용 금강저는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순금금니로 제작해 운전석위에 걸면 차안이 품위가 있고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불심사에서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38,000원 **문의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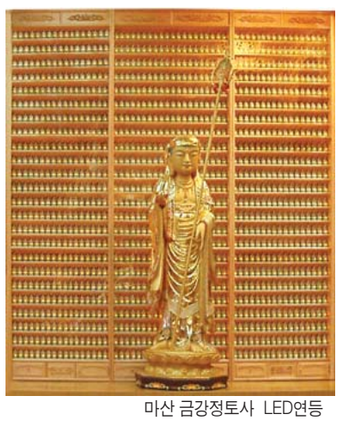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연등


수원 팔달사 영구위패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팔각봉축접등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부산 해운대 법륜사 법당 남양주 영도암 인등 군산상주사 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